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6. 3. 31.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거한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3. 31.

*** 확 인 자 ***

경희대학교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박 ○ ○ (인)

경희대학교 대입선행학습영향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경희대 ○○학과 교수	박 ○ ○
	○○고등학교 교사	이 ○ ○
	○○고등학교 교사	박 ○ ○
	○○고등학교 교사	김 ○ ○
	○○고등학교 교사	조 ○ ○
	○○고등학교 교사	조 ○ ○
	○○고등학교 교사	전 ○ ○
	○○고등학교 교사	이 ○ ○
	○○고등학교 교사	이 ○ ○

〈목 차〉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 1
1. 대학별고사 현황 ····· 1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 1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3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3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5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 6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7
1. 출제 전 ····· 7
2. 출제 과정 ····· 13
3. 출제 후 ····· 18
4. 문항 분석 및 평가 ····· 19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22
1. 출제 및 검토 개선, 출제 후 점검 강화 ····· 22
2.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 23

※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25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 26

〈부 록〉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26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2]……36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3]……49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4]……59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5]……70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6]……81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7]……86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8]……91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9]……97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0]……102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1]……107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2]……114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3]……120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4]……129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5]……135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6]……143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7]……150
[경희대학교 문항카드 18]……189

경희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현황

대학에서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을 위해 실시한 모든 전형에 대하여, 각 전형의 모집계열(단위)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를 제시된 양식에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인문체육계열	○	○					○
	논술우수자전형	사회계열	○	○					○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	○					○
	논술우수자전형	의약학계열	○	○					○
	학생부종합전형	전체	○		○				X
	재외국민전형	인문계열	○	○					○
	재외국민전형	자연계열	○	○					○
	실기우수자전형	예술계열	○			○			X
	실기우수자전형	체육계열			○				X
정시	실기우수자전형	예술계열	○			○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

	공개	(https://iphak.khu.ac.kr/main.do.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메뉴)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동일 내용을 엑셀 파일로 함께 제출함)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인문·체육계열	○	○					○	준수
	논술우수자전형	사회계열	○	○					○	준수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	○					○	준수
	논술우수자전형	의약학계열	○	○					○	준수
	학생부종합전형	전체	○		○				X	해당 없음
	재외국민전형	인문 ·예술·체육계열	○	○					○	준수
	재외국민전형	자연계열	○	○					○	준수
	실기우수자전형	예술계열	○			○			X	해당 없음
	실기우수자전형	체육계열	○		○				X	해당 없음
정시	실기우수자전형	예술계열	○			○			X	해당 없음

※ 경희대의 면접은 인성면접으로 교과 지식에 관련된 면접은 아님.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을 다음의 표에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연수 신청 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동일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제출함)

시험유형	입학전형	모집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체육 계열	없음	1~2	-	○	○	○						
					-	○	○	○						
		사회계열	없음	1~3	-	○	○	○						
					-	○	○	○						
					-	○	○	○	○					
		자연계열	수학	1~3	1~2				○					
					1~2				○					
					1~2				○					
		의·약학 계열	수학	1~2	1~2				○					
					1~2				○					
			과학	3~4	1~2					○	○	○		
					1~2					○	○	○		
선다형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예술 ·체육계열	국어	1~50	-	○								
		자연계열	수학	1~40	-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경희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2015.2.12.)을 제정하여 2015.5.1.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입안일자 2015.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 자체 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

별법』제10조에 따라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대상) 선행학습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시행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의 모든 대학별 고사가 대상이 되나, 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체육· 예술 교과(군)는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준하는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년도 대학별 고사의 출제 및 검증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래 각호의 교내·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 관한 전문가
2.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등학교 교원
3. 학부모 또는 교육단체 관계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내부위원은 교내 전임교원 및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여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학부모 등 전문가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내부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처 이외의 직원으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선행학습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경희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준수하여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위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로 교과목별로 1인씩을 위촉한다.

경희대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전원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이 88.9%이다. 외부위원은 고교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어, 사회, 윤리,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교과목별로 1~2인의 고교 교사를 위촉하였다. 외부위원은 대다수가 일반고등학교 교사로 시도교육청 산하의 대입논술지원단에서 논술 분야를 수년간 담당해 온 경험 많은 교사들이다.

이외에도 경희대 서울/국제 입학처의 논술, 면접, 재외국민전형 담당자로 지원팀을 구성해 대학별고사의 출제 관리, 문제와 답안, 진행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자료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2025년 3월에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2026학년도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이후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연중 논술출제위원회 등에 고교 교육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출제장에 입소하여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고교 교원 검증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별로 자체평가를 재차 시행한다. 2022년 처음으로 논술고사 시험 후 채점 전 문제 및 예시답안을 재검증하는 중간평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원 개인별로 고사별 과목별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정리하고 1월 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일정・절차는 전형 시기에 따라 전형유형별로 중간평가 회의 성격으로 출제 중, 출제 후 채점 전에 검토 회의를 진행, 그리고 전체 대학별 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영향평가 최종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전형명	내용	일자	절차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고사	2025.7.19	
	출제 중	2025.7.14~19	검토 교사 검증
	중간평가 회의: 출제 후 채점 전	2025.7.21~23	검토 교사 및 교수 사후 검증,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2025.11.15~16	
	출제 중	2025.11.12~16	검토 교사 및 교수 검증
	중간평가 회의: 출제 후 채점 전	2025.11.17~19	검토 교사 및 교수 사후 검증,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회의		2026.2.2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대학별고사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및 고등학교 교원 참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22명	22명	-
	검토위원	14명	-	14명 (11명)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3명	-	3명 (3명)

1. 출제 전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Ⅰ. 출제 전	1. 고교 교육과정 분석	출제 전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2. 출제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출제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실시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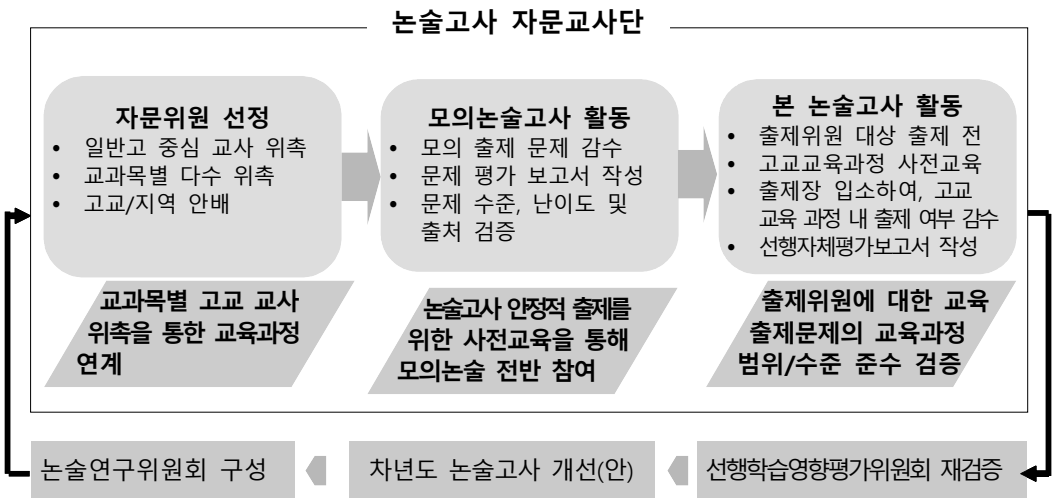
① 출제 전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ㅇ **모의논술고사부터 본고사까지 상시 연구하는 「논술연구위원회」 운영**

- 경희대는 대학별고사가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출제 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 논술고사의 경우 매년 5월부터 내부 교수로 구성된 「논술연구위원회」와 고교 교사로 구성된 「논술고사 자문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 논술연구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연구하며 이들 중 일부가 본 논술 출제 교수로 참여하고 있고, 입학처와 협의하여 매년 4월 제작되는 논술고사 안내자료집인「논술고사가이드북」과 「입학설명회 PPT와 동영상」의 논술고사 안내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 6월 시행된 「모의논술고사」 출제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를 사전 교육 훈련한다.

○ **모의논술고사부터 본고사까지 검증하고 검토하는 「논술고사 자문교사단」 운영**

- 논술고사 자문교사단은 일선 고교 교사로 교과목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고사 출제 단계부터 모의논술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지, 고교 현장의 입장에서 학생 체감 난이도는 어떤지 등을 분석하여 출제위원에게 자문한다.
- 본 논술고사 출제 입소 전 자문교사단이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및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별도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노력]

○ **고교 교육과정(필요시 교과서 등) 분석: 입시 전형에 공고된 출제 영역/과목명과 고교 교육과정 문서상의 영역/과목명 일치 여부**

- 경희대는 모집요강, 논술가이드북, 라이언, 입학안내 PPT와 동영상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고사) 출제 방향을 상세하게 사전 공지하고 있다.
- 모의논술고사 단계부터 본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키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영역과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2026학년도 수험생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전 종을 사전에 구입하고 특정 교과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모의고사 단계부터 활용하도록 하여 본 출제를 대비하고 있다.
- 2026학년도 모든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재외국민전형)는 모집요강을 통해 수험생에게 사전에 예고한 대입 출제 방향과 출제 영역, 과목명을 준수하여 출제한다.

<논술고사 모집요강 안내 예시 - 모집요강 p.67 발췌>

논술고사 안내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학계"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단순 암기나 전문 지식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 기출 논술문제, 예시답안, 출제개요, 모의논술 특강 동영상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항시 공개됩니다.

1. 개요

구분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학계
문항 수	– 2문항 내외	– 3문항 내외	– 수학 6문항 내외	– 수학, 과학 각 4문항 내외
형식	– 각 1,000자 내외 (원고지 형식)	– 각 700자 내외 (원고지 형식) (단, 수리문항 노트형식)	–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 (노트 형식)	–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 (노트 형식)
시간	– 120분	– 120분	– 120분	– 120분
특징	– 통합형 논술 출제	– 통합형 논술 출제 – 수리논술 문항 포함	– 수리논술 출제	– 수리논술(60%), 과학논술(40%) 출제 – 수학은 필수 –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1과목 선택

2. 논술의 성격

- **인문·체육계, 사회계**
  - – 통합교과형 논술로 수험생의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 측정
  -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 및 문제해결 과정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평가
- **자연계, 의·약학계**
  - – 자연계는 수학, 의·약학계는 수학과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의 자연과학적 분석 능력 측정
  - –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응용력과 분석 능력 평가
  - – 의·약학계 논술에서는 특정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

- **출제 유형 :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 제시형**
- **출제 범위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
  - – 사회계 논술에는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며, 수리논술 문항은 사회·경제에 관한 도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
  - – 자연계는 수학(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의·약학계는 수학(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과 과학(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 출제
  - – 의·약학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범위 안에서 출제)
  - – 의·약학계 논술의 경우 자연과학적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과학 연구의 인문·사회·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통합형 논술 지향

<면접고사 모집요강 안내 예시 - 모집요강 p.59 발췌>

2.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

가. 해당 전형 :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1단계 합격자 전원

나. 면접 형식 및 시간

1) 방식 : 공통질문(지원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 및 개인 서류확인 면접(※ 모든 모집단위 출제문항 면접 없음)
2) 형식 : 개인면접으로, 면접관(2인) 대(對) 지원자(1인) 10분 내외 면접

다. 평가 요소 비율 및 평가 항목

평가요소·비율	평가 항목	
인성 (50%)	가치관 및 태도	– 창학이념 적합도(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의사소통능력	– 공감 능력, 표현력
전공적합성 (50%)	전공 기초소양	– 전공적성, 학업역량
	논리적 사고력	– 논리력, 사고력

※ 평가척도 :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미달(F) [가감점 활용]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안내 예시 - 모집요강 p.1, p.10 발췌>

1.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전형	계열	모집인원	전형방법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년]	인문	54명	• 필답고사 (국어 100%) • 객관식 4지 선다형 • 국어 50문항 • 고사시간 90분
	예술·체육	8명	
	자연	33명	• 필답고사 (수학 100%) • 객관식 4지 선다형 • 수학 40문항 • 고사시간 90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한의예과	2명 이내	• 면접고사 100% • 대면 면접
	전 계열 (한의예과 제외)	제한 없음	• 면접고사 100% • 비대면 면접, 면접 영상 업로드
북한이탈주민	전 계열	제한 없음	• 면접고사 100% • 비대면 면접, 면접 영상 업로드

2) 계열별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구분	인문, 예술 · 체육계열	자연계열
과목 및 반영비율	국어 100%	수학 100%
형식	객관식 4지 선다형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 수	50문항	40문항
고사시간	90분	90분
출제범위	고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 • 국어, 독서, 문학(고전문학 제외) 과목을 바탕으로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 출제	고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 • 수학, 수학I, 수학II 과목을 바탕으로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출제

② 출제 검증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연수: 출제·검토 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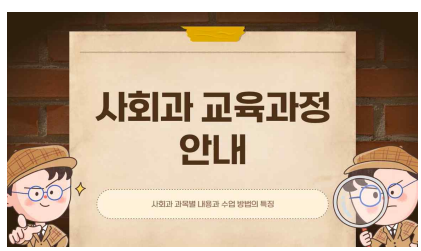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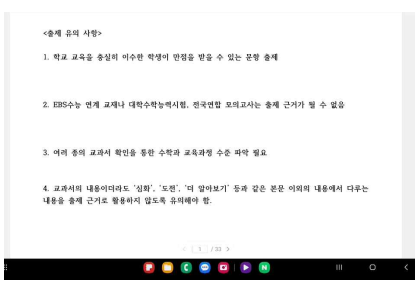
○ 논술고사 출제·검증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연수를 4차에 걸쳐 진행함. 「논술고사 자문교사단」은 교과목별로 본고사 출제위원에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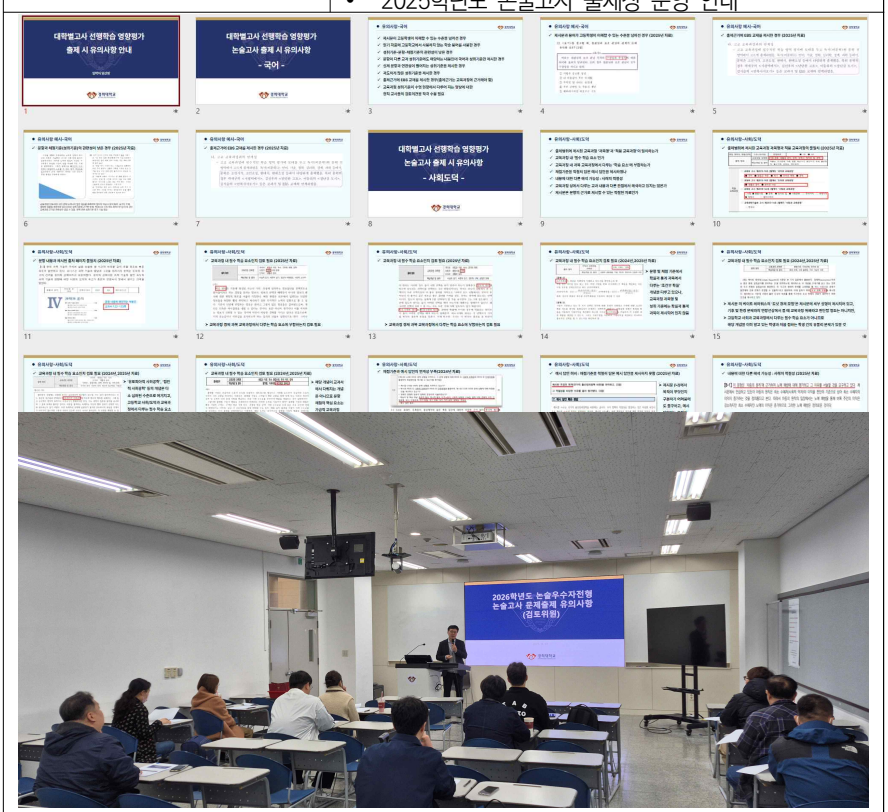
○ 모의고사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검토하여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본고사 출제 시에는 출제장 입소 전 교과목별(국어, 사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로 상세하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육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안내 영상을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검토위원까지 모두 시청하게 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의 의미와 다양한 위반 사례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 논술고사 자문교사단과 출제위원의 입소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접촉이 없도록 자문 교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table>
<tr><td>교육차수</td><td>교육일시</td><td>교육내용</td></tr>
<tr><td>1차</td><td>2025. 10. 2(목) ~ 12(일)</td><td>교육과정 안내서, 교과서 숙지 (교육과정, 교과서 배부)</td></tr>
<tr><td rowspan="3">2차</td><td>2025. 10. 13(월) ~ 26(일)</td><td>각 과목별 교육과정 안내 (검토위원이 교육 진행)</td></tr>
<tr><td colspan="2">국어(읽기), 독서 과목 내용 체계

</td></tr>
<tr><td></td><td></td></tr>
</table>

<table>
<tr><th>교육차수</th><th>교육일시</th><th>교육내용</th></tr>
<tr><td rowspan="2">3차</td><td>2025. 10. 27(월) ~ 11. 2(일)</td><td>• 선행학습영향평가 사업 소개
•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출제 안내</td></tr>
<tr><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4차</td><td>2025. 11. 9(일),
2025. 11. 12(수)</td><td>• 2025학년도 논술전형결과 공유
• 논술고사 출제위원, 검토위원 임무와 역할
• 선행학습영향평가 위반 사례 공유
• 출제 유의사항 안내
• 202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장 운영 안내</td></tr>
<tr><td colspan="2">
</td></tr>
</table>

2. 출제 과정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Ⅱ. 출제과정	3. 출제 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① 출제위원 중 고교 교원의 참여 비율
		② 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의 참여 비율
	4. 고교 교원이 출제, 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③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서 고교 교원 참여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술(역할, 방법, 절차 등)
		④ 검토 과정에서 검토위원으로서 고교 교원 참여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술(역할, 방법, 절차 등)

①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비율: 출제·검토 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비율(특히, 일반고 교원 비율 명시)

ㅇ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사 참여

- 경희대는 회피 배제 등 공정한 입시 관리를 위해 현직 고교 교사를 문제 출제 대신에 문제 검토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본 논술고사 출제 시 현직 고교 교사가 출제장(4박 5일)에 입소하여 논술고사 출제 검토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논술고사의 경우 본교 교수들이 출제를 담당하고, 검토위원(고교 교사 14명)들은 출제된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 2026학년도에는 인문・체육/사회계(국어,사회교과) 4명, 수학 4명, 물리 2명, 화학 2명, 생명과학 2명 총 14명의 교사가 논술 출제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2026학년도 논술 출제 검토위원(고교 교사) 14명의 소속 고교유형은 일반/자공고가 11명(78.6%), 자사고 2명(14.3%), 외고 1명(7.1%)으로 일반고 교사 위주로 구성된다.

ㅇ 논술고사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전형까지 검토위원(고교 교사) 참여

- 2026학년도에는 경희대 출제문항을 시행하는 모든 전형, 즉 논술고사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필답고사 출제에도 고등학교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필답고사 검토위원으로 국어 1명, 수학 2명 총 3명의 고교 교사가 참여하였고, 검토위원 3명 전원은 일반고로 구성되었다.

②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고교 교원 참여에 관한 전반의 사항(역할, 방법, 절차 등)

○ 검토위원(고교 교사)의 출제검증과정에서의 역할 강화

- 검토위원(고교 교사)이 출제장에 논술고사일 4일 전에 입소하여 논술고사 출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교육과정의 범위 밖 출제나 문제 풀이과정, 고난이도 문제의 경우 문제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된 문제를 재검증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면 즉시 과목별로 검토위원(고교 교사)은 중간의견서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출제위원은 검토위원의 중간의견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서면으로 다시 검토위원에게 전달하여 출제를 진행한다.
- 출제된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판단되면, 검토위원(고교 교사)들은 경희대가 지정한 최종 검토의견서 양식에 고교 교육과정의 출제 근거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종합의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출제 관리위원에게 제출한다.

○ 검토위원(고교 교사) 출제장 조기 입소

- 출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위원(고교 교사)은 논술고사일 기준 4일 전에 출제장에 입소한다.
- 이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 검토위원 팀별로 교차 검증을 강화하여 검토위원의 역할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별고사 출제 검토위원(자문교사) 의견서 양식>

2026학년도 논술고사 검토위원 작성 양식(인문·체육계-논제별 작성)

경희대학교 논술고사 검토위원 최종 검토의견서

2025. 11. .

논술검토위원 (인)
논술검토위원 (인)
논술검토위원 (인)
논술검토위원 (인)

[경희대학교 문항 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I)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논술고사 검토위원 문항 출제 체크리스트

연번	내용	O/X
1	출제위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2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이 최종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3	최종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4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5	최종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6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7	최종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8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9	최종 예시 답안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10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11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12	출제 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에 오류 사항이 없는가?	

2.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예시: '국어' 등으로 교과명 제시)	
	과목명: ○○○ *(예시: '화법과 작문' 등으로 교육과정의 과목명 제시)*	**관련**
	성취기준 1	
	성취기준 2	

나) 자료 출처

※ EBS자료 및 수능자료 활용 금지
※ 2022년 및 이전 발행 교과서 활용 금지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3. 검토위원 의견서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표함)
	함초롬바탕 9p
	·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표함)
	·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 기준	·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표함)
	·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 작성	·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표함)
	· 요구하는 답안 작성 시간과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총평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출제되었는지 종합의견 (·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표함)

3. 출제 후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Ⅲ. 출제 후	5. 출제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①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여부 및 내용 기술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
		② 전년도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개선 실적
기타		③ 대학의 자체 규정 제정 여부
		④ 대학 자체 영향평가위원회에 고교 교원의 참여 여부

① 출제·검토위원 설문: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만족도, 출제·검토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등

○ 출제·검토위원 대상 문제점 개선 요구 사항 의견조사 시행

- 논술고사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다수가 다음 연도 논술고사 자문교사단으로 활동하며,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출제장에서 출제위원장 주재하에 교사 검토위원들에게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진행 직원이 정리하여 경희대 입학본부(입학처)에 전달하고 있다. 입학처는 다음 연도 논술고사 교사자문단 운영과 출제장 운영에 이 내용을 반영한다.
- 출제장에서 검토위원(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무기명 비공개 의견조사를 시행한다. 그 조사 결과, 사전교육의 적절성과 충분성, 출제 일수 및 기간의 적절성, 문제 검토의 충분성, 해당 계열 검토위원 구성의 적절성, 검토위원의 검토의견 개전의 적극성, 검토의견의 수용성 등 모든 항목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출제위원 설문조사 결과〉

출제위원 4회, 검토위원 2회 사전교육 진행 횟수의 적절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적절	23	70%
적절	4	12%
보통	2	6%
부적절	3	9%
매우부적절	1	3%
총계	33	100%

출제 관련 사전교육의 충분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충분	29	88%
충분	3	9%
보통	1	3%
총계	33	100%

출제 일수/기간의 적절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적절	29	88%
적절	3	9%
보통	1	3%
총계	33	100%

해당 계열의 출제위원(교수) 섭외의 적절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적절	32	97%
적절	1	3%
총계	33	100%

문제 검토에 대한 충분성-여러 차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충분	30	91%
충분	3	9%
총계	33	100%

해당 계열의 검토위원(자문교사) 섭외의 적절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적절	29	88%
적절	4	12%
총계	33	100%

검토위원(자문교사)의 출제에 대한 검토 의견 적극적 개진여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적극적	29	88%
적극적	3	9%
보통	1	3%
총계	33	100%

검토위원(자문교사)의 검토의견서에 대해 출제위원(교수)이 충분히 수용, 반영여부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그렇다	23	100%
총계	23	100%

검토위원(자문교사)의 중간검토의견서에 대한 출제위원 의견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나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그렇다	33	100%
총계	33	100%

검토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원활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그렇다	31	94%
그렇다	2	6%
총계	33	100%

- ∘ **출제 후 설문조사 결과의 차년도 반영**
  - 논술고사 출제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입학처에서 정리하고, 논술연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출제 시 반영한다.

4. 문항 분석 및 평가

경희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여부 점검 절차를 출제 중, 출제 후 채점 전(중간평가), 등록 전(사후검증) 절차로 구분하여 다단계 절차를 마련하였다.

○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의 자체 중간평가 제도 운영

- 출제장에서 검토위원(고교 교사)의 문제 검증과 별개로, 출제 후 채점 전에 과목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이 대학별 고사에 대해 출제 문제, 채점 기준 등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검증하는 중간평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 논술고사 및 재외국민 대학별 고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 직후 채점 전에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별로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채점 기준 등에 반영하였다.
- 선행학습영향평가 최종 회의도 신입생 최종 등록일 이전인 2월 2일에 개최하여, 문제 정답 오류 등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한 시점에 시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강화된 절차에 따라 논술고사 포함 모든 전형은 2027학년도에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은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면접으로 진행하되 한의예과의 경우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지식 등을 확인하는 출제 문항이 별도로 없고, 서류 역량을 재확인하는 면접이다.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접대상자별로 질문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면접 예시문은 아래 표와 같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문제 예시]

평가요소	문제
전공적합성	1.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과목은? 관심 분야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이수한 과목이 있는가? 2. 관심을 갖고 깊게 탐구했던 활동을 하나만 소개해보자. 3.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독서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4. 이 개념이 쓰이는 실제 사례나 상황을 말해 볼 수 있을까? 5.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고, 반대되는 사례나 예시는 없을까? 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떠올렸나요? 팀의 아이디어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평가요소	문제
인성	1. 조별 과제나 팀별 활동에서 협업해서 이룬 성과, 본인의 역할은? 2. 미인정 지각이 수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3. 최근 맡았던 일 중 끝까지 책임지고 해낸 경험이 있나요? 4. 팀 내 의견 충돌(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5. 주변에서 이타심을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경험이 있다면? 6.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영상면접 사전질문]

평가요소	문제
인성	다음 글을 읽고, ‘종이컵’을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지 말해 보시오. 현대 미술관 바닥에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종이컵은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놓아둔 것인데, 이를 본 관람객은 종이컵을 보면서 심오한 의미를 찾으려 했고, 어떤 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관람객들이 이 종이컵을 ‘예술품’으로 대한 것이다.
학업적성 (한국어 능력)	본인이 지원한 학과(전공)에서 학업을 쌓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 출제 및 검토 개선, 출제 후 점검 강화

대학별 고사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낮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앞으로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 내에서 준비 가능한 대학별 고사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이다.

○ **제시문 교과서 내 출제 강화**

- 논술고사 출제위원에 대한 검토위원(고교 교사)의 모의고사 및 본고사 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교육 지속 시행(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제위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교육)
- 202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는 고교 교과서 지문 활용 빈도를 높일 계획이다.

○ **검토위원(고교 교사) 참여 범위 확대 및 지역 안배 강화**

- 논술고사 자문교사단도 과목별로 복수의 고교 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대학별고사(논술고사) 교사자문단을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전국 단위에서 위촉하고, 일반고 교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출제 운영 방식의 개선**

- 고교 교육과정 내 문항 출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고차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심화형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목별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에만 다루는 내용이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 매년 출제 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 배운 교과서를 사전 구비하여 모의논술고사 출제 단계부터 출제위원들이 활용하고, 본 고사 출제 시 활용토록 비치한다.

- 출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선행학습영향평가 매뉴얼 양식」을 출제위원에게 제공하여 출제근거와 문항정보 등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토록 사전에 안내할 것이다.

○ **선행학습 자체평가 횟수 및 시기 조정**

-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사 후 채점 전 선행학습 자체 중간평가를 개최할 것이다.
- 최종 선행학습영향평가회의 시기를 수시 합격자 최초 등록일 이전 시기로 조정하여 사후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2.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가.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입학 반영 계획

○ 2026학년도 논술고사 모집인원을 474명을 2027학년도 471명으로 축소, 지난 10년간 논술고사 모집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지난 10년간 논술고사 모집인원 변화>

입시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모집인원	820	770	714	684	501	487	480	477	474	471

○ 정원외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선다형고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5명을 선발함.

○ 2026학년도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필답고사 영어를 폐지함.

나.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 계획

○ **논술고사 출제 계획**

- 202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논술고사는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 의·약학계 4개 계열로 나뉘어 출제된다.
- 논술고사 문제는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 제시형 문제이다. 논술고사 문제와 질문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할 계획이다.
- 인문·체육계 논술고사는 통합교과형 논술로 수험생의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

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 특정 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고력, 텍스트 해석 능력 및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 및 문제해결 과정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사회계 논술고사는 인문·체육계 논술과 마찬가지로 통합교과형 논술로 출제하며, 특히 특정한 현상을 보여주는 도표나 그래프, 통계자료 등이 제시문에 포함될 수 있다.
- 자연계 논술고사는 수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함.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 과목인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출제 범위로 한다.
- 의・약학계 논술고사는 수학과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의・약학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가 한 과목을 선택(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범위 안에서 출제하되 과학Ⅱ과목 출제를 최소화)한다.
- 논술고사 작성 분량, 출제문항 등 세부사항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특별전형 선다형고사 출제 계획

- 재외국민특별전형 해외근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필답고사를 시행한다.
- 인문,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객관식 선다형 시험을 시행한다.
-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국어는 국어, 독서, 문학(고전문학 제외), 수학은 수학, 수학Ⅰ, 수학Ⅱ에서 출제한다.
-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는다.
- 세부사항은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문항 분석 결과 요약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체육계열	1~2	1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	문항카드1
				2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2
		사회계열	1~2	1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경제,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	문항카드3
				2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	문항카드4
				3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수학, 수학Ⅱ,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	문항카드5
		자연계열	1~3	1~2	미적분	○	문항카드6
				1~2	확률과 통계, 수학	○	문항카드7
				1~2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	문항카드8
		의·약학계열	1~2	1	수학Ⅰ, 기하	○	문항카드9
				2	수학Ⅱ, 확률과 통계	○	문항카드10
			3~4	1	물리학Ⅰ, 물리학Ⅱ	○	문항카드11
				2	물리학Ⅰ, 물리학Ⅱ	○	문항카드12
				1	화학Ⅰ, 화학Ⅱ	○	문항카드13
				2	화학Ⅱ	○	문항카드14
				1	생명과학Ⅱ	○	문항카드15
				2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	문항카드16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문·예술·체육계열	1~50	-	국어, 문학(고전문학 제외), 독서	○	문항카드17
		자연계열	1~40	-	수학, 수학Ⅰ, 수학Ⅱ (※ 27번 문항은 출제 오류로 제외)	○	문항카드18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Ⅰ)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주변과 중심, 혼종, 견고한 관념, 정체와 부동, 변화와 발전, 디아스포라, 창조, 안주, 다수자와 소수자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모화는 소복 단장에 쾌자까지 두르고 온갖 몸짓, 갖은 교태를 다 부려가며 손을 비비다, 절을 하다, 덩싯거리며 춤을 추다 하고 있다. 부뚜막 위에는 깨끗한 접시불(들기름불)이 켜져 있고, 그 아래 차려진 소반 위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 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금 막 그 마지막 불꽃이 나불거리고 난 새빨간 불에서 파란 연기 한 오리가 오르는 『신약전서』의 두꺼운 표지는 한 머리 이미 파리한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화는 무엇에 도전이나 하는 것처럼 입가에 야릇한 냉소까지 띠며, 소반에 얹힌 접시의 소금을 집어 인제 연기마저 사라진 새까만 재 위에 뿌렸다.

"서역, 십만 리 예수귀신이 돌아간다
당산에 가 노자 얻고 관묘에 가 신발 신고
두 귀에 방울 달고 방울소리 발맞추어
재 넘고 개 건너 잘도 간다
인제 가면 언제 볼꼬, 발이 아파 못 오겠다
춘삼월에 다시 오랴, 배가 고파 못 오겠다……."

모화의 음성은 마주(魔酒) 같은 향기를 풍기며 온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 보석 같은 두 눈의 교태와 쾌잣자락과 함께 나부끼는 손짓은 이제 차마 더 엿볼 수 없게 욱이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욱이는 가위눌린 사람처럼 간신히 긴 숨을 내쉬며 뛰어 일어났다. 다음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뛰어나온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집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냉수 그릇을 집어들기 전에 모화의 손에는 식칼이 번득이고 있었고, 모화는 욱이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며 조용히 춤을 추는 것이었다.

"엇쇠, 귀신아 물러서라
너 이제 보아하니 서역 삼만 리 굶주리던 잡귀신하

여기는 영주 비루봉 상상봉헤
깎아질린 돌벼랑헤, 쉰 길 청수헤, 엄나무 발에
너희 올 곳이 아니다
바른손헤 칼을 들고 왼손헤 불을 들고
엇쇠, 서역 잡귀신하, 썩 물러가라."

이때, 모화는 분명히 식칼로 욱이의 면상을 겨누어 치려 하였다. 순간, 욱이는 모화의 칼날을 왼쪽 귓전에 느끼며 그의 겨드랑이 밑을 돌아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들어 모화의 낯에다 그릇째 끼얹었다. 이 서슬에 접시의 불이 기울어져 봉창에 붙었다. 욱이는 봉창에서 방 안으로 붙어 들어가는 불길을 잡으려고 부뚜막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물그릇을 뒤집어쓰고 분노에 타는 모화는 욱이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며 부뚜막으로 뛰어올랐다. 봉창에서 방 안으로 붙어들어가는 불길을 덮쳐 끄는 순간 뒷등어리가 찌르르하여 휙 몸을 돌이키려 할 때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은 허옇게 이를 악물고 웃음 웃는 모화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

[나]

"혼종적(hybrid) 존재는 근원적으로 주변인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지. 무척 재미있는 질문인데, 주변과 중심을 너무 양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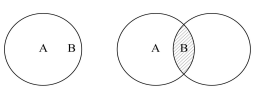


그림 왼쪽을 보렴. A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B는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그런데 A가 중심이고 B가 주변이라는 것은 이 작은 동그라미 속 세상에서만 그런 거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림 오른쪽을 보렴. 이 확장된 세계에서는 오히려 B가 중심에 가깝지 않니? 이렇게 하나의 세계만 놓고 보았을 때 주변 혹은 변방에 위치했던 사람도 두 세계가 중첩된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단다.

주변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리학적인 비유를 들자면, 도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 하나는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홍콩과 같은 경계 지역(edge place)으로서 이질적인 사람, 문화, 교역의 연결점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모스크바, 바그다드와 같은 중심(center)으로서 거대한 제국이나 관료제의 수도, 혹은 종교의 성지 역할을 하는 도시지. 경계 지역의 문화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이고 혼종적이며 외부로 쉴새 없이 뻗어나가는 특성을 지니는 데 반해, 중심 문화는 정체와 부동의 특성을 지니지. 그렇다면 혼종성(hybridity)은 부동의 중심이기보다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 그 프론티어에 위치한다고 할까?

이것이 내가 변방이 창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란다. 소위 중심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변방에서는 의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피카소,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처럼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모두 태어난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졌음을 밝혀내었단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합되는 접점의 긴장이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협동 연구가 종종 혁신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도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섞일 때 창조적 통찰력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지.

[다]

대문자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본래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상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문자 보통명사 디아스포라(diaspora)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착륙 이후 수백만, 일설에 의하면 2,000만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신대륙으로 끌려갔다. 그들과 그 자손을 블랙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19세기 이후부터 많은 중국인들이 쿨리(coolie)라는 모멸에 찬 이름의 하층 노동자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들이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다. 이전에 아메리카 서해안을 여행하던 중에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향하는 길에 차이니즈 캠프라는 마을을 지나친 적이 있다. 대륙횡단철도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숙영지였던 곳이다.

나는 근대의 노예 무역, 식민 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조선 사람들 역시 과거 한 세기 동안 식민 지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군사정권에 의한 정치적 억압 등으로 인해 상당수 사람들이 뿌리의 땅인 한반도로부터 세계 각지로 이산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총수는 현재 대략 600만 명이라고 한다. 재일조선인은 그 일부이며 나는 그 중 한 사람이다.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 분할과 식민지 쟁탈전 이후, 전 세계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태어나 자란 땅을 뒤로했을까. 더욱이 그들 디아스포라들은 이주한 땅에서도 언제나 이방인이며 소수자다. 다수자는 대부분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 온 토지·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견고한 관념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안에 있는 한 다수자들에게는 소수자의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정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도 그것을 보는 편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달리 보인다. 다수자들이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던 사물이나 관념이 실제로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소수자의 눈에는 보인다. 나는 런던, 잘츠부르크, 카셀, 광주 등을 여행하는 동안 각 장소에서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예술 작품을 접했다. 한 사람의 디아스포라로서 나는 그들을 테마로 현대의 디아스포라적 삶의 유래와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라는 존재의 모습이 근대 특유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한다면, 이 시도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근대'를 다시 보는 것, 그리고 '근대 이후'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논제 Ⅰ]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 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 『독서』의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영역, 『화법과 작문』의 '작문의 원리와 실제' 영역, 『언어와 매체』의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 『문학』의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 『통합사회』의 '사회 변화와 공존' 영역, 『사회문화』의 '문화와 일상생활'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논제 I]의 [가],[나],[다] 제시문들은 이질적인 두 종교 또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의 한 장면, 혼종적 존재가 지닌 긍정적 면모를 통해 변방(주변)이 지닌 창조적 가능성을 강조한 산문, 한 사회 내에서 소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의 의미와 창조성에 주목한 산문 등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교섭이 일상이 된 오늘날 이질적인 문화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탐색·고찰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이 초래할 갈등과 창조성의 양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시문 [가]는 무속과 기독교라는 이질적인 종교(또는 세계관)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을 보여주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제시문 [나]는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중심으로 단일한 사회에서 변방에 머물러 있던 곳이 두 문화의 접촉과 교섭 상황에서는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행해진 세계 분할과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 탄생한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존재의 소수자적 특성이 '근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근대 이후' 인간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두 문화의 접촉과 교섭이 극단적인 충돌로 귀결될 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제시문 [나]는 둘 이상의 문화가 접촉할 때, 기존 문화에서 변방으로 치부되던 주변적 세계가 혼종적 존재, 혼종성의 공간으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제시문을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제시문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여러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시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 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논제 I 제시문 [가] [나] [다]
성취기준 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성취기준 4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논제 I 제시문 [가] [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기준 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성취기준 4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성취기준 5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논제 I 제시문 [나] [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하며 읽는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논제 I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논제 Ⅰ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제시문 [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 짓는 늙은이 학 무녀도 역마 백치 아다다』	김동리 외	창비	2005	73~75	제시문 [가]	×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홍성욱	안그라픽스	2003	22~23	제시문 [나]	○
『디아스포라 기행』	서경식	돌베개	2006	13~15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논제 Ⅰ]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한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문화 교류와 접촉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김동리의 소설을 발췌한 것으로서, 기독교와 무속이라는 두 문화(세계관)가 융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귀결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점은 아들에게 씌인 서양 귀신을 쫓기 위해 욱이의 성경책인 『신약전서』를 놓고 굿을 하던 무녀 모화가 아들 욱이를 칼로 찌르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장면은 모화와 그녀의 아들 욱이가 각각 대표하는 두 문화, 즉 무속과 기독교가 결코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종교의 충돌과 대립은 이질적인 문화의 교섭과 조화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다]의 태도와 반대된다.

제시문 [나]는 홍성욱의 글 일부를 발췌 윤문한 것으로서, 이 글은 단일 문화 내에서 변방으로 인식되던 주변 문화가 다른 문화와의 교섭이나 접촉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는 변화와 발전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새로운 현상을 경계로서의 도시와 중심으로서의 도시를 대비시켜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등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태어난 곳과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활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합되는 접점의 긴장이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서경식의 글 일부를 발췌 윤문한 것으로서, 근대 특유의 역사적 소산인 디아스포라의 시선이 '근대'를 다시 보고 '근대 이후'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적절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글이다. 소문자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로 탄생한 존재로서 다양한 외부적 이유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두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이방인이자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저자는 이러한 존재의 이중적 조건이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지만 디아스포라는 두 문화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존재의 시선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1. 점수 배정** 1) 만점: 100점 2)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3)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100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5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5점
1,000자 이상: 감점 1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 [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20점 가점
3)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4) 제시문 [가], [나], [다] 모두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점을 발견했으면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음. 단, [다]의 관점에서 [가]를 부정적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한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다]는 디아스포라의 유래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고향으로부터 이주를 강요당한 디아스포라들은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이방인이자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주변적 시선은 다수자들의 고정되고 안정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다수자들의 견고한 관념이 디아스포라의 유동적 시선에는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시선은 주변을 타자화함으로서 중심을 구축한 근대 사회를 성찰하고 '근대 이후'의 삶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는 전통문화(무속)와 서구문화(기독교)가 갈등·충돌하는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특히, 인용문에서는 외래문화('예수귀신')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모화'의 배타적 태도가 전면화되어 있다. 이는 [다]의 디아스포라적 시선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다수자들의 고정된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견고한 관념을 강요하는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의 디아스포라적 관점

에서 볼 때, [가]에 드러난 장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나]는 혼종적 정체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하나의 세계에서는 주변에 위치했던 존재도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혼종적 존재들은 기존의 중심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창조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주변에서 중심을 상대화하는 [다]의 디아스포라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835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Ⅰ]은 제시문 [다]에서 문화 교류와 접촉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하고, [다]의 시각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이 초래할 갈등과 창조성의 양면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논제 Ⅰ]의 문제와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국어' [10국-02-01], '문학' [12문학02-02], [12문학02-03], '독서' [12독서01-02], '화법과 작문' [12화작03-05], '언어와매체' [12언매03-02], 그 밖에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통합사회' [10통사07-02], [10통사07-04], '사회·문화' [12사문03-01]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담화·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며, 글을 읽을 때 글에 드러난 관점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역량을 함양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제시문 [가]~[다]에 담겨 있는 주제나 관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점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고,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으로 처리하며,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각이 글자 수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게 정답의 분량에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채점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논제 Ⅰ]은 제시문 [다]에서 디아스포라적 시각을 정확히 파

악하고,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가], [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가], [나], [다] 모두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점을 발견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사회 변화와 문화'라는 주제와 관련되고, 고등학교 '독서', '화법과 작품' 과목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형식의 독서 자료를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정해진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한 후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답안은 제시문 [다]의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볼 때, 이질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견고한 관념을 강요하는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는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혼종적 정체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답안에는 견고한 관념, 주변과 중심, 혼종적 존재, 정체와 부동, 다수자와 소수자 같은 핵심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회과 교과의 통합사회나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개념들이며, 국어 교과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다. 혹시 학생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맥락 안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을 예시 답안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개의 제시문을 읽고 800자 정도의 글을 쓰는 문제로, 제시문 [나]의 경우 글이 짧아 읽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 제시문 [가]도 지문 안에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와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평소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801자~900자 분량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 시간과 분량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논제 Ⅰ]은 지구촌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교섭이 일상이 된 오늘날 이질적인 문화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탐색하고 고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및 사회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다수자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중심부와 주변부로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 뒤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요약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강화된 학생의 교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Ⅱ)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자본주의, 욕망, 경쟁, 노동, 위안, 유대, 관계, 시민적 공공성
예상 소요 시간	70분	

2. 문항 및 자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라]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붐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쯧쯧쯧쯧 쯧쯧쯧쯧,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쯧쯧쯧쯧 쯧쯧쯧쯧,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마]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한낱 소설가일 뿐이

다. 그러므로 상식의 정의에 따르겠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동력으로 삼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확대재생산 속에 괴물처럼 팽창하고 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단적으로 더 큰 냉장고와 더 빠른 자동차와 기능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새 휴대전화를 갖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경쟁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 자본주의의 오래된 적이었던 사회주의는 새것을 갖기보다 낡은 것이라도 다 같이 나눠 갖자는 주의였다. 그런데 자폐가족은 심상하게* 묻는다.

왜 가져야 돼?

더 큰 냉장고 없이도 더 빠른 자동차 없이도 새 휴대전화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다. 자폐가족은 자본주의의 동력 그 자체인 욕망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휘발유 없이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다. 욕망을 이성으로 통제하여 평등하게 함께 누리자는 게 사회주의다. 자폐가족은 보다 근원적으로 욕망 그 자체가 부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원을 오프시킨다. 자본주의에 이보다 강력한 적은 없다. 부디 이 욕망 없는 자들에게 번식의 능력을!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자각이 없으며 자본주의의 적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삶에는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부재하므로. 아, 단 하나의 싶다,가 존재하긴 한다. 이대로 가만있고 싶다는 것. 욕망이 부재하므로 자폐가족은 실질적 위협이 될 수는 없다.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그건 모르겠다. 다만 무한경쟁에 피로를 느낄 때, 내 자신의 욕망에 치일 때, 나는 자폐가족을 생각한다. 인간은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와 같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때로는 위안이 된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도 자식놈이 스펙 운운하며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떼를 쓰거나, 후배에게 승진이 밀렸거나, 마누라 친구의 잘난 남편과 비교당했거나, 이러저러하여 사는 게 엿 같을 때, 자폐가족을 떠올려주기 바란다. 자본주의의 도도한 물결에 휩쓸려 기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폐가족의 심상한 삶이 다르면 또 얼마나 다를 것인지, 생각하다 보면 묘한 안도감과 위로가 밀려올 것이다. 작은 위로라도 얻거든, 퇴근길의 전철 안, 전쟁 난민 같은 몰골로 골동품 같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파묻은 채, 낯선 이들이 두려워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저 자폐가족의 일원들에게 뜨악한 시선도 주지 말고 응원의 시선도 주지 말고, 그들이 그저 그렇게 희미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무심히 대해주길 바란다. 그들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우리 불운한 인류의 쉼표,일 터이니, 그 쉼표들이 알아서 쉴 수 있도록 말이다.

---

* 심상하다: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평범하다.

[바]

1845년 3월 말경,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 들고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5년 이상을 오직 육신의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1년 중 약 6주일간만 일하고도 필요한 모든 생활 비용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의 대부분과 겨울 전부를 나는 순전히 공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한때 나는 학교 경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용이 수입과 맞먹거나 초과하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교육자다운 사고와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이다. 또한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므로 그것부터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

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값비싼 양탄자나 다른 호화 가구들, 맛있는 요리 또는 그리스식이나 고딕 양식의 주택 등을 살 돈을 마련하는 데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하등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또 일단 얻은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나 실컷 그런 것들을 좇으라 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인다. 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쁜 길에 빠지니까 일에 몰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현재 누리고 있는 여가보다도 더 많은 여가가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현재의 일을 곱절로 늘리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자유의 증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날품팔이가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직업은 한 사람 먹고사는 데 1년에 30일 내지 40일만 일하면 된다. 게다가 그의 일과는 해가 지는 시점에 끝나며, 그 후의 시간에는 자기 노동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이 궁리 저 궁리를 해야 하는 그의 고용주는 1년 내내 숨 돌릴 틈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나는 신념과 경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태여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밥벌이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는 실험에 의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기 꿈의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변과 내부에 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낡은 법칙이 확대됨으로써 그는 낡은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반면 그가 자신의 생활을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의 이치는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이제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빈곤도 빈곤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된다.

[사]

초고속 근대화 과정을 거친 우리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촌 위험의 문제를 풀어야 함과 동시에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난 삶의 질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돕고, 재난 시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적 훈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간 수동적으로 살아온,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간의 삶을 근원적으로 성찰해 보자는 말은 매우 낯선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소외된 삶, 그리고 이에 따라 더는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마을 살이와 관련해 내가 동네에 사는 주민이 맞는지, 동네를 다니면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동네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단골 가게가 몇 개나 있는지, 급할 때 에스오에스를 칠 이웃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본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있는지, 동네 어둑한 곳을 한 평짜리 공원으로라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어지는지, 마을버스를 좀 더 작은 소형 버스로 대체하면 마을이 좀 더 아늑하고 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지, 마을 방송국을 차려볼 생각을 해 봤는지, 돈 없이도 며칠은 마을에서 그런대로 먹고살 만한 관계

를 맺고 있는지 가늠해 본다. 이런 관계적인 삶은 갑자기 정전이나 수해와 같은 재난 사고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공포에 빠지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는 관계다. 일상에서 관계가 살아 있는 삶을 살아 냄으로써 현대의 파편화되고 적대적인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건대 동네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단골 장소에 머무르며, 느슨하나 지속적인 환대의 관계를 맺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지역 자체가 계급으로 나뉘어 버린 시점에 무슨 계급을 고착시킬 논의냐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인간적 삶의 가장 근본은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지금은 바로 그 사회가 실종되고 있는 위기이기에 관계의 회복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웃과 인사하는 것, 그리고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정을 붙이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사회를 회복하고 사회적 감각을 회복하는 시작점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나이 들어 병들고 죽어 가는 인간의 삶은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상부상조하는 삶에서 시작하고, 이런 이웃 간 느슨한 유대가 바로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해 내는 바탕이다.

앞으로 올 난세를 잘 살아 내고 싶다면 슬슬 동네를 산책하러 나가 보기를 권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 내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고 소소한 관계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많은 고민은 익숙한 길을 걸어 다니는 가운데서 풀리는 것이다. 걷는 것이 즐거운 마을, 사람과 삶, 그리고 곡선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본다.

[논제 Ⅱ]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 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 『독서』의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영역, 『화법과 작문』의 '작문의 원리와 실제' 영역, 『언어와 매체』의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 『문학』의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 『통합사회』의 '삶의 이해와 환경' 영역, 『윤리와 사상』의 '사회사상'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논제 II]의 [라]~[사] 제시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국숫집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장면, 무한한 욕망을 동력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자폐가족'에 관한 이야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숲속 호숫가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초래한 소외된 삶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관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 등 대조되고 상반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현대 사회가 초래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함으로써 현대 사회와 삶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시문 [라]는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통해 유대, 연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환기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평상'이라는 수평적 공간에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주변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연대가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제시문 [마]는 '자폐가족'의 사례를 통해 무한한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가능성을 찾는다. 이 글에서 '자폐가족'은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것조차 소유하기를 거부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이대로 가만있고 싶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변화와 속도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제시문 [바]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와 풍족하진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간 한 개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는 숲속의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바람직한 삶은 소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때문에 필요 이상의 노동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는 현대의 파편화되고 소외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에서 관계가 살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화자는 '관계' 중심의 삶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제시문을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제시문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여러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시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 rowspan="6">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국어</td></tr>
<tr><td colspan="2">과목명: 국어</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td><td rowspan="4">논제 II 제시문 [라] [마] [바] [사]</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td></tr>
<tr><td>성취기준 3</td><td>[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td></tr>
<tr><td>성취기준 4</td><td>[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td></tr>
<tr><td>성취</td><td>[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td><td>제시문</td></tr>
</table>

기준 5	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라] [마] [바]
성취 기준 6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논 제 II 제시문 [사]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논 제 II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논 제 II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논 제 II 제시문 [라] [마] [바]
성취 기준 2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성취 기준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2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 기준 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성취 기준 4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성취 기준 5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마] [바]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사]
성취 기준 2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마] [사]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25	258	제시문 [라]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자본주의의 적』	정지아	창비	2021	42~44	제시문 [마]	×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은행나무	2024	68, 108, 477~478	제시문 [바]	○
『동네 걷기 동네 계획』	박소현 외	공간서가	2015	218~220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논제 II]는 네 개의 제시문을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취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 입장을 얼마나 조리 있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라],[사]를 한 부류로 묶고, 타인, 사회, 공동체 등과 거리를 둔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마],[바]를 다른 한 부류로 묶어 상호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논제이다.

[라]는 문태준의 시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유대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관계가 바람직한 삶의 방식임을 환기한 작품이다. 국숫집 평상에서 우연히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와 위안을 경험하는 장면을 통해 화자는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임을 주장한다.

[마]는 정지아의 소설을 발췌한 것으로서, 한 '자폐가족'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본주의와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자폐가족'은 현대적 삶의 필수품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조차 욕망하지 않는다. 소설의 화자는 자신이 무한경쟁으로 인해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욕망에 치인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폐가족'을 떠올리는데, 이는 '욕망' 자체를 거부하는 그 가족의 삶의 방식이 화자에게 자본주의를 벗어난 삶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무한한 욕망이 현대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욕망 없는 '자폐가족'의 삶은 자본주의(사회)와 단절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글을 발췌 윤문한 것으로서, 얽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욕망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로우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욕망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숲으로 걸어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과 최소한의 소유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으며,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소유와 소비를 중심으로 영위되는 현대적 삶의 문제점을 성찰하였다. 이 글은 세계와 단절된 숲속의 삶에서 경험한 자유의 의미를 보여준다.

[사]는 조한혜정의 글을 발췌 윤문한 것으로서, 현대의 파편화되고 소외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살아 있는 일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삶을 파편화시키고 적대적인 관계로 재편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편화를 강제하는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대립되는 삶, 즉 동네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거나 단골 장소에 머무르는 것, 느슨하거나 지속적인 환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더불어 상부상조하는 삶'을 통해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의미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Ⅱ	**1. 점수 배정** 1) 만점: 100점 2)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3)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1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5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5점 1,200자 이상: 감점 1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00

	1) 제시문을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라]와 [사], 타인, 사회, 공동체 등과 거리를 둔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마]와 [바]로 분류했으면 10점 가점 2) 제시문을 [라]와 [사] 또는 [마]와 [바]의 입장으로 묶어 그 핵심 내용을 제대로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3) 제시문을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라]와 [사]의 입장에서 타인, 사회, 공동체 등과 거리를 둔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마]와 [바]의 시각을 비판하거나, 또는 타인, 사회, 공동체 등과 거리를 둔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마]와 [바]의 입장에서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라]와 [사]의 시각을 비판할 때 논거에 따라 비판했으면 10점 가점 4)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라], [사]의 입장에서 [마], [바]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 글이다. 그중 [라], [사]는 사람 간의 관계와 유대가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는 오늘날 지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평상에 함께 모여 앉아 각자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의 숨 가쁜 변화 속에서 파탄이 난 삶의 질을 회복하고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의 작고 소소한 관계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 형성(마을 살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마], [바]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는 세속적 욕망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자폐가족'을 통해, 그들의 심상한 삶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우리에게 안도감과 위로를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라], [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개인 차원의 대응은 효과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세속적 욕망 추구를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마]의 입장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마]의 저자도 인정하듯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쉼표'에 불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가 제시하는 바,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동이 아닌 자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을 영위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삶 또한 [라], [사]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년에 30일 내지 40일만 일하면서 먹고살 수 있는 삶은 [바]의 저자에게는 가능할지 모르나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가 제시하고 있는 예기

치 못한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유대를 통한 공동체적 삶이 더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1,018자)

[마], [바]의 입장에서 [라], [사]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 글이다. 그중 [마], [바]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는 세속적 욕망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자폐가족'을 통해, 그들의 심상한 삶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우리에게 안도감과 위로를 준다고 말한다. [바] 또한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동이 아닌 자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을 영위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려 하는 화자의 모습을 서술한다.

반면 [라], [사]는 사람 간의 관계와 유대가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는 오늘날 지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평상에 함께 모여 앉아 각자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보면, [라]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적 삶은 일시적이어서 그들은 다시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 속으로 돌아가 아픔을 감내하는 삶을 다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유대와 위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의 숨 가쁜 변화 속에서 파탄이 난 삶의 질을 회복하고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의 작고 소소한 관계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 형성(마을 살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이것이 사회 문제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공동체의 복원과 관계 회복만으로 오늘날의 무한 경쟁과 끝없는 욕망 추구에서 기인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이는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032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Ⅱ]는 제시문 [라]~[사]의 입장을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한 후 선택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하고, 한쪽 입장을 취해서 반대 입장을 조리 있게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제 Ⅱ]의 문제와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국어' [10국-02-01], [10국03-01], '문학' [12문학02-01], [12문학02-02], [12문학02-03], '독서' [12독서01-02], [12독서02-03], [12독서03-02], '화법과 작문' [12화작03-05], '언어와매체' [12언매03-02], 그 밖에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통합사회' [10통사01-02],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윤리와사상' [12윤사04-03], [12윤사04-05]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요약하고, 특정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관점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적 역량, 통합적 사고력 등의 역량과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제시문 [라]~[사]에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 '관계와 유대' 중심의 관점과 '개인의 자유' 중심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점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고,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으로 처리하며,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각이 글자 수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게 정답의 분량에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채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논제 Ⅱ]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제시문 [라]와 [사], 타인이나 공동체와 거리를 둔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제시문 [마]와 [바]로 분류하고, 제시문 [라]와 [사] 또는 제시문 [마]와 [바]의 입장으로 묶어 그 핵심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며, 한쪽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타당한 논거에 따라 비판했으면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윤리와사상' 과목에서 다루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개인선과 공동선'이라는 주제와 관련되고, 고등학교 '독서', '화법과 작품' 과목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형식의 독서 자료를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을 분류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개 문단으로 구성된 예시 답안은 제시문 [라], [사]의 관점에서 [마], [바]를 비판하는 경우와 [마], [바]의 관점에서 [라], [사]를 비판하는 경우로 제시되고 있다. 관계 회복, 공동체적 유대, 자본주의 욕망, 경쟁, 노동, 위로 등은 사회과 통합사회 과목, 도덕과 윤리와사상 과목에서 배우는 핵심 개념이며, 국어과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1,000자 정도의 글을 쓰는 문제로, 제시문 [라]~[사]의 내용은 욕망과 경

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쉽게 논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1,000자 분량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 시간과 분량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논제 Ⅱ]에서 요구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삶', '타인, 사회, 공동체 등과 거리를 둔 개인적 삶'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방식은 좋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논제로 보인다. 상호 텍스트성에 의거하여 맥락 속에서 주제 통합적인 읽기 역량과 과제 해결 역량을 발휘해야 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강화된 학생의 교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Ⅰ)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경제,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 국가의 소극적 역할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 자생적 질서, 개인의 권리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자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주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의료보장 역시 기본권이라는 근대적 신념과도 이어진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동시에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함께 선언한다. 이는 기본권에 근거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이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권리를 얻는 기회의 불균등함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혜택은 가급적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두 선언 모두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무시한다 해도,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기보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양한 좋은 결과를 약속하며 국가 역할을 넓히려 한 시도는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 나라의 역사만 봐도, 공정성을 지키는 법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입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실용적인 정치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이상주의자다. 그는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연의 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

국가가 개입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에서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신을 연상했던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조직질서처럼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위한 질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질서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 경제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고, 그것은 지배-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하여 존재하며,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고귀한 행동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평등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

적 약자도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즉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의 단순한 분배를 넘어 사회적 연대성의 재건도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이며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나 사기가 아닌 이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세금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며 인간을 누군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가령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는 권장할 만하며 이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600자 이하: 배점 25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1]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이에 맞게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요구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도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 [바]</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마]</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td><td>제시문 [바]</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마]</td></tr>
</table>
2. 교과명: 사회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td><td>제시문 [가]</td></tr>
<tr><td>성취기준 2</td><td>[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td><td>제시문 [라]</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제시문 [라]
성취기준 2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마]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 시 문 [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성취기준 3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논제 Ⅰ
성취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기준 4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논제 Ⅰ
성취기준 5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3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성취 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논제 Ⅰ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한철우	비상	2024	271-273	제시문 (다)	×
통합사회	이진석	지학사	2023	142-146	제시문 (마)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씨마스	2023	178-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정상봉	교학사	2025	179-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류지한	비상	2025	169-171	제시문 (마), (바)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굴항아리	2014	571-572	제시문 (가)	○
국가 의무의 한계	허버트 스펜서	이른비	2021	133-134	제시문 (나)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문학과지성사	1993	30	제시문 (다)	×
하이에크 이야기	민경국	자유기업센터	1997	4-5	제시문 (라)	○
로버트 노직 : 자유주의 정치철학	조나산 울프	철학과현실사	2006	143-193	제시문 (바)	○

5. 문항 해설

[논제 I]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복지와 평등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적극적 국가 역할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소극적 국가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인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개인의 사회적 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분배와 복지 등을 통해 국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얻는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인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분배와 복지 등을 통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에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우선하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얻는다는 입장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100

처리.

<논제 Ⅰ>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Ⅰ>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가]~[바]는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 관점과 소극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나], [다]. [라], [바]는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다]. [라],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가]~[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글이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나], [다], [라], [바]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하고 후자는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가]는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을 부여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회적 권리를 위협하는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다. [마]는 국가는 공공재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평등을 구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는 사회는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국가나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다. [다]는 '애국가' 앞에서 위축된 개인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개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 자생적 질서를 통해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바]는 개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세금이나 정책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힌다.[586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I]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이에 맞게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는 제시문을 독해하여 핵심 개념 및 주제를 파악하고 두 관점을 이해하고 자료를 분류하여 요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찾고 글의 맥락 속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 즉, 핵심 개념 및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 같은 주제의 내용을 분류하는 능력, 글의 맥락 속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하는 능력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논제 I]의 문제와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은 '윤리와 사상' 과목의 사회사상 영역에서 '2. 국가 : 목적인가? 수단인가?, '생활과 윤리' 과목의 사회와 윤리 영역에서 '2. 사회 정의와 윤리 :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엇인가?, '통합사회' 과목의 인간과 공동체 영역의 (4)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인권 보장', (5) 시장경제의 금융에서 '시장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 과목의 (2) 시장과 경제활동에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시장 실패', '정부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성취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윤사04-02], [12윤사04-03], [12생윤03-02], [12생윤03-03], [10통사04-01], [10통사05-01], [12경제02-01], [12경제02-04]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제시문 속에 등장하는 문학 작품은 '문학' 과목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에서 '작품 감상의 맥락(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 '작품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 기준은 [12문학02-02], [12문학02-03], [12문학02-04]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가]~[바]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논제 I]의 채점 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감점으로 처리하고,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고지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등의 유

연성을 갖고 있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논제 Ⅰ]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복지와 평등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적극적 국가 역할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소극적 국가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나], [다]. [라], [바]는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각 제시문들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입장별로 10점 가점,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답안 작성 시간 30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바]는 장문의 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긴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편하게 독해할 수 있다. [논제 Ⅰ]이 서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논제 Ⅰ]에서 제시문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여 분류한 후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30분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제 Ⅰ]에서 주어진 501자 이상에서 600자 이하가 수험생들이 3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Ⅱ)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 국가의 소극적 역할, 사회 권리의 평등한 보장, 자생적 질서, 개인의 권리 사회복지제도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자료

[사]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중단과 상실을 대비하는 국가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모든 주요 원인은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의 적용 대상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환자, 노인 등 수많은 사람이 사회조사의 기준에 따른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급여의 총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충적 보험이 양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이전에 제공되었던 보험급여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 사회조사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실업급여가 사회조사의 기준에 완전히 못 미치는 것은 아니었던 반면, 상병 및 장애급여와 노령연금은 그 기준을 한참 밑돌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 궁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제외된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급여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아]

한 생원네는 한 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으로 장만한 열서 마지기와 일곱 마지기의 두 자리 논이 있었다. 선대의 유업도 아니요, 공문서(空文書: 무등기) 땅을 거저 주은 것도 아니요, 뼈젓이 값을 내고 산 것이었다. 하되 그 돈은 체계나 돈놀이(고리대금업)로 모은 돈이 아니요, 품삯 받아 푼푼이 모으고 악의악식'하면서 모은 돈이었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었다.

그 피땀 어린 논 두 자리에서 열서 마지기를 한 생원네는 산 지 겨우 오 년 만에 고을 원(군수)에게 빼앗겨 버렸다.

(중략)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히 여길 때, 한 생원은,

"그깐 놈의 나라, 시언히 잘 망했지."

하였다. 한 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섬뻑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논 스무 마지기에서 열서 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일곱 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하릴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

*악의악식: 너절한 옷과 맛없는 음식　　*세토: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부치는 논밭
*도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

[자]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를란데르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그는 23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그사이 파업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과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 수당, 전 국민 무상 의료 보험,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무상 교육, 주택 수당법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으며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스웨덴은 국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동자 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에를란데르 총리는 주장했다.

[논제 Ⅱ]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700자 이하: 배점 40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 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Ⅱ]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에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 중 응시자가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세 개의 추가 지문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서 각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도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 [자]</td></tr>
<tr><td>성취 기준 2</td><td>[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마]</td></tr>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td><td>제시문 [바]</td></tr>
<tr><td>성취 기준 2</td><td>[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마]</td></tr>
</table>
2. 교과명: 사회</td></tr>
</table>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마]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사] [자]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 시 문 [다] [아]
성취 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성취 기준 3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논제 Ⅱ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 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	논제 Ⅱ

	4	다.	
	성취 기준 5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다] [아]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성취 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논제 Ⅱ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한철우	비상	2024	271-273	제시문 (다)	×
통합사회	이진석	지학사	2023	142-146	제시문 (마)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씨마스	2023	178-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정상봉	교학사	2025	179-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류지한	비상	2025	169-171	제시문 (마), (바)	○
사회·문화	김영순	교학사	2023	155-159	제시문 (사)	○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23	89-99	제시문 (아)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179	제시문 (자)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굴항아리	2014	571-572	제시문 (가)	○
국가 의무의 한계	허버트 스펜서	이른비	2021	133-134	제시문 (나)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문학과 지성사	1993	30	제시문 (다)	×
하이에크 이야기	민경국	자유기업센터	1997	4-5	제시문 (라)	○
로버트 노직 : 자유주의 정치철학	조나산 울프	철학과 현실사	2006	143-193	제시문 (바)	○
레디메이드인생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2004	7-36	제시문 (아)	○
베버리지 보고서	윌리엄 베버리지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2	26-27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논제 Ⅱ]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사],[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제시문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 부합한다. 제시문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제시문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부합한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Ⅱ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Ⅱ>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Ⅱ>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

- [나], [다], [라],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
-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617자]

(2)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658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Ⅱ]는 고등학교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충실히 근거하여 출제된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논제는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국가의 정당성과 역할, 시민의 지위와 공동체, 사회 정의와 분배의 문제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과목에서 제시하는 인권 보장과 헌법,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사회 복지와 불평등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에서 강조하는 독해 능력, 논지 분석 능력, 비판적·창의적 수용 태도,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통합적 성격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제 Ⅱ]는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교과의 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문항이다.

[논제 Ⅱ]의 중심 과제는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두 관점, 즉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 뒤 이를 근거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찬성과 반대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논제 Ⅰ]에서 이미 정리된 관점 구분을 전제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 [가]~[바]를 통해 두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한 뒤, [사], [아], [자]를 각각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제시문을 고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주제와 관점 아래에서 상호 연관 지어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고 과정과도 일치한다. 수험생은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도출하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시문을 근거로 삼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이 요구되며, 제시문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고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도덕적 가치 판단,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경제적 원리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논지를 구성해야 하므로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국어과뿐 아니라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핵심 역량에 해당한다.

제시문 [가]부터 [자]까지에 담긴 내용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 국가 개입의 한계와 그로 인한 부작용, 국가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와 모습, 자생적 질서와 시장의 기능, 공공재와 재분배를 통한 공정한 사회의 구현, 소유권 존중과 소극적 국가관, 사

회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 복지국가의 실제 사례 등은 모두 교과서나 교과서 수준의 교양 자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개념과 주제들이다. 특히 문학 제시문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윤리적·사회적 쟁점을 사고하도록 돕고 있으며, 사회과 제시문은 제도와 정책의 측면에서 국가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해하고 논제에 접근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점 기준 또한 교육과정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점 선택의 적절성,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 제시문 [사], [아], [자]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내용 평가가 이루어지며, 원고지 사용법이나 분량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기계적인 감점보다는 내용 중심의 유연한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비평적 글쓰기,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시사적 쟁점에 대한 관점 형성과 논증 능력의 평가 방향과도 일치한다. 또한 독창적인 문제 제기나 논리적 구성,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답안 작성 시간 40분과 분량 601자 이상 700자 이하 역시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논제 Ⅱ]는 제시문 독해, 관점 선택, 이유 제시, 세 제시문에 대한 평가라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요구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분량이 필요하며, 600자 미만일 경우 논지를 충분히 전개하기 어렵다. 반대로 700자를 초과할 경우 분량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서술로 논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된 분량은 수험생의 종합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교과에서 A4 수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량과 시간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논제 Ⅱ]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안에서 출제된 문제이며, 국가의 역할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도록 설계된 문항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 추론력, 비판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으며, 단순한 지식 재현을 넘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대화와 논증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교육적 의의가 있는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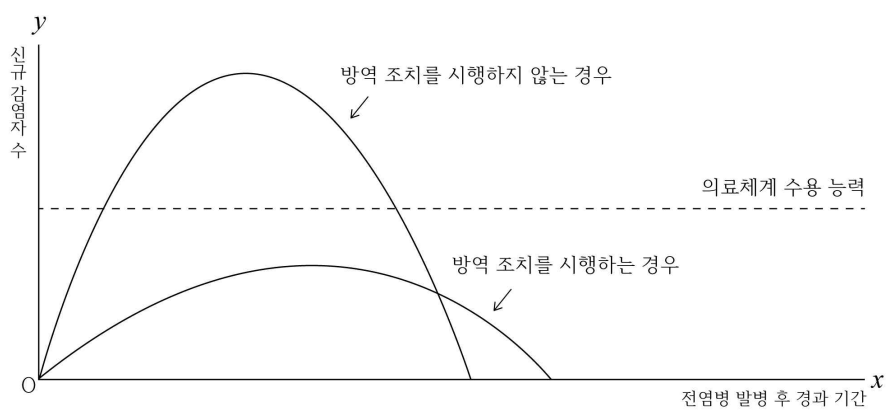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문항정보5]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Ⅲ)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수학, 수학Ⅱ, 문학,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 국가의 소극적 역할 기본권 제한, 정부의 방역 조치, 자생적 질서, 사회적 비용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논제 Ⅲ]



(1) 위에 제시된 그림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이 처음 발병($x = 0$)한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신규 감염자 수를 보여준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 및 통제 활동으로,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등에 제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 점선은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으로,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신규 감염자 수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신규 감염자 수가 이 수용 능력을 넘어서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이 소진되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위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 최초 발병 이후 경과 기간($x \geq 0$)과 신규 감염자 수($y \geq 0$)의 관계는 다음의 함수에 의해 표현된다.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begin{cases} 0 \leq x \leq 6 \text{이면}, y = -3x(x-6) \\ x > 6 \text{이면}, y = 0 \end{cases}$

②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begin{cases} 0 \leq x \leq 7 \text{이면}, y = -x(x-7) \\ x > 7 \text{이면}, y = 0 \end{cases}$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15라고 하자.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방역 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 기간의 두 배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방역 조치는 전염병 최초 발병 직후 시작되어 신규 감염자가 없어지면 중단된다.

(a)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와 그러한 감염자가 발생한 기간을 구하시오.

(b)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 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Ⅲ]은 제시된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것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수학 Ⅱ 교과서에 나오는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하여 수학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20-236[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도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 [바]</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 [마]</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td><td>제시문 [바]</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td><td>제시문 [마]</td></tr>
</table>
2. 교과명: 사회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td><td>제시문 [가]</td></tr>
<tr><td>성취기준 2</td><td>[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td><td>제시문 [라]</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논제 Ⅲ-(1)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마]

3. 교과명: 수학

과목명: 수학		관련
성취 기준 1	[10수학01-10]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논제 Ⅲ-(2)

과목명: 수학Ⅱ		관련
성취 기준 1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논제 Ⅲ-(2)
성취 기준 2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논제 Ⅲ-(2)

4.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성취 기준 3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논제 Ⅲ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논제 Ⅲ
성취 기준 5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논제 Ⅲ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성취 기준 6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논제 Ⅲ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한철우	비상	2024	271-273	제시문 (다)	×
통합사회	이진석	지학사	2023	142-146	제시문 (마)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씨마스	2023	178-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정상봉	교학사	2025	179-182	제시문 (마), (바)	○
윤리와 사상	류지한	비상	2025	169-171	제시문 (마), (바)	○
수학	김원경	비상	2023	61-62	논제 Ⅲ-(2)	○
수학Ⅱ	김원경	비상	2025	125-128	논제 Ⅲ-(2)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굴항아리	2014	571-572	제시문 (가)	○
국가 의무의 한계	허버트 스펜서	이른비	2021	133-134	제시문 (나)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문학과지성사	1993	30	제시문 (다)	×
하이에크 이야기	민경국	자유기업센터	1997	4-5	제시문 (라)	○
로버트 노직 : 자유주의 정치철학	조나산 울프	철학과현실사	2006	143-193	제시문 (바)	○

5. 문항 해설

[논제 Ⅲ]은 제시된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림에 나타난 사실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그림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감염자 수가 의료체계의 수용 한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각적

으로 보여준다. 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억제되어 감염자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그 결과 의료체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비는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 Ⅱ 교과서에 나오는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는 방역 조치가 의료체계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예를 들어 개인들의 자유와 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존재함을 전제한다. 문제의 조건을 종합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와 시행할 때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편이 사회적 비용을 더 낮추는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국가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제시문 [라]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 교과서의 개념들이 실제로 중요한 도구로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Ⅱ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1)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림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가점 5점. ② 그림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100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면 가점 10점. (2) ①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 수평선의 교점이 1과 5임을 풀고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임을 밝히면 가점 5점. ② 정적분을 통해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총 감염자 수 32를 구하면 가점 10점. ③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0에서 7까지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4임을 옳게 구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설명하면 가점 5점. ③ 제시문 [라]는 국가 개입 없이도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어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주장. 그러나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임으로써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하면 가점 5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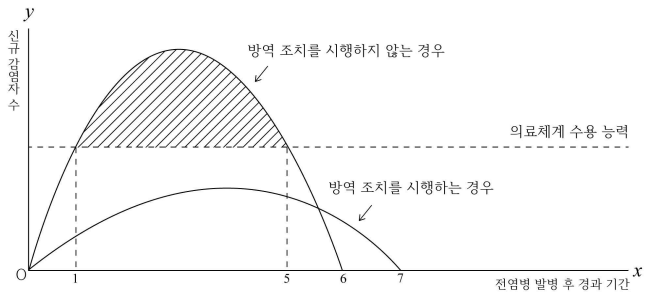
(1) 그림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수평선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x(x-6)=15$$
$$-3(x^2-6x+5)=0$$
$$-3(x-1)(x-5)=0$$

방정식의 교점은 1과 5이고
따라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이다.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int_1^5 (-3x^2+18x-15)dx$$

$$=[-x^3+9x^2-15x]_1^5$$

$$=-125+225-75-(-1+9-15)$$

$$=32$$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0에서 7까지이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4(=7×2)이다.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 32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제시문 [라]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계산 결과는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Ⅲ]은 고등학교 도덕과(‘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과(‘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국어과(‘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과(‘수학’, ‘수학Ⅱ’) 교육과정 전반에 근거하여 출제된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논제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시민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 정의와 분배, 인권과 기본권, 시장경제와 정부 개입이라는 핵심 사회·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정량적 자료와 수학적 계산을 통해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과 간 통합성이 매우 뚜렷한 문항이다. 특히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자료 해석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 도덕·사회과에서 요구하는 가치 판단과 비판적 사고,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함수와 적분의 활용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측면에서 보면,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시민적 덕성, 분배적 정의와 국가·시민의 윤리라는 핵심 주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에서는 인권 보장과 헌법,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요건 및 한계가 중요한 배경 개념으로 작용하며, '경제' 과목에서는 시장 가격의 결정,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라는 논점이 문제 해결의 핵심 전제가 된다. 여기에 '문학'과 '국어' 과목에서 강조하는 맥락적 이해, 비판적 수용, 자료 기반 설명 능력이 결합되고, '수학'과 '수학Ⅱ' 과목의 이차함수와 정적분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됨으로써, 교육과정 전반의 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논제 Ⅲ]은 두 개의 소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1)은 주어진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여 [논제 Ⅰ]에서 제시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연결되는 제시문 [가], [마]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전염병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자료를 통해, 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하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논지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은 단순히 그래프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자료 해석을 통한 가치 판단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와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수학' 과목의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 특정 구간과 조건을 파악하고, '수학Ⅱ' 과목의 정적분을 활용하여 누적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산 결과는 단순한 수학적 답안에 머무르지 않고, 두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후 수험생은 이러한 정량적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자생적 질서와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관점을 평가해야 한다. 즉, 수학적 분석 결과를 윤리·사회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수리 논술의 성격과 인문·사회 논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과도 부합한다. 수험생은 주어진 자료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독해력과 문제 이해력을 바탕으로, 그래프와 함수, 적분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수리 능력과 적용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계산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서로 다른 정책 선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리 추론 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탐구 학습, 논쟁 문제 수업,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수학 학습, 사례 분석 중심 사회·법 교육 등 각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일치한다.

채점 기준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풀이 과정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고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결과 중심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평가하려는 교육과정 평가 방향과 부합한다. 또한 수식과 그래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답안지 형식은 수리 논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고난도의 수학적 기교를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답안 작성 시간 역시 문제의 분량과 요구되는 사고 과정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논제 Ⅲ]은 그래프 자료 해석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방역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윤리·사회적 관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통합형 수리논술 문항이다. 이는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향에 충실히 근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요구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6]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논제 Ⅰ)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수열의 극한,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
예상 소요 시간	3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x=f(t)$, $y=g(t)$가 t에 대하여 미분가능하고, $f'(t)\neq 0$이면 $\dfrac{dy}{dx}=\dfrac{\dfrac{dy}{dt}}{\dfrac{dx}{dt}}=\dfrac{g'(t)}{f'(t)}$ 이다.

[나]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x=f(t)$, $y=g(t)$ 일 때,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s는

$$s=\int_a^b \sqrt{\left(\frac{dx}{dt}\right)^2+\left(\frac{dy}{dt}\right)^2}\,dt=\int_a^b \sqrt{\{f'(t)\}^2+\{g'(t)\}^2}\,dt$$

[논제 Ⅰ]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x=\frac{4}{2n+1}t^{\frac{2n+1}{2}}-\frac{4}{2n+1},\qquad y=\frac{1}{2n+1}t^{2n+1}-\ln t-\frac{1}{2n+1}$$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t\geq 1$)

(1) $\dfrac{dy}{dx}=n$이 되는 점 P의 x좌표를 a_n이라고 할 때, $\lim\limits_{n\to\infty} a_n$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2) 시각 $t=1$에서 $t=e^{\frac{1}{2n+1}}$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시각 $t=e^{\frac{1}{2n+1}}$에서 점 P의 y좌표를 m이라고 하자. 이때 $\dfrac{l}{m}$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3. 출제 의도

[논제 Ⅰ]에서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속도와 거리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여 도함수와 수열을 얻고,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력과 그 움직인 거리를 적분법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과목]-(1) 핵심개념-① 내용요소-성취기준)**
제시문[가]	[미적분]-(2) 미분법-②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8]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제시문[나]	[미적분]-(3) 적분법-② 정적분의 활용 [12미적03-07]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4	86
	미적분	박교식 외 19인	동아출판	2024	163

5. 문항 해설

[논제 Ⅰ]에서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속도와 거리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여 도함수와 수열을 얻고,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력과 그 움직인 거리를 적분법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Ⅰ-(1)	**<6점>** $x'(t)$와 $y'(t)$를 이용하여 $\frac{dy}{dx}$를 구한다. **<6점>** a_n을 구한다. **<3점>** $\lim_{n\to\infty} a_n$을 구한다.	15	30
논제 Ⅰ-(2)	**<6점>** 점 P의 속력을 구한다. **<6점>** 거리 l을 구한다. **<3점>** $\frac{l}{m}$을 구한다.	15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논제 Ⅰ-(1)

x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t)=2t^{\frac{2n-1}{2}}$, $y'(t)=t^{2n}-\frac{1}{t}$이다.

따라서 $\frac{dy}{dx}=\frac{y'(t)}{x'(t)}=\frac{1}{2}\left(t^{\frac{2n+1}{2}}-t^{-\frac{2n+1}{2}}\right)$이다.

$u=t^{\frac{2n+1}{2}}$ 라고 하고, $\frac{dy}{dx}=n$일 때를 생각하면,

$n=\frac{dy}{dx}=\frac{1}{2}\left(u-\frac{1}{u}\right)$로부터, $u^2-2nu-1=0$이다.

$u=n\pm\sqrt{n^2+1}$에서 $t\geq 1$이므로 $u=n+\sqrt{n^2+1}$을 얻는다.

따라서 이때 점 P의 x좌표는

$$a_n=\frac{4}{2n+1}u-\frac{4}{2n+1}=\frac{4}{2n+1}\left(n-1+\sqrt{n^2+1}\right)$$

그러므로

$$\lim_{n\to\infty} a_n=\lim_{n\to\infty}\left(\frac{4(n-1)}{2n+1}+\frac{4\sqrt{n^2+1}}{2n+1}\right)=2+2=4$$

논제 Ⅰ-(2)

점 P의 속력은

$$\sqrt{x'(t)^2+y'(t)^2}=\sqrt{4t^{2n-1}+t^{4n}-2t^{2n-1}+\frac{1}{t^2}}=\sqrt{\left(t^{2n}+\frac{1}{t}\right)^2}=t^{2n}+\frac{1}{t}$$

$b=e^{\frac{1}{2n+1}}$이라고 할 때, 시각 $t=1$에서 시각 $t=b$ 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l=\int_1^b\left(t^{2n}+\frac{1}{t}\right)dt=\frac{1}{2n+1}b^{2n+1}+\ln b-\frac{1}{2n+1}=\frac{e}{2n+1}+\frac{1}{2n+1}-\frac{1}{2n+1}=\frac{e}{2n+1}$$

$t=b$일 때의 점 P의 y좌표는 $m=\frac{1}{2n+1}b^{2n+1}-\ln b-\frac{1}{2n+1}=\frac{e-2}{2n+1}$이므로

$$\frac{l}{m}=\frac{e}{e-2}$$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수학 논술고사 [논제 I]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되었다. 수학적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활용능력, 추론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수열의 극한, 속도와 거리, 적분법이고 모두 중학교 수학 내용과 고등학교의 미적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단편적인 수학 공식의 적용 능력보다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추론을 통하여 수학적 문제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의 문항 (1)은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점의 좌표를 수열로 나타낸 후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력과 그 움직인 거리를 적분법을 활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분법, 적분법 및 수열의 극한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기본 개념들은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념은 현행교과서에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는 미적분 과목의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미적02-08]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3-07]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풀이의 과정과 채점기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와 논법은 배제되어 있다. 문제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채점기준과 답안의 예시에 기술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은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수열의 극한, 평면에서의 점의 이동거리 등으로 미적분 과목의 각 단원에 있는 개념과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해결의 사고와 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제시문 [가], [나]에 모두 제시되어 있어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논제의 상황이 명료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논제에서의 문항이 주어져 있어, 직전 단계에서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학생이 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 작성 분량은 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의 답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단계별 풀이 내용이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논제 I]의 종합적인 답안의 작성 분량과 난이도의 배분을 생각하였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공된 답안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작성 범위까지를 충분히 부분점수로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답안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연계열의 수학 논술 [논제 I]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으로 점의 좌표를 수열로 나타내고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와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를 적분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요소가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안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계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잘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논제가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7]

1.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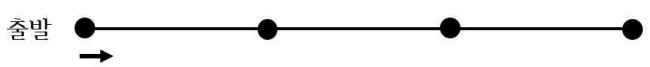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논제 Ⅱ)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조건부확률, 확률의 덧셈정리, 확률의 곱셈정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 삼차방정식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제시문

[제시문]

[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mathrm{P}(A\cap B)=\mathrm{P}(A)\mathrm{P}(B|A)=\mathrm{P}(B)\mathrm{P}(A|B)$이다. (단, $\mathrm{P}(A)>0$, $\mathrm{P}(B)>0$)

[논제 Ⅱ] <그림 1>의 말판에서 처음에 말은 맨 왼쪽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앞면(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p\,(0<p<1)$이고 뒷면(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1-p$인 윷짝 한 개를 계속해서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말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

(1) 처음 윷짝을 던진 결과가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세 번 나오기 전에 말이 맨 오른쪽 점까지 도달할 확률 $f(p)$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2점)

(2) $1,2,3,4,5$라는 다섯 개의 영역이 있는 돌림판이 있고, 각 영역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 돌림판을 돌려서 영역 $1,2,3,4$ 중 하나가 나오면 말을 왼쪽에서 세 번째 점에 두고, 반면에 영역 5가 나오면 말을 왼쪽에서 두 번째 점에 둔다. 그 후에 윷짝을 계속해서 던져서 뒷면이 두 번 나오기 전에 말이 맨 오른쪽 점까지 도달할 확률을 $g(p)$라고 하자. (1)에서 구한 $f(p)$에 대하여 $f(p)=g(p)$인 p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0<p<1$) (21점)

3. 출제 의도

[논제 II]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확률 및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경우를 나누어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단순한 공식의 적용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과목]-(1) 핵심개념-[1] 내용요소-성취기준)
제시문[대]	[확률과통계]-(2) 확률-[2] 조건부확률 [12확통02-05] 조건부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6인	금성출판사	2025	71

5. 문항 해설

[논제 II]에서는 확률의 정의와 조건부확률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경우를 나누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I-(1)	<9점> 뒷면의 개수에 따른 각각의 확률 구하기 <3점> 확률 합쳐서 식을 정리하기	12	33
논제 II-(2)	<7점> 영역이 1, 2, 3, 4가 나올 경우의 확률 구하기 <7점> 영역 5가 나올 확률 구하기 <7점> 함께 계산하여 p값 구하기	21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논제 II-(1) 윷짝을 던진 첫 결과가 앞면이면 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앞면은 두 번 나와야 하고, 뒷면은 최대 두 번 나와야 하며, 마지막은 앞면으로 끝나야 한다. 뒷면의 개수로 경우를 나누어 보자.

* 뒷면이 0번: 앞앞 => 확률 p^2
* 뒷면이 1번: 앞뒤앞, 뒤앞앞 => 확률 $2p^2(1-p)$
* 뒷면이 2번: 앞뒤뒤앞, 뒤앞뒤앞, 뒤뒤앞앞 => 확률 $3p^2(1-p)^2$

따라서

$$f(p)=p^2\{1+2(1-p)+3(1-p)^2\}=p^2(3p^2-8p+6)$$

논제 II-(2)

① **<u>경우 1</u> (영역 1, 2, 3, 4가 나온 경우)**

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앞면은 한 번 나와야 하고, 뒷면은 최대 한 번 나와야 하며, 마지막은 앞면으로 끝나야 한다. 이후 뒷면의 개수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어 보자.

* 뒷면이 0번: 앞 => 확률 p
* 뒷면이 1번: 뒤앞 => 확률 $p(1-p)$

따라서, 경우 1일 때 맨 오른쪽 점까지 도달할 확률은

$$g_1(p)=p(2-p)$$

② **<u>경우 2</u> (영역 5가 나온 경우)**

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앞면은 두 번 나와야 하고, 뒷면은 최대 한 번 나와야 하며, 마지막은 앞면으로 끝나야 한다. 이후 뒷면의 개수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어 보자.

* 뒷면이 0번: 앞앞 => 확률 p^2
* 뒷면이 1번: 앞뒤앞, 뒤앞앞 => 확률 $2p^2(1-p)$

따라서, 경우 2일 때 맨 오른쪽 점까지 도달할 확률은

$$g_2(p)=p^2(3-2p)$$

③ **<u>함께 계산하기</u>**

확률의 곱셈정리에 의하여

$$g(p)=\frac{4}{5}g_1(p)+\frac{1}{5}g_2(p)=\frac{4}{5}p(2-p)+\frac{1}{5}p^2(3-2p)=\frac{1}{5}p(-2p^2-p+8)$$

$f(p)=g(p)$이므로

$$p^2(3p^2-8p+6)=\frac{1}{5}p(-2p^2-p+8)$$

이다. $p>0$이므로 양변을 p로 나누고, 다시 정리하면

$$15p^3-38p^2+31p-8=0$$

이고, 인수분해하면

$$(p-1)^2(15p-8)=0$$

$p<1$이므로 $$p=\frac{8}{15}$$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수학 논술고사 [논제Ⅱ]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되었다. 수학적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활용능력, 추론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조건부확률, 확률의 덧셈정리, 확률의 곱셈정리, 삼차방정식의 풀이이고 모두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및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수학 공식의 적용 능력보다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추론을 통하여 수학적 문제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Ⅱ]의 문항 (1)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고 각 경우의 확률을 구하여 확률의 덧셈정리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문항 (2)는 돌림판의 영역에 따라 확률을 구하고 (1)에서 구한 확률과 같아지는 값을 삼차방정식을 해결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률의 계산에서부터 방정식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확률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기본 개념들은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념은 현행교과서에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는 확률과 통계 과목의 확률의 곱셈정리이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확통02-05]조건부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풀이의 과정과 채점기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와 논법은 배제되어 있다. 문제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채점 기준과 답안의 예시에 기술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은 확률의 덧셈정리, 확률의 곱셈정리, 삼차방정식의 인수분해 등으로 확률과 통계, 수학의 각각의 단원에 있는 개념과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해결의 사고와 풀이에 필요한 제시문 [다]가 제시되어 있어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시문의 내용은 재구성 되지 않은 교과 내용 그대로가 제시되어 있다. 논제의 상황이 명료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논제에서의 문항이 주어져 있어, 직전 단계에서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학생이 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 작성 분량은 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의 답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단계별 풀이 내용이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논제Ⅱ]의 종합적인 답안의 작성 분량과 난이도의 배분을 생각하였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공된 답안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작성 범위까지를 충분히 부분점수로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답안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연계열의 수학 논술 [논제Ⅱ]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경우를 나누고 확률의 곱셈정리와 삼차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요소가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안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계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잘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논제가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8]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논제 Ⅲ)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핵심개념 및 용어	무리함수, 삼각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이차곡선
예상 소요 시간	45분	

2. 문항 및 제시문

[제시문]

[라] 함수 $f(x)$가 $x=a$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f(x)$ 위의 점 $\mathrm{P}(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a)=f'(a)(x-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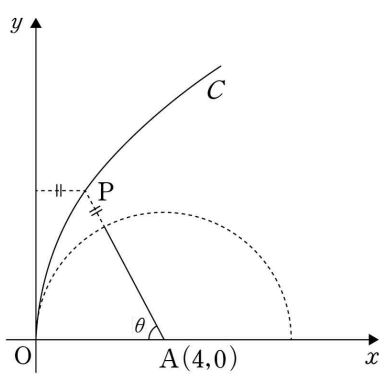
[마] 함수 $f(x)$가 어떤 열린구간에서 미분가능할 때, 그 열린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1) $f'(x)>0$이면 $f(x)$는 그 열린구간에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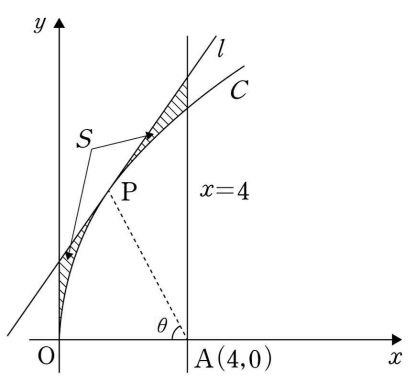
(2) $f'(x)<0$이면 $f(x)$는 그 열린구간에서 감소한다.

[문항]

[논제 Ⅲ] 좌표평면에서 x축 위에 점 $\mathrm{A}(4,0)$이 있다. <그림 2>와 같이 제1사분면 위의 점 P와 y축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d=\overline{\mathrm{AP}}-4$를 만족하는 점 P가 이루는 곡선을 C라고 하자. $\angle \mathrm{OAP}=\theta \left(0<\theta<\frac{\pi}{2}\right)$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2>



<그림 3>

(1) 곡선 C 위의 점들 중 $\sin\theta=\frac{4}{5}$인 점을 P_1, $\sin\theta=\frac{2\sqrt{2}}{3}$인 점을 P_2라고 하자. 이때 두 선분 AP_1, AP_2와 곡선 C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2) 곡선 C 위의 한 점 $\mathrm{P}(a,b)$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림 3>과 같이 접선 l, 곡선 C, 직선 $x=4$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S라고 하자. 도형 S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7점)

3. 출제 의도

[논제 III]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차곡선 및 미적분 그리고 기하 과목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논제를 출제하였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단순한 공식의 적용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과목]-(1) 핵심개념-[1] 내용요소-성취기준)
제시문[래]	[수학Ⅱ]-(2) 미분-[2] 도함수-[12수학Ⅱ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매]	[수학Ⅱ]-(2) 미분-[3] 도함수의 활용-[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박교식 외 19인	동아출판	2025	73
	수학Ⅱ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25	85

5.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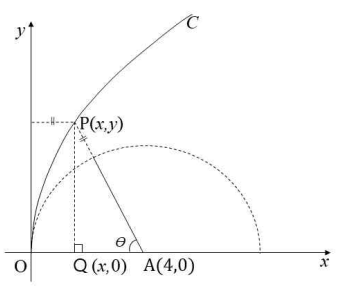
논제 [III]의 첫 번째 논제에서는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포물선의 방정식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적분의 응용을 활용하여 제시된 도형의 넓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I]의 두 번째 논제에서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과 도함수를 활용하여 제시된 도형의 넓이의 최솟값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Ⅲ-(1)	<7점> 곡선 C의 방정식 $y=4\sqrt{x}$를 잘 구할 수 있다. <7점> 도형의 넓이를 잘 규명할 수 있다. <6점> 도형의 넓이 $\frac{2}{3}(14\sqrt{2}-13)$을 잘 계산한다.	20	37
논제 Ⅲ-(2)	<5점> 접선의 방정식 $y=\frac{2}{\sqrt{a}}x+2\sqrt{a}$을 잘 구할 수 있다. <5점> 도형의 넓이 $g(a)=8\sqrt{a}+\frac{16}{\sqrt{a}}-\frac{64}{3}$를 잘 구할 수 있다. <7점> 넓이의 최솟값 $g(2)=16\left(\sqrt{2}-\frac{4}{3}\right)$ 을 구한다.	17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Ⅲ-(1) 점 P의 좌표를 (x,y)라고 하고,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면, 점 Q의 좌표는 $(x,0)$이다. $\overline{\mathrm{AP}}=4+x$이며 $\overline{\mathrm{AQ}}=4-x$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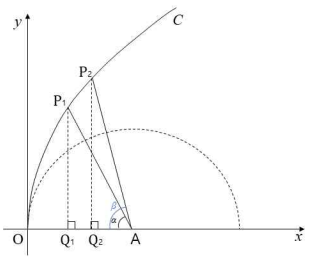


$0<\theta<\frac{\pi}{2}$에서 $\cos\theta=\frac{4-x}{4+x}$, $\frac{y}{4+x}=\sin\theta=\sqrt{1-\cos^2\theta}=\frac{4\sqrt{x}}{4+x}$이므로 곡선 C의 방정식은 $y=4\sqrt{x}$ $(0<x<4)$이다. $f(x)=4\sqrt{x}$라고 하자. 또한 위의 계산으로부터

$$x=\frac{4(1-\cos\theta)}{1+\cos\theta} \qquad \text{---------- (*)}$$

$\sin\theta=\frac{4}{5}$인 θ를 α, $\sin\theta=\frac{2\sqrt{2}}{3}$인 θ를 β라고 하고 점 P_1과 P_2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_1과 Q_2라고 하자. 두 선분 AP_1, AP_2와 곡선 C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하면,

B = (도형 $P_2P_1Q_1Q_2$의 넓이) + (삼각형 AP_2Q_2의 넓이) − (삼각형AP_1Q_1의 넓이) -- (**)



$0<\theta<\frac{\pi}{2}$에서 $\sin\theta$는 증가함수이므로 $0<\alpha\le\beta<\frac{\pi}{2}$이고, $\sin\alpha=\frac{4}{5}$, $\sin\beta=\frac{2\sqrt{2}}{3}$이므로 $\cos\alpha=\frac{3}{5}$, $\cos\beta=\frac{1}{3}$이며, (*)로부터 점 Q_1과 Q_2의 x좌표는 각각 1과 2이다.

$$\text{(도형 } P_2P_1Q_1Q_2\text{의 넓이)} = \int_1^2 f(x)\,dx = \int_1^2 4\sqrt{x}\,dx = \frac{8}{3}(2\sqrt{2}-1)$$

$\overline{AQ_2}=2$, $\overline{P_2Q_2}=f(2)=4\sqrt{2}$에서, 삼각형$AP_2Q_2$의 넓이는 $4\sqrt{2}$

$\overline{AQ_1}=3$, $\overline{P_1Q_1}=f(1)=4$에서, 삼각형AP_1Q_1의 넓이는 6

따라서 (**)에 의해 $B=\frac{8}{3}(2\sqrt{2}-1)+4\sqrt{2}-6=\frac{2}{3}(14\sqrt{2}-13)$

Ⅲ-(2) 곡선 C의 방정식 $y=f(x)=4\sqrt{x}$에 의하여 $f'(x)=\frac{2}{\sqrt{x}}$이므로, 곡선 위의 점 $P(a,4\sqrt{a})$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 l의 방정식은 $y=\frac{2}{\sqrt{a}}x+2\sqrt{a}$이다.

$h(x)=\frac{2}{\sqrt{a}}x+2\sqrt{a}$라고 하자.

접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L, 접선 l이 직선 $x=4$와 만나는 점을 M, 곡선 C가 직선 $x=4$와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자. 도형 S의 넓이를 $g(a)$라 하면

$g(a)$ = (사다리꼴 LOAM의 넓이) − (도형 OAN의 넓이)

한편,

$$\text{(사다리꼴 LOAM의 넓이)} = \int_0^4 h(x)\,dx = 8\sqrt{a}+\frac{16}{\sqrt{a}}$$

$$\text{(도형 OAN의 넓이)} = \int_0^4 4\sqrt{x}\,dx = \frac{64}{3}$$

이므로

$$g(a)=8\sqrt{a}+\frac{16}{\sqrt{a}}-\frac{64}{3}$$

따라서 도형 S의 넓이의 최솟값은 $0<a<4$에서 함수 $g(a)$의 최솟값이다.

$g'(a)=\frac{4}{a\sqrt{a}}(a-2)$이며, $g'(a)=0$인 경우는 $a=2$이다.

$a<2$이면 $g'(a)<0$이고 $a>2$이면 $g'(a)>0$이므로 $g(a)$는 $a=2$일 때 최솟값을 가진다.

도형 S의 넓이의 최솟값은 $g(2)=16\left(\sqrt{2}-\frac{4}{3}\right)$이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수학 논술고사 [논제Ⅲ]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되었다. 수학적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활용능력, 추론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삼각함수, 접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함수의 최대와 최소, 포물선의 방정식이고 모두 고등학교의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수학 공식의 적용 능력보다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추론을 통하여 수학적 문제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Ⅲ]의 문항 (1)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곡선을 찾고 그 곡선과 두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곡선의 접선과 곡선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포물선의 방정식, 삼각함수 및 적분법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기본 개념들은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념은 현행교과서에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는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수학Ⅱ02-06]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풀이의 과정과 채점기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와 논법은 배제되어 있다. 문제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채점 기준과 답안의 예시에 기술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은 정적분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최솟값, 포물선의 방정식 등으로 수학Ⅱ와 미적분 및 기하 과목의 각 단원에 있는 개념과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해결의 사고와 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제시문 [라], [마]에 모두 제시되어 있어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논제의 상황이 명료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논제에서의 문항이 주어져 있어, 직전 단계에서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학생이 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 작성 분량은 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의 답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단계별 풀이 내용이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논제Ⅲ]의 종합적인 답안의 작성 분량과 난이도의 배분을 생각하였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공된 답안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작성 범위까지를 충분히 부분점수로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답안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연계열의 수학 논술 [논제Ⅲ]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선분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와 접선과 곡선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요소가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안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계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잘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논제가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9]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수학Ⅰ)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Ⅰ, 기하
	핵심개념 및 용어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평면 α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 평면 α 위의 한 점 O, 점 O를 지나지 않고 평면 α 위에 있는 한 직선 l, 직선 l 위의 한 점 H에 대하여

(1) $\overline{\mathrm{PO}}\perp\alpha$, $\overline{\mathrm{OH}}\perp l$이면 $\overline{\mathrm{PH}}\perp l$

(2) $\overline{\mathrm{PO}}\perp\alpha$, $\overline{\mathrm{PH}}\perp l$이면 $\overline{\mathrm{OH}}\perp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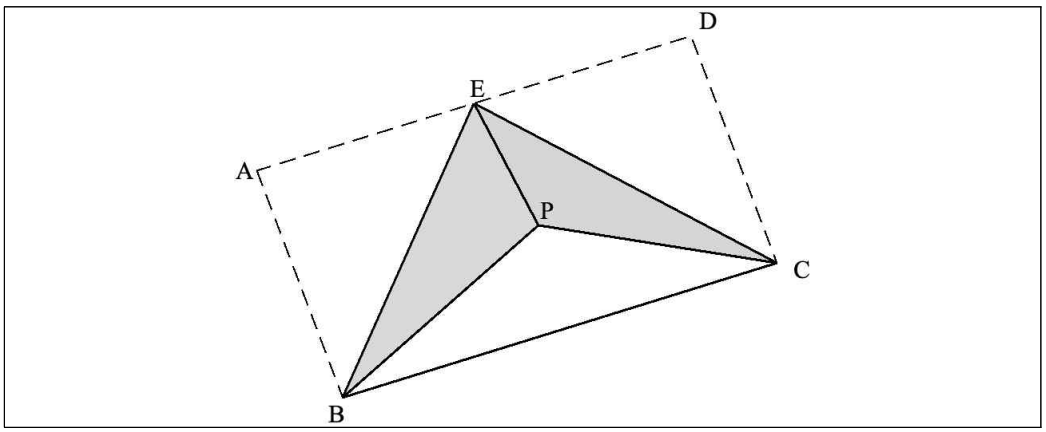
(3) $\overline{\mathrm{PH}}\perp l$, $\overline{\mathrm{OH}}\perp l$, $\overline{\mathrm{PO}}\perp\overline{\mathrm{OH}}$이면 $\overline{\mathrm{PO}}\perp\alpha$

[논제 Ⅰ]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꼭짓점 A,B,C,D 에 대하여 $\overline{\mathrm{AB}}=2$, $\overline{\mathrm{AD}}=2\sqrt{3}$ 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D의 중점을 E라고 하고, 선분 EB와 선분 EC를 접어서 두 선분 AE와 DE가 맞닿도록 하자. 두 점 A와 D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종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1) 평면 PEB와 평면 E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라 하자. $\cos\theta$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4점)

(2) 삼각형 PBC의 넓이와 사면체 PEBC의 부피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4점)



3. 출제 의도

[논제 Ⅰ]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을 이해하고, 기하의 삼수선의 정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의 성질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과목]-(1) 핵심개념-[1] 내용요소-성취기준)
제시문[개	[기하] -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1] 공간도형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	류희찬 외 9인	천재교과서	2023	131

5. 문항 해설

[논제 Ⅰ]에서는 삼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탕으로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을 이해하고, 수선의 발과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여 삼각형의 변의 길이, 이면각에 대한 삼각비,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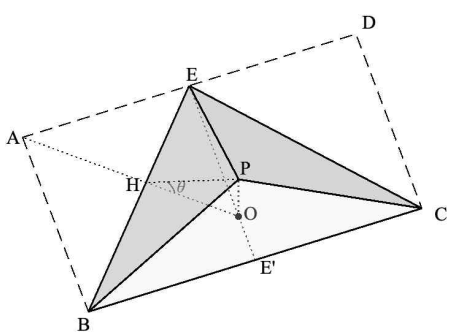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1)	<6점> 점 P에서 선분 EB와 평면 E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O라 할 때, $\cos\theta = \frac{\overline{HO}}{\overline{PH}}$임을 확인한다. <8점> $\cos\theta = \frac{3}{4}$을 계산한다.	14	28
논제 I -(2)	<7점> 삼각형 PBC의 넓이를 구한다. <7점> 사면체 PEBC의 부피를 구한다.	1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점 E는 선분 AD의 중점이므로 $\overline{AE} = \overline{ED} = \sqrt{3}$이고, 직각삼각형 ABE에서 $\overline{BE} = \sqrt{7}$이다. 또한 직사각형 ABCD를 접은 이후 점 A=D=P이므로, $\overline{PB} = \overline{PC} = 2$이고, $\overline{PE} = \sqrt{3}$이다.

점 P에서 선분 EB와 평면 E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O라고 하자. $\overline{PH} \perp \overline{EB}$이고, 선분 PO와 평면 EBC는 수직이므로 삼수선의 정리에 따라 $\overline{HO} \perp \overline{EB}$이다. 직각삼각형 POH에서 $\cos\theta = \frac{\overline{HO}}{\overline{PH}}$이다.

한편, 삼각형 AEO와 삼각형 BAE는 서로 닮음이므로 $\overline{AE} : \overline{EO} = \overline{BA} : \overline{AE}$에서 $\overline{EO} = \frac{3}{2}$이고, 삼각형 AHB와 삼각형 OHE는 서로 닮음이므로 $\overline{AB} : \overline{AH} = \overline{EO} : \overline{HO}$에서 $\frac{\overline{HO}}{\overline{AH}} = \frac{3}{4}$이다. 이때 $\cos\theta = \frac{\overline{HO}}{\overline{PH}}$에서 $\overline{PH} = \overline{AH}$이므로 $\cos\theta = \frac{3}{4}$



(2) 삼각형 PBC의 넓이:

선분 BC의 중점을 E′이라고 하면 $\overline{E'C} = \sqrt{3}$이고, 점 E′은 점 P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overline{PC} = 2$이므로, 직각삼각형 PE′C에서 $\overline{PE'} = 1$이다. 따라서

$$\triangle PBC = \frac{1}{2}\overline{BC} \times \overline{PE'} = \sqrt{3}$$

사면체 PEBC의 부피:

직각삼각형 ABE에서 $\overline{AB}\times\overline{AE}=\overline{AH}\times\overline{BE}$ 이므로 $\overline{AH}=\overline{PH}=\frac{2\sqrt{3}}{\sqrt{7}}$ 이고, (1)의 결과를 이용하여 $\sin\theta=\sqrt{1-\cos^2\theta}=\frac{\sqrt{7}}{4}$ 로부터 $\overline{PO}=\overline{PH}\sin\theta=\frac{\sqrt{3}}{2}$ 이다. $\triangle EBC=2\sqrt{3}$ 이므로, 사면체 PEBC의 부피 V는

$$V=\frac{1}{3}\times\triangle EBC\times\overline{PO}=1$$

(다른 답안 (2) 사면체 PEBC의 부피:)

$\overline{EP}\perp\overline{BP}$이고 $\overline{EP}\perp\overline{PC}$이므로, 선분 EP와 평면 PBC는 수직이다. 따라서 사면체 PEBC는 삼각형 PBC를 밑면으로 하고, 선분 EP를 높이로 하는 삼각뿔이다. $\triangle PBC=\sqrt{3}$ 이고, $\overline{EP}=\sqrt{3}$ 이므로, 사면체 PEBC의 부피는 $V=\frac{1}{3}\times\triangle PBC\times\overline{EP}=1$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의·약학계열 수학 논술고사 논제Ⅰ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되었다. 수학적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활용능력, 추론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입체도형의 부피이고 모두 중학교 수학 내용과 고등학교의 수학Ⅰ, 기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기본 개념은 제시문에 나타내었으며, 용어 및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Ⅰ, 기하 내에 있는 내용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도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목표인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능력,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역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논제Ⅰ]의 문항 (1)은 두 평면이 맞닿아서 생기는 이면각을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1)에서 파악한 입체의 길이와 각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와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여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입체도형의 변 사이의 관계와 각을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 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는 기하의 삼수선의 정리이다, 이러한 개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기본 개념들은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출처는 기하 교과서로서 제시문의 자료에 담겨있는 주요개념, 내용, 용어,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수학 과목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이 모든 역량이 교육과정 내의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평가되었다.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풀이의 과정과 채점기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와 논법은 배제되어 있다. 문제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각 논제에서 풀이 단계별로 적절한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명료하다. 풀이의 과정에서 학생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풀이와 결과에 대해서도 풀이 과정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이 부여되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채점 기준과 답안의 예시에 기술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은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삼각형의 넓이, 사면체의 부피이다.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의 용어와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능력, 주어진 문자에 관해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 식을 간단히 나타내고 다양한 수학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가 채점기준에 잘 반영되었다.

학생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해결의 사고와 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제시문 [가]에 제시되어 있어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논제의 상황이 명료하여, 주어진 그림을 활용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논제에서의 문항이 주어져 있어, 직전 단계에서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학생이 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량도 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의 답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단계별 풀이 내용이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논제 I 의 종합적인 답안의 작성 분량과 난이도의 배분을 생각하였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공된 답안지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작성 범위까지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부분점수로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답안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의·약학계열)의 수학 논술 논제 I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되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으로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추론 능력,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 연결하는 창의 융합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그 학습의 토대와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수학 과목의 고교 교육과정 전반을 범위와 수준으로 하여 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는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평가의 성격을 지녔으며 객관적인 학생 역량의 판단과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0]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수학Ⅱ)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Ⅱ,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연속확률변수, 확률밀도함수, 적분, 확률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제시문

[나]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alpha \le x \le \beta)$에 대하여

(1) $f(x) \ge 0$

(2)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alpha$, $x=\bet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3) 두 상수 a, b $(\alpha \le a \le b \le \beta)$에 대하여 $\mathrm{P}(a \le X \le b)$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다.

[논제 Ⅱ]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begin{cases} a(bx+1) & (0 \le x \le 1) \\ -a(b+1)(x-2) & (1 < x \le 2) \end{cases}$가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0$)

(1)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 이를 이용하여 $c=\int_0^2 x^2 f(x)\,dx$의 범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6점)

(2) $b>0$일 때, $\mathrm{P}(0 \le X \le d)=\frac{3}{5}$이 되는 d를 b에 대한 식 $d=g(b)$로 나타낸 후, 이를 이용하여 $g\left(\frac{1}{2}\right)+g(39)$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6점)

3. 출제 의도

[논제 Ⅱ]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식의 암기 및 적용보다는,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경우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과목]-(1) 핵심개념-[1] 내용요소-성취기준)
제시문내	[확률과 통계] - (3) 통계 - [1]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25	90

5. 문항 해설

[논제 Ⅱ]에서는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분값의 범위를 계산하거나, 경우를 나누어 확률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Ⅱ-(1)	<5점> a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5점> b의 범위 ($b \geq -1$)를 구한다. <6점> b의 범위를 이용하여 c의 범위를 계산한다.	16	32
논제 Ⅱ-(2)	<7점> $0 < b \leq 1$일 때 d의 값을 계산한다. <7점> $b > 1$일 때 d의 값을 계산한다. <2점> $g\left(\frac{1}{2}\right)+g(39)$의 값을 계산한다.	16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함수 $f(x)$가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가 되려면 구간 $[0,2]$에서 $f(x) \geq 0$이고, $\mathrm{P}(0 \leq X \leq 2) = 1$이다. 함수 $f(x)$가 구간 $[0,1]$ 및 $(1,2]$에서 각각 일차함수이므로, 첫 번째 조건 $f(x) \geq 0$을 만족하려면

$$f(0) = a \geq 0,\ f(1) = a(1+b) \geq 0,\ f(2) = 0 \geq 0$$

그런데, $a > 0$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b의 범위는 $b \geq -1$이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mathrm{P}(0 \le X \le 2) = \frac{1}{2} \times (a + a(b+1)) \times 1 + \frac{1}{2} \times a(b+1) \times 1 = a\frac{2b+3}{2} = 1$$

따라서 $a = \frac{2}{2b+3}$이다. 한편,

$$c = \int_0^2 x^2 f(x)dx = \int_0^1 a(bx^3 + x^2)dx + \int_1^2 \{-a(b+1)(x^3 - 2x^2)\}dx$$
$$= \frac{a(3b+4)}{12} + \frac{11a(b+1)}{12} = \frac{14b+15}{12b+18} = -\frac{1}{2b+3} + \frac{7}{6}$$

따라서, 주어진 범위 $b \ge -1$에서 c의 값의 범위는 $\frac{1}{6} \le c < \frac{7}{6}$

(2) $\mathrm{P}(0 \le X \le 1) = \frac{1}{2} \times (a + a(b+1)) \times 1 = \frac{a}{2}(b+2) = \frac{b+2}{2b+3}$이므로 $\frac{b+2}{2b+3} = \frac{3}{5}$

즉, $b =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생각하자.

(i) ($0 < b \le 1$인 경우) 이 경우에는 $\frac{b+2}{2b+3} \ge \frac{3}{5}$이므로, $\mathrm{P}(0 \le X \le d) = \frac{3}{5}$인 d는 구간 $(0, 1]$에 존재한다. 이때

$$\mathrm{P}(0 \le X \le d) = \frac{1}{2} \times (a + a(bd+1)) \times d = a\left(\frac{b}{2}d^2 + d\right) = \frac{3}{5}$$

따라서 d는 이차방정식 $bd^2 + 2d - \frac{6b+9}{5} = 0$을 만족하며, d는 구간 $(0, 1]$에 존재해야 하므로 $d = \frac{1}{b}\left(-1 + \sqrt{1 + \frac{b(6b+9)}{5}}\right)$이다.

(ii) ($b > 1$인 경우) 이 경우에는 $\frac{b+2}{2b+3} < \frac{3}{5}$이므로, $\mathrm{P}(0 \le X \le d) = \frac{3}{5}$인 d는 구간 $(1, 2)$에 존재한다. 이때

$$\mathrm{P}(d \le X \le 2) = \frac{1}{2} \times (2-d) \times a(b+1)(2-d) = \frac{a(b+1)}{2}(d-2)^2 = \frac{b+1}{2b+3}(d^2 - 4d + 4) = \frac{2}{5}$$

따라서 d는 이차방정식 $d^2 - 4d + \frac{16b+14}{5b+5} = 0$을 만족하며, d는 구간 $(1, 2)$에 존재해야 하므로 $d = 2 - \sqrt{\frac{4b+6}{5b+5}}$이다. 따라서, 구하는 값 $d = g(b)$는

$$g(b) = \begin{cases} \frac{1}{b}\left(-1 + \sqrt{1 + \frac{b(6b+9)}{5}}\right) & (0 < b \le 1) \\ 2 - \sqrt{\frac{4b+6}{5b+5}} & (b > 1) \end{cases}$$

그러므로, $g\left(\frac{1}{2}\right) = 2\sqrt{\frac{11}{5}} - 2$, $g(39) = 2 - \sqrt{\frac{81}{100}} = 2 - \frac{9}{10}$이다. 따라서

$$g\left(\frac{1}{2}\right) + g(39) = 2\sqrt{\frac{11}{5}} - \frac{9}{10}$$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의·약학계열 수학 논술고사 논제Ⅱ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되었다. 수학적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활용능력, 추론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연속확률변수의 뜻, 확률밀도함수의 성질 이용하여 상수의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항함수의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와 연속확률변수에서 확률값을 계산하여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해 구하는 문제이다. 이는 모두 중학교 교과서와 수학Ⅱ,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기본 개념은 제시문에 나타내었으며, 용어 및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확률과 통계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도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목표인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능력,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역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논제Ⅱ]의 문항 (1)은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상수를 표현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삼차함수의 적분을 계산하여 주어진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다. 문항 (2)는 (1)에서 파악한 두 상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의 확률을 구하여 식으로 나타낸 후 주어진 상수값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속확률변수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확률밀도함수의 성질, 다항함수의 적분에 이르기까지 확률과 통계와 수학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는 확률과 통계 조건부 확률이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기본 개념은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출처는 확률과 통계 교과서로서 제시문의 자료에 담겨있는 주요개념, 내용, 용어,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수학 과목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이 모든 역량이 교육과정 내의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평가되었다.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풀이의 과정과 채점기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와 논법은 배제되어 있다. 문제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각 논제에서 풀이 단계별로 적절한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명료하다. 풀이의 과정에서 학생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풀이와 결과에 대해서도 풀이 과정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이 부여되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채점 기준과 답안의 예시에 기술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은 확률밀도함수의 성질, 다항함수의 적분, 연속확률변수의 확률, 이차방정식의 해이다.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의 용어와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능력, 다양한 수학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가 채점기준에 잘 반영되었다.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의·약학계열) 논제Ⅱ 문항의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1)은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상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삼차함수의 적분을 계산하고 계산한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으로 예시 답안이 작성되어 있다. 문항(2)는 (1)에서 파악한 두 상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상황으로 분리하고 연속확률변수의 확률을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이차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조건에 맞는 값을 이차방정식의 근의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으로 예시 답안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수학Ⅱ, 확률과 통계 과목의 학습 요소,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학생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해결의 사고와 풀이에 필요한 제시문 [나]가 제시되어 있어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시문의 내용은 재구성 되지 않은 교과 내용 그대로가 제시되어 있다. 논제의 상황이 명료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논제에서의 문항이 주어져 있어, 직전 단계에서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학생이 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량도 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의 답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단계별 풀이 내용이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논제Ⅱ의 종합적인 답안의 작성 분량과 난이도의 배분을 생각하였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공된 답안지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답안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작성 범위까지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부분점수로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답안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의·약학계열)의 수학 논술 논제Ⅱ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되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으로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추론 능력,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 연결하는 창의 융합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그 학습의 토대와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수학 과목의 고교 교육과정 전반을 범위와 수준으로 하여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평가의 성격을 지녔으며 객관적인 학생 역량의 판단과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물리학 Ⅲ)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물리학Ⅰ, 물리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역학적 에너지, 등속 원운동,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예상 소요 시간	25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질량 m인 물체가 반지름 r인 원둘레를 일정한 속력 v로 원운동을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overrightarrow{F}$의 크기는 $F=\frac{mv^2}{r}$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E=\frac{1}{2}mv^2$이다.

[나]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며, 그 크기는 용수철 상수 k를 이용하여 $F=kx$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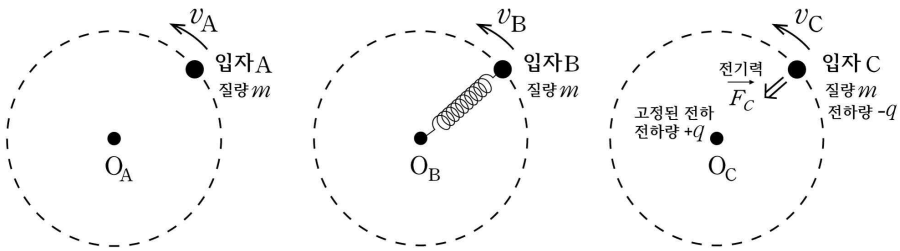
[다] 전하량이 각각 q_1과 q_2인 두 점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k\frac{q_1q_2}{r^2}$로 나타나고, 이때 k는 쿨롱 상수라 한다.

[라] 아인슈타인은 빛을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광양자설을 제안하였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c, 빛의 파장을 λ라고 하면 광자 1개의 에너지는 $E=\frac{hc}{\lambda}$이다. 드브로이는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였으며, 질량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운동량이 p인 물질파의 파장은 $\lambda=\frac{h}{p}=\frac{h}{mv}$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h=2\pi\hbar$는 플랑크 상수이다..

[마] 보어는 전자도 파동이므로, 전자는 $2\pi r=n\lambda$ (단, $n=1,2,3,\cdots$)의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E_n = -\left(\frac{2\pi^2 k^2 me^4}{h^2}\right)\frac{1}{n^2}$과 같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자가 두 궤도 사이를 넘나들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광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고 가정하였다. 단, m은 전자의 질량,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k는 쿨롱 상수이다.

[논제 Ⅲ] 제시문 [가]~[마]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

<그림 1>과 같이 질량 m인 입자 A, B, C가 각각 점 O_A, O_B, O_C를 중심으로, 속력 v_A, v_B, v_C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입자 A는 점 O_A와의 거리가 l_A로 고정된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입자 B는 원래 길이 l_B, 용수철 상수 k_B인 용수철로 O_B와 연결되어 운동한다. 입자 C는 점 O_C에 고정된 전하에 의해 전기력 $\overrightarrow{F_C}$ 에 의해 당겨진다. 입자 C의 전하량은 $-q$이고, 고정된 전하의 전하량은 $+q$라 하자. 단, 용수철의 질량이나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한다.

(1) 입자 A, B, C의 궤도 반지름 r_A, r_B, r_C를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리고 각 입자에 보어의 가설을 적용하면 궤도 반지름 r_A, r_B, r_C가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함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0점)

(2) 보어의 가설이 적용된 입자 A와 C에 대해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며 내는 빛의 파장이 서로 같다고 하자. 각 입자가 두 번째 들뜬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이하며 내는 빛의 파장의 비 $\lambda_A : \lambda_C$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6점)

3. 출제 의도

의학계 물리학 [논제Ⅲ]의 (1), (2)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등속 원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어의 원자 모형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았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에 따라 궤도 반지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에 대해 표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해 보어의 가설에 따라 물질파 개념을 적용하면, 입자가 원운동하는 궤도 반지름이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입자들은 에너지 준위를 전이하며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각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기초 개념을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가]	(과목명) 물리학 I (대영역) (1) 역학과 에너지 (성취기준) [12물리 I 01-06]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물리학 Ⅱ (대영역) (1) 역학적 상호작용 (성취기준) [12물리Ⅱ01-05]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나]	(과목명) 물리학 I (대영역) (1) 역학과 에너지 (성취기준) [12물리 I 01-06]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과목명) 물리학 I (대영역) (2) 물질과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 I 02-01]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과목명) 물리학 I (대영역) (3) 파동과 정보통신 (성취기준) [12물리 I 03-05] 빛의 이중성을 알고, 영상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 I 03-06]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마]	(과목명) 물리학 I (대영역) (2) 물질과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 I 02-02]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물리학 Ⅱ (대영역) (3) 파동과 물질의 성질 (성취기준) 12물리Ⅱ03-08]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도를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역별 내용
하위문항	논제 Ⅲ-1	(과목명) 물리학 Ⅰ (대영역) (1) 역학과 에너지, (2) 물질과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Ⅰ01-06]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2-01]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2-02]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1) 역학적 상호작용 (성취기준) [12물리Ⅱ01-05]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논제 Ⅲ-2	(과목명) 물리학 Ⅰ (대영역) (2) 물질과 전자기장, (3) 파동과 정보통신 (성취기준) [12물리Ⅰ02-02]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3-06]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3) 파동과 물질의 성질 (성취기준) [12물리Ⅱ03-08]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도를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학 Ⅰ	김영민 외 7인	(주)교학사	2023	62, 104, 111, 204
	물리학 Ⅰ	송진웅 외 4인	동아출판	2025	40-41, 89, 94-96, 185
	물리학 Ⅰ	김성진 외 6인	미래엔	2025	50-51, 99, 106-107, 200
	물리학 Ⅰ	강남화 외 5인	천재교육	2025	46, 92, 96-97, 176, 180
	물리학 Ⅰ	이상연 외 4인	금성출판사	2024	43, 85, 89, 94, 181-182
	물리학 Ⅰ	손정우 외 5인	비상교육	2023	47, 90, 94-96, 176
	물리학 Ⅰ	김성원 외 5인	(주)지학사	2025	94, 101-102, 189-190
	물리학 Ⅰ	곽영직 외 3인	와이비엠	2025	49, 107, 113, 200
	물리학Ⅱ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24	38, 203, 210-211
	물리학Ⅱ	손정우 외 5인	비상교육	2025	37, 86, 174, 178, 180
	물리학Ⅱ	김성원 외 5인	지학사	2025	71, 99, 207, 213-215

	물리학Ⅱ	강남화 외 5인	천재교육	2025	37, 87, 183-184
	물리학Ⅱ	김성진 외 6인	미래앤	2025	43, 94, 203, 207-208, 210

5. 문항 해설

의학계 물리학 [논제Ⅲ]의 (1), (2)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Ⅱ 교과서의 '역학적 상호작용' 단원의 '등속 원운동', '시공간과 에너지' 단원의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물리학Ⅰ교과서의 '파동과 정보 통신' 단원과 고등학교 물리학Ⅱ교과서의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에서 다루는 '입자의 파동성'과 '불확정성 원리'에서 배운 보어 모형에 적용하는 사고력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구심력에 의한 등속 원운동을 이해하여 궤적을 구할 수 있다. 보어의 가설에 따라 물질파 개념을 도입하면 궤도 반지름이 불연속적임을 알아낼 수 있으며, 에너지 준위들을 전이하며 빛이 발생함을 이해하여, 문제에서 요구한 빛의 파장 비를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다루는 등속 원운동, 보어의 원자 모형 등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Ⅲ-(1)	<2점> 입자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하였다. <3점> 각 입자의 궤도 반지름을 주어진 변수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보였다. <5점> 보어의 가설에 따라 궤도 반지름이 불연속적임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10	16
논제 Ⅲ-(2)	<3점> 각 입자의 양자화 된 에너지를 올바르게 보였다. <3점> 문제에서 요구한 빛의 파장의 비를 올바르게 보였다.	6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물체 A는 문제의 조건에서 줄에 의해 궤도 반지름이 $r_{\mathrm{A}} = l_{\mathrm{A}}$로 고정된다.

물체 B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 작용한다. 용수철이 늘어나 궤도 반지름이 r_{B}가 되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_{\mathrm{B}} = k_{\mathrm{B}}(r_{\mathrm{B}} - l_{\mathrm{B}})$, 구심력은 $F_r = \frac{mv_{\mathrm{B}}^2}{r_{\mathrm{B}}}$이다. $F_r = F_B$임을 이용하면 $k_{\mathrm{B}}(r_{\mathrm{B}} - l_{\mathrm{B}}) = \frac{mv_{\mathrm{B}}^2}{r_{\mathrm{B}}}$이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풀면 $r_{\mathrm{B}} = \frac{l_{\mathrm{B}}}{2} + \sqrt{\frac{mv_{\mathrm{B}}^2}{k_B} + \frac{l_{\mathrm{B}}^2}{4}}$ 을 얻는다. (단,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는 양의 부호만 선택함)

물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_{\mathrm{C}} = \frac{kq^2}{r_{\mathrm{C}}^2}$이다. 구심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frac{mv_C^2}{r_C}=\frac{kq^2}{r_C^2}$ 이고, $r_C=\frac{kq^2}{mv_C^2}$ 이다.

보어의 가설에 따라 운동량 p인 입자의 물질파가 반지름 r인 궤도에 대해, $2\pi r=n\lambda=n\frac{h}{p}=\frac{2\pi n\hbar}{p}$ 을 만족해야 하므로, $p=\frac{n\hbar}{r}$ 이고, 이때 $n=1,2,3,\cdots$이다.

물체 A의 궤도 반지름 r_A는 l_A로 주어졌으므로,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한다.

물체 B의 궤도 반지름을 구하자. $k(r_B-l_B)=\frac{mv^2}{r_B}=\frac{p_B^2}{mr_B}=\frac{n^2\hbar^2}{mr_B^3}$ 이다. 식을 정리하면, $\frac{1}{r_B^3}=\frac{mk_B}{n^2\hbar^2}(r_B-l_B)$를 얻는다. 여기에서 좌변의 $\frac{1}{r_B^3}$곡선과 우변의 $\frac{mk_B}{n^2\hbar^2}(r_B-l_B)$직선은 $r_B>0$ 영역에서 한 점에서 서로 만나고, 이 점은 n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 점의 가로축 좌표값이 궤도 반지름 r_B에 해당한다. 따라서 궤도 반지름이 연속적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체 C의 궤도 반지름은 $\frac{kq^2}{r_C^2}=\frac{mv_C^2}{r_C}=\frac{p_C^2}{mr_C}=\frac{n^2\hbar^2}{mr_C^3}$ 임을 이용하면, $r_C=\frac{n^2\hbar^2}{mkq^2}$ 로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으로 주어져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한다.

(2) A와 C는 에너지 준위를 전이하며 빛을 내며, 이때 빛의 에너지와 파장은 $E=h\nu=\frac{hc}{\lambda}$의 관계를 만족한다. A의 에너지는 $E_A=\frac{1}{2}mv_A^2=\frac{p_A^2}{2m}=\frac{\hbar^2}{2ml_A^2}n^2$ 이고, C의 에너지는 $E_C=-\frac{mk^2q^4}{2\hbar^2}\frac{1}{n^2}$ 이므로, A와 C에 대해 $n=2$상태에서 $n=1$상태의 에너지 차이는 각각, $E_{A,2\to1}=\frac{\hbar^2}{2ml_A^2}(2^2-1^2)=\frac{3\hbar^2}{2ml_A^2}$와 $E_{C,2\to1}=-\frac{mk^2q^4}{2\hbar^2}\left(\frac{1}{2^2}-\frac{1}{1^2}\right)=\frac{3mk^2q^4}{8\hbar^2}$ 을 얻는다. 각 입자에 대해 첫 번째 들뜬 상태($n=2$)와 바닥 상태($n=1$)를 전이할 때 발생하는 빛의 파장이 같다 하였으므로, $E_{A,2\to1}=E_{C,2\to1}$이다. 이를 $E_{2\to1}$이라고 하자.

$n=3$ 상태에서 $n=2$상태로 전이하며 발생하는 빛의 에너지를 $E_{2\to1}$에 대해 정리하면,

$E_{A,3\to2}=\frac{\hbar^2}{2ml_A^2}(3^2-2^2)=\frac{5\hbar^2}{2ml_A^2}=\frac{5}{3}E_{2\to1}$

$E_{C,3\to2}=-\frac{mk^2q^4}{2\hbar^2}\left(\frac{1}{3^2}-\frac{1}{2^2}\right)=\frac{5mk^2q^4}{72\hbar^2}=\frac{5}{27}E_{2\to1}$ 이다.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임을 이용하여 파장의 비율을 구하면,

$\lambda_A:\lambda_C=E_{C,3\to2}:E_{A,3\to2}=1:9$를 얻는다. 즉 C의 파장이 A에 비해 9배 길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Ⅲ]은 물리학Ⅱ의 '역학적 상호 작용' 단원에서 다루는 등속 원운동과 구심력,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의 빛의 이중성과 물질파 이론, 물리학Ⅰ의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에서 다루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평가하도록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마]와 [논제 Ⅲ]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12물리Ⅰ02-01]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2-02]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3-06]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05]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3-08]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도를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1)번 문항은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가 받는 구심력으로부터 궤도 반지름을 유도한 뒤, 해당 관계식을 해석하여 궤도 반지름이 불연속적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2)번 문항에서는 제시문에 제시된 보어의 가설과 물질파의 파장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장의 비를 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과 제시문에 포함된 모든 개념과 원리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며,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논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수식이 모두 제시문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채점기준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시되었다. 구심력, 궤도 반지름, 보어의 가설, 빛의 에너지와 파장 등 채점기준에서 요구하는 물리 개념과 원리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제시문에 포함된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이해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므로,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학생이라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약학계열 물리학 [논제 Ⅲ]은 문항, 제시문, 채점기준이 모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여러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우수한 문항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의약학계열 지원자라면 제시문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물리학 Ⅳ)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물리학Ⅰ, 물리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전자기 유도, 전기 에너지
예상 소요 시간	3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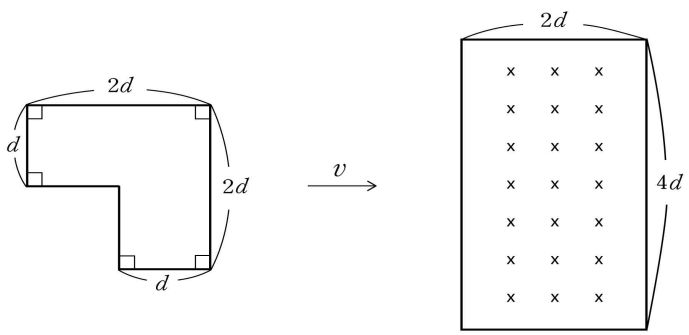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바] 저항 R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전위차는 $V=IR$이며, 시간당 전원이 한 일은 $P=VI=I^2R=\frac{V^2}{R}$ 이다.

[사] 임의의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자기 선속이라고 한다. 자기장의 세기가 B, 단면적이 A일 때 자기 선속은 $\Phi=BA$이다. 시간 Δt 동안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Delta\Phi$일 때 유도 기전력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며 $V=-\frac{\Delta\Phi}{\Delta t}$이다.

[논제 Ⅳ] 제시문 [바],[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2>

<그림 2>와 같이 ㄱ자 모양의 도선 고리, 그리고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이 있다. 도선 고리는 일정한 속도 v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자기장을 통과한다. 도선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과 처음 만나는 시간은 $t=0$ 이다. 도선

고리가 자기장을 지나는 동안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라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 단, 도선 고리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효과는 무시한다.

(1) 시간에 따른 유도 기전력의 변화를 $t>0$ 에 대해 도선 고리의 위치 변화를 고려해서 설명하시오. 단,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유도 기전력이 0보다 큰 것으로 정의한다. (10점)
(2) $t=0$ 에서 $t=0.1$초까지 도선의 저항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지가 36J일 때 속도 v를 구하시오. $B=1\mathrm{T}$, $d=1\mathrm{m}$, 도선 고리의 저항 $R=10\Omega$이다. (14점)

3. 출제 의도

[논제 Ⅳ]에서는 옴의 법칙, 소비 전력 및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해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기본 법칙으로부터 도출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한 후 답을 구하되 물리적 조건이 요구하는 대소관계를 확인하여 답의 유일성을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바]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2)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사]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2)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Ⅱ02-07]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서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하위문항	논제 Ⅳ-1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2)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Ⅱ02-07]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서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논제 Ⅳ-2	(과목명) 물리학Ⅱ (대영역) (2) 전자기장 (성취기준)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학 Ⅱ	강남화 외 5인	천재교육	2024	99, 131
	물리학 Ⅱ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24	112-113, 138-141
	물리학 Ⅱ	손정우 외 5인	비상교육	2025	98, 125
	물리학 Ⅱ	김성원 외 5인	지학사	2025	114, 143-148
	물리학 Ⅱ	김성진 외 6인	미래엔	2025	110, 137-139
기타					

5.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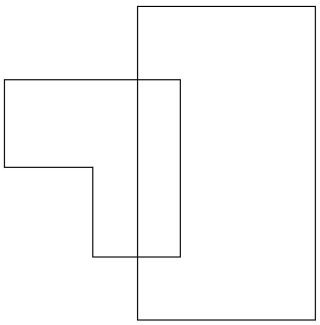
[논제 Ⅳ]에서는 물리학Ⅱ 교과서의 전자기장 단원에서 다루는 저항에 의한 '전기 에너지의 소모' 및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1)에 대해서는 자기장 영역을 도선 고리가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대적 위치를 분류하면 각각에 대한 자기 선속의 변화율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문항 (2)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있는 패러데이 법칙 공식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유도 기전력의 관계를 알아내고 연관된 이차방정식을 풀면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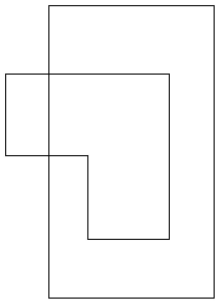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Ⅳ-(1)	<5점> 자기장 영역에 대한 도선 고리의 상대적 위치를 분류하여 유도 기전력이 다른 값을 가지는 5가지 경우가 있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명확히 서술한다. <5점> 각각의 경우에 대해 시간의 구간 및 유도 기전력을 부호를 포함해 구한다.	10	24
논제 Ⅳ-(2)	<5점> 5가지 시간 구간에 대해 전기 에너지 소모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 <5점> 문제의 조건을 대입해서 속도의 값을 구한다. <4점> 물리적 조건을 고려해서 답의 유일성을 논증한다.	1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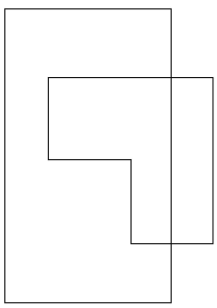
(1) 고리가 자기장 영역을 지나가는 동안 위치를 그림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자기 선속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모두 고려하면 $V_1 = -2dvB$, $V_2 = -dvB$, $V_3 = 2dvB$, $V_4 = dvB$, $V_5 = 0$ 가 되고 각각 해당하는 시간의 범위는 $0 < t < d/v$, $d/v < t < 2d/v$, $2d/v < t < 3d/v$, $3d/v < t < 4d/v$, $t > 4d/v$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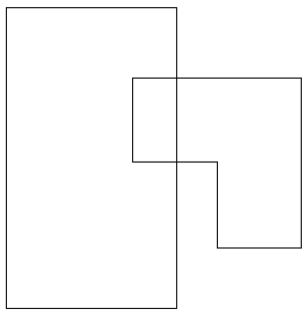
0 < t < d/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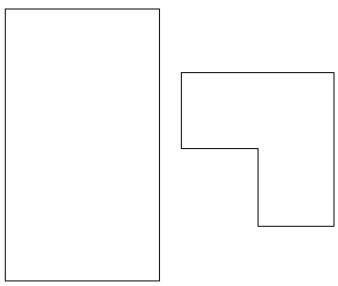
d/v < t < 2d/v



2d/v < t < 3d/v



3d/v < t < 4d/v



4d/v < t

(2) 시간 t 까지의 전기 에너지의 소모량을 $Q(t)$라고 하자. $Q(t)$는 $P=V^2/R$ 에 전류가 흐른 시간을 곱한 값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Q(t)$는 유도 기전력의 부호와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주어진 v값에 대해 $Q(t)$는 고리가 자기장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t=4d/v$ 에서 최대가 되며 이후 일정하다. 고리의 위치에 따라 선속의 변화율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i) $0<t<d/v$ 일 때 $Q(t)=\dfrac{4d^2v^2B^2}{R}t$

(ii) $d/v \le t<2d/v$ 일 때 $Q(t)=\dfrac{4d^3vB^2}{R}+\dfrac{d^2v^2B^2}{R}(t-d/v)$

(iii) $2d/v \le t < 3d/v$ 일 때 $Q(t) = \frac{5d^3vB^2}{R} + \frac{4d^2v^2B^2}{R}(t-2d/v)$

(iv) $3d/v \le t < 4d/v$ 일 때 $Q(t) = \frac{9d^3vB^2}{R} + \frac{d^2v^2B^2}{R}(t-3d/v)$

(v) $t \ge 4d/v$ 일 때 $Q(t) = \frac{10d^3vB^2}{R}$

$Q(t)$의 최댓값인 $\frac{10d^3vB^2}{R}$ 가 36J 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 0.1s는 $4d/v$와 같거나 그 이후여야 하므로 $0.1 \ge 4d/v$ 즉 $v \ge 40\text{m/s}$ 여야 한다. 하지만 $\frac{10d^3vB^2}{R} = 36$ 로부터 $v = 36\text{m/s}$ 이므로 모순이다. 이제 t=0.1s 가 $3d/v \le t < 4d/v$ 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Q(t) = \frac{9d^3vB^2}{R} + \frac{d^2v^2B^2}{R}(t-3d/v)$ 를 사용하며 Q(t=0.1)=36를 간단히 하면 $v^2 + 60v - 3600 = 0$ 이다. v는 양수이므로 $v = 30(\sqrt{5}-1)\text{m/s}$이다. 또한 이 값은 $3d/v = (\sqrt{5}+1)/40 < t = 0.1 < 4d/v = (\sqrt{5}+1)/30$를 만족하므로 답이 된다. 이제 $t = 0.1 < 3d/v$ 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Q(t=0.1) = 36 < 9d^3vB^2/R$ 이어야 한다. $0.1 < 3d/v$에서 $v < 30\text{m/s}$ 를 얻고, $36 < 9d^3vB^2/R$에서 $v > 40\text{m/s}$ 를 얻으므로 두 조건은 서로 모순이다. 따라서 답은 $v = 30(\sqrt{5}-1)\text{m/s}$ 하나만 가능하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Ⅳ]은 물리학Ⅱ의 '전자기장' 단원에서 다루는 전기 에너지, 자기선속, 유도 기전력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관계식을 유도하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물리량을 구하는 과정을 평가하도록 출제되었다. 제시문 [바]~[사]와 [논제 Ⅳ]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12물리Ⅱ02-03]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와 '[12물리Ⅱ02-07]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서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1)번 문항은 고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ㄱ자 모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유도 기전력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2)번 문항에서는 제시문에 제시된 공식을 활용하여 구간별 전기 에너지 소모량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 속도를 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과 제시문에 포함된 모든 개념과 원리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며,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논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수식이 모두 제시문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채점기준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다. 유도 기전력, 전기 에너지, 자기선속, 등속 운동 등 채점기준에서 요구하는 물리 개념과 원리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제시문에 포함된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이해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한 적절한 수준이다. 논제의 요구 사항이 명확하므로,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학생이라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약학계열 물리학 [논제 Ⅳ]은 고등학교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며, 제시문, 채점기준, 예시 답안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다. 전기 에너지와 유도 기전력의 개념을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리량을 수식으로 유도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의약학계열 지원자라면 제시문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화학 Ⅲ)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Ⅰ, 화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광합성, 반응엔탈피, 결합에너지, 열화학 반응식
예상 소요 시간	2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식물은 광합성으로 이산화 탄소와 물로부터 산소와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한다.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이산화 탄소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광합성과 세포 호흡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광합성 $6CO_2(g) + 6H_2O(g) \xrightarrow[\text{엽록체}]{\text{태양광}} C_6H_{12}O_6(s) + 6O_2(g)$

세포 호흡 $C_6H_{12}O_6(s) + 6O_2(g) \longrightarrow 6CO_2(g) + 6H_2O(g)$

[나] 지난 200여 년간 인류는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얻었다. 화석연료는 한정되어 있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 등 온실 기체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 탄소를 화학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공 광합성 기술로는 금속 촉매를 이용해 고온 조건에서 이산화 탄소로부터 액체 연료인 메탄올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연소 반응을 통해 메탄올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인공 광합성과 메탄올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인공 광합성 $2CO_2(g) + 4H_2O(g) \xrightarrow[\text{금속 촉매}]{\text{고온}} 2CH_3OH(l) + 3O_2(g)$

메탄올 연소 반응 $2CH_3OH(l) + 3O_2(g) \longrightarrow 2CO_2(g) + 4H_2O(g)$

[다] 물질은 원자의 조성이나 화학 결합으로 화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엔탈피(H)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엔탈피가 변하게 되

면 그 차이만큼을 열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것을 반응엔탈피(ΔH)라고 한다.

[라] 일정 압력의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변화인 반응엔탈피를 화학 반응식에 함께 나타낸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원자들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엔탈피는 결합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반응을 예로 들어보면,

$aA + bB \rightarrow cC + dD$ (단, a~d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이다.)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v)는 반응물 **A**와 **B**의 농도에 의존하므로 비례 상수 k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 k[A]^m[B]^n$$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반응 속도식 또는 반응 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반응 속도식에서 비례 상수 k는 반응 속도 상수로 반응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m과 n은 각각 **A**와 **B**의 반응 차수이고, $m + n$은 전체 반응 차수이며, 화학 반응식의 계수와 관계가 없고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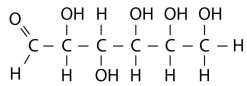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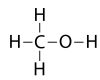
[바] 화학 반응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몰 농도(M)를 특정하여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화학 반응 A(g) → B(g)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물 **A** 또는 생성물 **B**의 농도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v = -\Delta[A]/\Delta t = \Delta[B]/\Delta t$ (Δ[A]와 Δ[B]: **A**와 **B**의 농도 변화, Δt: t_2-t_1)이며 이러한 반응 속도를 t_2와 t_1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한다. 평균 반응 속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Δt)이 거의 0이 될 정도로 작으면 평균 반응 속도는 특정한 시간 t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가 되고,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순간 반응 속도를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한다. 한편, 반응물 **A**의 초기 농도가 절반으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t_{1/2}$)을 반감기라고 한다.

[사]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E_a)라고 한다.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달라지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이러한 촉매는 반응엔탈피의 변화 없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정촉매) 높여서(부촉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모두 빨라지게 하거나 느려지게 할 뿐 화학 평형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촉매를 사용해도 평형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촉매 중의 하나가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과 같은 고체 상태의 촉매이다.

[논제 Ⅲ]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1) 제시문의 식물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을 각각 완성하고 두 가지 에너지원의

단위 탄소당 에너지 저장의 효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점)

원자 사이의 평균 결합 에너지(단위 kJ/mol)		포도당 분자 구조	메탄올
C-H	410		
C-C	350		
C-O	350		
C=O	732		
O-H	460		
O=O	498		

(2) 제시문의 식물 광합성과 비교하여 인공 광합성을 에너지 저장의 효율, 에너지 저장원의 특성, 반응 조건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 또는 단점을 논술하시오. (8점)

[논제 IV] 제시문 [마]~[사]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오산화 이질소(N_2O_5)는 다음과 같이 이산화 질소(NO_2)와 산소(O_2)로 분해된다.

$$2N_2O_5(g) \rightarrow 4NO_2(g) + O_2(g)$$

여러 온도와 반응 조건에서 N_2O_5의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온도(℃)	금속 촉매	N_2O_5의 초기 농도(M)	초기 반응 속도(M/s)
1	25	X	0.10	4.0×10^{-4}
2	25	X	0.20	8.0×10^{-4}
3	35	X	0.10	8.0×10^{-4}
4	45	X	0.10	1.6×10^{-3}
5	45	O	0.10	3.2×10^{-2}
6	45	O	0.20	3.2×10^{-2}

(1) 실험 1~4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 4의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하시오. 또한, 실험 4~6의 결과를 이용하여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5점)

(2) 실험 1에서 N_2O_5의 반감기($t_{1/2}$)는 173초이다. 실험 2에서 N_2O_5 초기 농도의 87.5 %가 분해될 때까지 걸린 시간(초)을 계산하고, 생성되는 NO_2와 O_2의 양을 각각 논술하시오. (9점)

3. 출제 의도

[논제 Ⅲ]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I의 화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12화학 I 01-01), 탄소 화합물(12화학 I 01-02), 분자의 구조(12화학 I 03-06, 07),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12화학 I 04-06) 그리고 화학 Ⅱ의 분자 간 상호작용(12화학 II 01-04), 열화학 반응식과 결합 에너지(12화학 II 02-01, 02), 촉매와 효소(12화학 II 03-08)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고 이를 생명 현상과 최신 과학 기술에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화합물인 메탄올과 광합성 반응을 제시하였고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 실용적인 응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개]	(과목명) 화학 I (대영역) (1) 화학의 첫걸음 (성취기준) [12화학 I 01-01]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화학 I 01-02] 탄소 화합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대영역) (3)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성취기준) [12화학 I 03-06]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화학 I 03-07]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내]	(과목명) 화학 I (대영역) (1) 화학의 첫걸음 (성취기준) [12화학 I 01-01]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화학 I 01-02] 탄소 화합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대영역) (3)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성취기준) [12화학 I 03-06]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영역별 내용		
		[12화학Ⅰ03-07]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대]	(과목명) 화학Ⅰ (대영역) (4) 역동적인 화학 반응 (성취기준) [12화학Ⅰ04-06]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2)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성취기준) [12화학Ⅱ02-01] 열화학 반응식을 엔탈피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라]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2)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성취기준) [12화학Ⅱ02-01] 열화학 반응식을 엔탈피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12화학Ⅱ02-02]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헤스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하위문항	논제 Ⅱ-1	(과목명) 화학Ⅰ (대영역) (3)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성취기준) [12화학Ⅰ03-06]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화학Ⅰ03-07]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대영역) (4) 역동적인 화학 반응 (성취기준) [12화학Ⅰ04-06]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2)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성취기준) [12화학Ⅱ02-01] 열화학 반응식을 엔탈피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12화학Ⅱ02-02]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헤스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논제 Ⅱ-2	(과목명) 화학Ⅰ (대영역) (1) 화학의 첫걸음 (성취기준) [12화학Ⅰ01-01]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화학Ⅰ01-02] 탄소 화합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영역별 내용		
		(대영역) (4) 역동적인 화학 반응 (성취기준) [12화학Ⅰ04-06]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2)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성취기준) [12화학Ⅱ02-01] 열화학 반응식을 엔탈피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Ⅰ	장낙한 외	상상아카데미	2023	22-27, 192-197
	화학 Ⅰ	박종석 외	비상	2024	17-22
	화학 Ⅰ	하윤경 외	금성출판사	2024	17-25
	화학 Ⅱ	장낙한 외	상상아카데미	2023	83-102
	화학 Ⅱ	박종석 외	비상	2024	149-153
	화학 Ⅱ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22	79-85

5. 문항 해설

[논제 Ⅲ]에서는 열화학 반응식, 결합 에너지, 화합물의 분자구조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고 이를 생명현상과 최신 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1) 문항은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 세포 호흡, 메탄올 연소반응의 반응식과 결합 에너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열화학 반응식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분자식을 기반으로 에너지원의 탄소 당 에너지 저장 효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2) 문항은 반응엔탈피, 탄소 화합물의 특성, 촉매와 효소 반응에 대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하여 논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Ⅲ-(1)	<4점> 제시문에 근거하여 식물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을 추론하고 비교·해석함 <4점> 식물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을 비교하여 에너지원의 단위 탄소 당 에너지 저장 효율을 논함	8	16
논제 Ⅲ-(2)	<2점> 에너지 저장 효율 측면에서 장점 또는 단점을 논함 <3점> 에너지 저장원의 특성 측면에서 장점 또는 단점을 논함 <3점> 반응 조건 측면에서 장점 또는 단점을 논함	8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물질의 실제 상태나 구조적 차이를 단순화하여 평균 결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결합 에너지 기반 계산 방법을 통해 화학 반응의 엔탈피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평균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평균 결합 에너지 합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 특성을 고려하여 포도당과 메탄올의 상태를 단순화하고, 식물의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의 반응 엔탈피를 평균 결합 에너지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광합성의 반응엔탈피

$\Delta H_1 \approx \{12\times D(C=O)+12\times D(O-H)\}-\{7\times D(C-H)+5\times D(C-O)+5\times D(O-H)+5\times D(C-C)+1\times D(C=O)+6\times D(O=O)\} \approx 1914$ kJ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

$6CO_2(g) + 6H_2O(g) \rightarrow C_6H_{12}O_6(s) + 6O_2(g) \quad \Delta H_1 \approx 1914$ kJ

인공 광합성의 반응엔탈피

$\Delta H_2 \approx \{4\times D(C=O)+8\times D(O-H)\} - \{6\times D(C-H)+2\times D(C-O)+2\times D(O-H)+3\times D(O=O)\} \approx 1034$ kJ

인공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

$2CO_2(g) + 4H_2O(g) \rightarrow 2CH_3OH(l) + 3O_2(g) \quad \Delta H_2 \approx 1034$ kJ

이와 같이 평균 결합 에너지를 고려하여 식물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반응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세포 호흡과 메탄올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구하면 아래와 같다.

세포 호흡

$C_6H_{12}O_6(s) + 6O_2(g) \rightarrow 6CO_2(g) + 6H_2O(g) \quad \Delta H_3 \approx -1914$ kJ

메탄올 연소 반응

$2CH_3OH(l) + 3O_2(g) \rightarrow 2CO_2(g) + 4H_2O(g) \quad \Delta H_4 \approx -1034$ kJ

광합성의 에너지원인 포도당($C_6H_{12}O_6$)은 단위 탄소당 약 1914 kJ/6 ≈ 319 kJ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인공 광합성의 에너지원인 메탄올(CH_3OH)은 단위 탄소당 약 1034 kJ/2 ≈ 517 kJ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단위 탄소당 에너지 저장 효율을 비교했을 때, 인공 광합성의 결과물인 메탄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한편, 포도당과 메탄올의 물질의 상변화에 따른 에너지를 함께 고려하여 반응엔탈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효율을 논할 수도 있다).

(2) 식물의 광합성은 생체 내 효소 반응을 통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며, 이러한 과정은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인공 광합성은 고온 조건에서 금속 촉매 반응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메탄올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한다.

• 에너지 저장의 효율 측면

문항 (1)에 근거하여 인공 광합성의 에너지 저장원인 메탄올은 단위 탄소당 에너지 저장의 효율과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포도당보다 높다.

• 에너지 저장원 특성 측면

메탄올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연료용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며,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의 원료로 사용되어 산업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메탄올은 휘발성이 높고 독성을 가지는 액체로, 생체 내 저장원으로는 안정성과 독성 문제로 인해 부적합하다. 포도당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므로 생체 내 에너지 저장원으로 적합하다.

• 반응 조건 측면

광합성은 생체 내 효소 반응을 통해 느리지만 상온·상압의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안전하게 빛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한다. 인공 광합성은 금속 촉매 반응으로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고온의 반응 조건이 필요하다. 인공 광합성은 탄소 저감 측면에서 반응 조건 개선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화학 [논제 Ⅲ]에서 제시한 문제는 고등학교 화학 I에서는 화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탄소 화합물, 분자의 구조,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고, 화학 Ⅱ에서는 분자 간 상호작용, 열화학 반응식과 결합 에너지, 촉매와 효소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논제 Ⅲ]-(1)은 분자구조, 결합에너지를 적용하여 전체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여 열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것과 함께 단위탄소당 에너지의 효율을 비교하도록 요구하였고, [논제 Ⅲ]-(2)는 에너지 효율 비교와 함께 에너지 저장원의 특성과 반응 조건 세가지 측면에 대한 장단점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수준에 도달한다면 제시문을 바탕으로 답변 서술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활용해야 할 자료로서 제시문 (가)~(라)의 내용은 모두 화학Ⅰ과 화학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부합한 내용으로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으로 자료 해석에 필요한 역량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채점 기준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과 성취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논제 Ⅲ]-(1)에서 실물 광합성과 인공 광합성의 열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과 두 가지 에너지원의 단위 탄소당 에너지 저장의 효율에 대하여 논술에 대해 부분 점수를 부여한 것, [논제 Ⅲ]-(2)에서 에너지 저장 효율 측면에서 장단점을 서술, 에너지 저장원의 특성 측면에서 장단점 서술, 반응조건 측면에서 장단점 서술로 나누어 부분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제시문이 교과서 기본의 내용이고 분량이 적어 이를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답안 작성에 주어진 시간(25분)과 작성 분량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화학 Ⅳ)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화학반응,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 촉매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마]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반응을 예로 들어보면,

$$aA + bB \rightarrow cC + dD$$ (단, a~d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이다.)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v)는 반응물 **A**와 **B**의 농도에 의존하므로 비례 상수 k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 k[A]^m[B]^n$$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반응 속도식 또는 반응 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반응 속도식에서 비례 상수 k는 반응 속도 상수로 반응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m과 n은 각각 **A**와 **B**의 반응 차수이고, $m + n$은 전체 반응 차수이며, 화학 반응식의 계수와 관계가 없고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다.

[바] 화학 반응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몰 농도(M)를 특정하여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화학 반응 A(g) → B(g)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물 **A** 또는 생성물 **B**의 농도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v = -\Delta[A]/\Delta t = \Delta[B]/\Delta t$ (Δ[A]와 Δ[B]: **A**와 **B**의 농도 변화, Δt: t_2-t_1)이며 이러한 반응 속도를 t_2와 t_1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한다. 평균 반응 속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Δt)이 거의 0이 될 정도로 작으면 평균 반응 속도는 특정한 시간 t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가 되고,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순간 반응 속도를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한다. 한편, 반응물 **A**의 초기 농도가 절반으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t_{1/2}$)을 반감기라고 한다.

[사]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E_a)라고 한다.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달라지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이러한 촉매는 반응엔탈피의 변화 없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정촉매) 높여서(부촉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모두 빨라지게 하거나 느려지게 할 뿐 화학 평형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촉매를 사용해도 평형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촉매 중의 하나가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과 같은 고체 상태의 촉매이다.

[논제 IV] 제시문 [마]~[사]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오산화 이질소(N_2O_5)는 다음과 같이 이산화 질소(NO_2)와 산소(O_2)로 분해된다.

$$2N_2O_5(g) \rightarrow 4NO_2(g) + O_2(g)$$

여러 온도와 반응 조건에서 N_2O_5의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온도(℃)	금속 촉매	N_2O_5의 초기 농도(M)	초기 반응 속도(M/s)
1	25	X	0.10	4.0×10^{-4}
2	25	X	0.20	8.0×10^{-4}
3	35	X	0.10	8.0×10^{-4}
4	45	X	0.10	1.6×10^{-3}
5	45	O	0.10	3.2×10^{-2}
6	45	O	0.20	3.2×10^{-2}

(1) 실험 1~4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 4의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하시오. 또한, 실험 4~6의 결과를 이용하여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5점)

(2) 실험 1에서 N_2O_5의 반감기($t_{1/2}$)는 173초이다. 실험 2에서 N_2O_5 초기 농도의 87.5 %가 분해될 때까지 걸린 시간(초)을 계산하고, 생성되는 NO_2와 O_2의 양을 각각 논술하시오. (9점)

3. 출제 의도

[논제 IV]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학 II의 내용 체계 중에서 물질의 변화(영역)-화학 반응(핵심 개념)-물질이 변화하는 속도는 화학 반응마다 다르다(일반화된 지식)-반응 속도식/반감기/활성화 에너지(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며, 또한 화학 II의 내용 체계 중에서, 물질의 변화(영역)-화학 반응(핵심 개념)-화학과 우리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일반화된 지식)-촉매(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촉매가 반응 속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오산화 이질소(N_2O_5)의 분해 반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을 평가하였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매]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물질의 변화 (성취기준) [12화학Ⅱ03-01] 화학 반응의 속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화학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12화학Ⅱ03-02] 자료 해석을 통하여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 있다.
	[배]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물질의 변화 (성취기준) [12화학Ⅱ03-01] 화학 반응의 속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화학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12화학Ⅱ03-03] 1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
	[새]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물질의 변화 (성취기준) [12화학Ⅱ03-07] 촉매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12화학Ⅱ03-08] 촉매가 생명 현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하위문항	논제 Ⅳ-1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물질의 변화 (성취기준) [12화학Ⅱ03-01] 화학 반응의 속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화학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12화학Ⅱ03-02] 자료 해석을 통하여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 있다. [12화학Ⅱ03-07] 촉매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논제 Ⅳ-2	(과목명) 화학Ⅱ (대영역) 물질의 변화 (성취기준) [12화학Ⅱ03-01] 화학 반응의 속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화학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12화학Ⅱ03-02] 자료 해석을 통하여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 있다. [12화학Ⅱ03-03] 1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Ⅱ	이상권 외 7인	㈜지학사	2023	139-145, 150-153, 167
	화학 Ⅱ	노태희 외 6인	㈜천재교육	2023	137-146, 148-150, 170
	화학 Ⅱ	박종석 외 7인	㈜비상교육	2023	119-125, 127-128, 149
	화학 Ⅱ	홍훈기 외 6인	㈜교학사	2023	131-143, 159-163
	화학 Ⅱ	최미화 외 5인	㈜미래엔	2023	136-149, 158-164

5. 문항 해설

[논제 Ⅳ]에서는 반응 속도식,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에 근거하여 촉매가 반응 속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오산화 이질소(N_2O_5)의 분해 반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을 평가하였다.

(1) 문항은 여러 반응 조건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1차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반응 속도를 기반으로 촉매 반응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논할 수 있다.
(2) 문항은 1차 반응의 특성과 반감기에 대한 과학적 이해력을 기반으로 반응 시간을 계산하고 생성물의 양을 논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Ⅳ-(1)	<5점> 반응속도상수 k를 구함 <5점> 실험 4와 5의 결과를 비교하여 금속 촉매 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를 논함 <5점> 실험 5와 6의 결과를 비교하여 금속 촉매 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를 논함	15	24
논제 Ⅳ-(2)	<3점> 초기 농도의 87.5 %가 분해될 때까지 걸린 시간(초)을 계산함 <6점> 생성되는 NO_2와 O_2의 양을 논함	9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N_2O_5 분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v = k[N_2O_5]^m$이다.

실험 1과 2의 초기 반응 속도에서

속도$_2$/속도$_1$ = (8.0 × 10^{-4} M/s) / (4.0 × 10^{-4} M/s) = $k[0.20\,M]^m / k[0.10\,M]^m$ = $[2]^m$ = 2

따라서 m = 1인 1차 반응이다. 따라서 반응 속도식은 $v = k[N_2O_5]$이다.

따라서 위에서 도출한 반응 속도식 $v = k[N_2O_5]$에 실험 4(45 ℃)의 초기 반응 속도의 값을 대입하면, 45 ℃에서 N_2O_5의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할 수 있다.
1.6×10^{-3} M/s = k[0.1 M] 이므로, k = 1.6×10^{-3} (M/s)/ 0.1 (M) = 1.6×10^{-2}/s이다.

한편,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실험 4와 비교하여 실험 5에서는 N_2O_5 분자가 금속 촉매 표면에 흡착되면 분자 내 질소와 산소의 결합이 약화되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정촉매로 작용) 쉽게 분해되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되었다.
한편, 동일한 금속 촉매 반응인 실험 5와 6에서는 N_2O_5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켜도 일정한 속도로 반응이 진행되었다. 이는 금속의 제한적인 표면이 N_2O_5로 포화될 경우, N_2O_5의 농도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초기 반응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2) 제시문 [바]의 반감기는 1차 반응의 경우에 초기 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N_2O_5 초기 농도의 87.5 %가 분해된 것은, 이의 초기 농도가 12.5 %(즉, 초기 농도의 1/8)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감기를 3번 $[(1/2)^3 = 1/8]$ 지난 것이다.
<u>따라서 걸린 시간은 173초 × 3 = 519초이다.</u>

한편, 반응 용기를 V L로 가정하면 N_2O_5의 초기 농도가 0.2 M (mol/L)이고, (mol/L) × L = mol 계산식에 근거하여 N_2O_5는 초기에 (0.2 mol/L) × V L = (0.2 × V) mol이 존재한다. 87.5 %가 분해되고 남은 N_2O_5의 농도는 0.2 M-(0.2 × 0.875) M = 0.025 M (mol/L)이고, 따라서 V L의 반응 용기에 남아 있는 N_2O_5의 양은 (0.025 mol/L) × V L = (0.025 × V) mol이다. 따라서 분해된 N_2O_5의 양은 $\triangle N_2O_5$ = (0.2 × V) mol - (0.025 × V) mol = (0.175 × V) mol이다.

제시문 [마]의 화학 반응식 $2N_2O_5(g) \rightarrow 4NO_2(g) + O_2(g)$에서 2:4:1의 계수비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NO_2과 O_2의 양(mol)을 각각 계산하면,
NO_2의 양은 $\triangle N_2O_5$ × 2 = (0.35× V) mol 이고,
O_2의 양은 $\triangle N_2O_5 \times \frac{1}{2}$ = (0.0875 × V) mol 이다.

즉, 실험 2에서 N_2O_5 초기 농도의 87.5%가 분해되면, 분해된 N_2O_5 몰(mol) 수의 2배 만큼 NO_2가 생성되고, $\frac{1}{2}$만큼 O_2가 생성된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화학 [논제 Ⅳ]에서 제시한 문제는 고등학교 화학 Ⅱ의 반응 속도식,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 촉매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주어진 조건에서 논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를 근거로 [논제 Ⅳ]-(1)은 제시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k구하고 금속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초기 반응 속도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논제 Ⅲ]-(2)는 실험의 반감기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반응물이 87.5%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후, 두 가지 생성물의 생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응 속도 상수(k)를 구하기, 촉매 사용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 반감기와 반응물, 생성물의 변화량 계산 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부합한 내용이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한다면 설명과 계산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활용해야 할 자료로서 제시문 (마)~(사)의 내용은 모두 화학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에 부합한 내용으로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모든 화학Ⅱ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익힌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해하고 논제에 따라 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채점 기준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과 성취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논제 Ⅳ]-(1)에서 반응 속도 상수(k)를 구하는 과정과 초기 반응 속도의 비교를 실험 4와 5의 비교, 실험 5와 6의 비교로 나누어 부분점수를 부여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다. 또한 [논제 Ⅳ]-(2)에서 반응물이 87.5%가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계산과 생성물 NO_2와 O_2의 양을 각각 계산한 것에 대해 부분점수를 부여하면서 단위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차등 점수를 둔 것은 매우 적절한 채점기준 설정으로 판단된다. 발문에서 농도의 변화와 양의 변화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의 변화를 간략하게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정을 서술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 논술시험의 변별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채점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시문은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 분량이 적어 이를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계산과정을 서술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힘든 교육과정 구성을 고려한다면 답안 작성에 주어진 시간(20분)은 답안을 작성해야 할 분량에 비해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5]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생명과학 Ⅲ)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Ⅱ
	핵심 개념 및 용어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관계, 막을 통한 물질 수송,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광계를 통한 명반응, 화학 삼투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제시문

[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물질대사를 통하여 에너지를 전환한다.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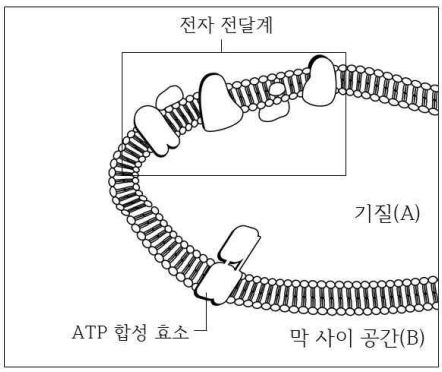
[나] 세포 호흡은 세포가 영양분으로부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세포 호흡의 과정은 ①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 ②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피루브산 산화와 TCA 회로, ③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로 이루어진다.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 전달과 화학 삼투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다.

[다] 광합성은 ① 명반응과 ② 탄소 고정 반응(암반응)의 두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명반응에서는 빛에너지가 ATP와 NADPH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때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에서 ATP가 합성되는 것은 빛에너지를 흡수한 광계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므로 세포 호흡의 산화적 인산화와 구별해 광인산화라고 한다. 탄소 고정 반응은 캘빈 회로라고도 하며,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를 환원시켜 포도당을 합성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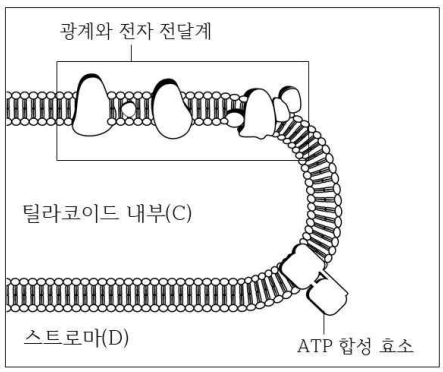
[라] 세포막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능동 수송이라고 한다. 능동 수송에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한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한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Na^+-K^+ 펌프가 ATP를 소모하면서 Na^+과 K^+을 농도 기울기에 거슬러 이동시키는 것이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이다.

[논제 III]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그림 1>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그림 2>는 광인산화가 일어나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그림 2>

(1) 미토콘드리아의 A와 B, 엽록체의 C와 D 중 H^+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각각 어디인지 제시하고, H^+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자 공급원, 최종 전자 수용체, H^+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원리와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10점)

(2) 세포의 환경이나 조건은 세포 호흡과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산소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경계로 형성된 H^+ 농도 기울기 변화, ② 이산화 탄소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와 빛이 차단되었을 때 각각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형성된 H^+ 농도 기울기 변화에 대해 논술하시오. (6점)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의·약학 계열 논술고사 생명과학 문항 III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교육과정의 대영역 '(2) 세포의 특성, (3)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학습 요소 중 '물질 수송,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사화, 광계를 통한 명반응'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논제 III-(1)은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와 엽록체의 광인산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H^+ 농도 기울기와 ATP 합성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I-(2)는 산소, 이산화 탄소, 빛이 전자 전달 과정과 H^+ 농도 기울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가]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2) 세포의 특성, (3) 세포 호흡과 광합성 (성취기준) [12생과Ⅱ02-04] 세포 소기관들이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1]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두 세포 소기관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나]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3) 세포 호흡과 광합성 (성취기준) [12생과Ⅱ03-02] 세포 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5]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대]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3) 세포 호흡과 광합성 (성취기준) [12생과Ⅱ03-02] 세포 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4] 광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5]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라]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2) 세포의 특성 (성취기준) [12생과Ⅱ02-05]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현상을 이해하고, 확산, 삼투, 능동 수송을 실험이나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위문항	논제 Ⅲ-(1)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2) 세포의 특성, (3) 세포 호흡과 광합성 (성취기준) [12생과Ⅱ02-05]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현상을 이해하고, 확산, 삼투, 능동 수송을 실험이나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1]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두 세포 소기관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2] 세포 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4] 광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

영역별 내용		
		다. [12생과Ⅱ03-05]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논제 Ⅲ-(2)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3) 세포 호흡과 광합성 (성취기준) [12생과Ⅱ03-02] 세포 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4] 광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23	42, 47, 49-50, 65-66, 69-70, 82-84, 87-89, 91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5	39, 46-47, 50-51, 73-74, 78-79, 88-89, 92-97, 101
	생명과학Ⅱ	오현선 외	미래엔	2025	46-47, 52, 54-55, 76-78, 85-86, 95-99, 102-103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3	40, 48, 50-52, 68-71, 74-75, 88, 90-91, 93-95
	생명과학Ⅱ	전상학 외	지학사	2025	42, 48, 50-51, 70-72, 75, 84-87, 90-92

5. 문항 해설

III-(1) 문항: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내부와 스트로마 사이에 H^+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전자 공급원, 최종 전자 수용체, H^+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원리를 파악하고, 형성된 H^+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I-(2) 문항: 세포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였을 때, 세포 호흡과 광합성에 일어나는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① 산소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형성된 H^+ 농도 기울기 변화, ② 이산화 탄소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와 빛이 차단되었을 때 각각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형성된 H^+ 농도 기울기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II-(1)	<1점> 미토콘드리아의 B(막 사이 공간)가 A(기질)보다 H^+ 농도가 높다.	10	16
	<1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급원은 NADH와 $FADH_2$이며,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O_2)이다.		
	<2점> 전자 공급원으로부터 전달된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며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H^+이 A(기질)에서 B(막 사이 공간)로 능동 수송되는 데에 사용된다.		
	<1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B(막 사이 공간)의 H^+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 ATP 합성 효소를 통해 A(기질)로 확산되는 화학 삼투에 의해 ATP가 합성된다.		
	<1점> 엽록체의 C(틸라코이드 내부)가 D(스트로마)보다 H^+ 농도가 높다.		
	<1점> 엽록체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한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급원은 물(H_2O)이며,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이다.		
	<2점> 틸라코이드 막의 광계에서 빛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며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H^+이 D(스트로마)에서 C(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 수송되는 데에 사용된다.		
	<1점> 엽록체에서는 C(틸라코이드 내부)의 H^+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 ATP 합성 효소를 통해 D(스트로마)로 확산되는 화학 삼투에 의해 ATP가 합성된다.		
논제 III-(2)	<2점> 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의 전자 전달이 멈추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6	
	<2점> ② 엽록체에서는 이산화 탄소가 없으면 탄소 고정 반응(암반응)이 멈추므로 NADPH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반응으로의 $NADP^+$ 공급이 줄어들어 틸라코이드 막에서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감소하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2점> 빛이 차단되면 빛에 의한 고에너지 전자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아 틸라코이드 막에서의 전자 전달이 감소하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미토콘드리아의 B(막 사이 공간)가 A(기질)보다 H^+ 농도가 높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급원은 NADH와 $FADH_2$이며,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O_2)이다. 해당 과정, 피루브산 산화와 TCA 회로를 통해 생성된 NADH와 $FADH_2$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에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한다. 이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며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H^+이 A(기질)에서 B(막 사이 공간)로 능동 수송되는 데에 사용된다.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O_2)에 전달되고, H^+과 결합하여 물(H_2O)을 생성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B(막 사이 공간)의 H^+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 ATP 합성 효소를 통해 A(기질)로 확산되는 화학 삼투에 의해 ATP가 합성된다.

엽록체의 C(틸라코이드 내부)가 D(스트로마)보다 H^+ 농도가 높다. 엽록체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한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급원은 물(H_2O)이며,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이다. 틸라코이드 막의 광계에서 빛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며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H^+이 D(스트로마)에서 C(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 수송되는 데에 사용된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 전자는 최종적으로 $NADP^+$로 전달되고, H^+과 결합하여 NADPH를 생성한다. 엽록체에서는 C(틸라코이드 내부)의 H^+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 ATP 합성 효소를 통해 D(스트로마)로 확산되는 화학 삼투에 의해 ATP가 합성된다.

(2) 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의 전자 전달이 멈추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② 엽록체에서는 이산화 탄소가 없으면 탄소 고정 반응(암반응)이 멈추므로 NADPH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반응으로의 $NADP^+$ 공급이 줄어들어 틸라코이드 막에서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감소하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빛이 차단되면 빛에 의한 고에너지 전자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아 틸라코이드 막에서의 전자 전달이 감소하므로 H^+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제시문 [가]~[라]는 모두 고등학교 생명과학Ⅱ의 영역별 내용 요소를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다.

제시문	관련 교과	관련 단원	핵심 개념	교육과정 성취 수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가]	생명과학Ⅱ	2. 세포의 특성, 3. 세포호흡과 광합성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포에서의 에너지 전환, ATP	12생과Ⅱ02-04 12생과Ⅱ03-01	준수함
[나]	생명과학Ⅱ	3. 세포호흡과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의 과정, 해당과정, 기질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TCA 회로, 화학 삼투	12생과Ⅱ03-02 12생과Ⅱ03-05	준수함
[다]	생명과학Ⅱ	3. 세포호흡과 광합성	광합성, 엽록체, 광합성의 명반응, 광합성의 암반응, 광인산화 반응, 광계	12생과Ⅱ03-02 12생과Ⅱ03-04 12생과Ⅱ03-05	준수함

[라]	생명과학Ⅱ	2. 세포의 특성	능동수송, Na^+-K^+ 펌프, 세포막의 구조, 막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12생과Ⅱ02-05 12생과Ⅱ03-01	준수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설명 혹은 그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시문 [가]~[라]의 제시문 모두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교과서 지문과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용어 역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생명과학Ⅱ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제시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가]~[라]를 읽고 답하는 [논제Ⅲ]의 논제 내용과 논제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특성, 논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개념을 분석하여 보면 표와 같다.

논제		논제 내용 분석	자료 분석	논제에서 요구하는 개념	교육과정 준수 여부
Ⅲ	(1)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과 기질 사이의 H^+ 농도 기울기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의 과정 및 ATP 합성을 전자와 이온의 이동으로 설명하기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전자 전달계 그림 내막을 경계로 한 H^+의 농도 기울기 상황,	세포호흡 과정에서의 전자 공급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의 전자 흐름, H^+의 역할, 전자와 H^+의 최종 수용체	준수함
	(2)	산소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한 H^+ 농도 기울기의 변화 및 이산화 탄소 혹은 빛이 차단되었을 대의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한 H^+ 농도 기울기		세포호흡 과정에서 산소의 역할, 광합성 암반응 과정에서 NADPH의 산화, 광합성 명반응 과정의 광인산화 과정에서의 H^+의 이동	준수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논제Ⅲ]의 논제에 제시된 그림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내막계의 비교 그림으로 생명과학Ⅱ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자료이다. [논제Ⅲ-(1)]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내부와 스트로마 사이의 H^+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전자 공급원, 최종 전자 수용체, H^+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원리를 파악하고, 형성된 H^+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다. 논제 자체가 교과서의 연습문제와 그림 자료로 자주 제공되는 내용이며, 고등학교 학력평가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특히 제시된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한 H^+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원리를 앞서 학생들이 학습하였던 세포호흡의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연관시켜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추론 능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논제Ⅲ-(2)]는 세포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였을 때, 세포호흡과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론하는 문제로, 이 논제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고등학교 학력평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H^+ 농도 기울기 변화를 이용하여 세포호흡 과정 중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의 역할 및 암반응과 명반응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논제이다. 따라서 [논제Ⅲ]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과학전 사고력에 따라 변별하기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논제의 모범 답안과 각 답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논제		채점 기준	관련 교육과정 내용영역 및 성취 수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Ⅲ	(1)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 사이 공간 및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내부와 스트로마의 H^+ 농도 비교하였는가?	[12생과Ⅱ03-01]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두 세포 소기관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	준수함

논제		채점 기준	관련 교육과정 내용영역 및 성취 수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 공급원과 최종 전자 수용체 및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한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 공급원과 최종 전자 수용체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설명하였는가?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며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H^+이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 원리 및 H^+농도 기울기를 따라 APT 합성효소를 통해 H^+이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 원리 비교하고 설명하였는가?	다. [12생과Ⅱ03-02] 세포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4] 광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3-05]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산화 탄소와 빛이 각각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H^+농도 기울기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는가?		준수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논제Ⅲ]에서 요구하는 답은 교과서 연습문제나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채점 기준은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 및 학습 개념에 부합하며, 예시 답안 역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술되어 있다. [Ⅲ-(1)]의 경우,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광인산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H^+의 공급원과 이동 방향 및 이동 원리를 핵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수준에 따라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Ⅲ-(2)]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광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과 같은 핵심 개념을 이용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광합성 혹은 세포호흡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였는가에 따라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논제Ⅲ]의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역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으로, 학생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제시된 자료와 연결하여 답을 작성하기에 적당하다.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성적을 가졌음을 생각해 볼 때, 응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 문항 Ⅲ]의 자료와 논제, 채점 기준 모두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6]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약학)계열 / (생명과학 Ⅳ)문항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상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 유전적 평형,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진화의 원리, 유전적 부동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제시문

[마]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쌍을 이루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하나씩 나뉘어 들어간다.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 수정이 일어나면 대립유전자가 다시 쌍을 이룬다.

[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르는 멘델 집단은 대립유전자 빈도가 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유전적 평형을 나타낸다. 멘델 집단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② 다른 개체군과 격리되어 있어서 유전자의 이출입이 없다. ③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교배가 무작위로 일어난다. ⑤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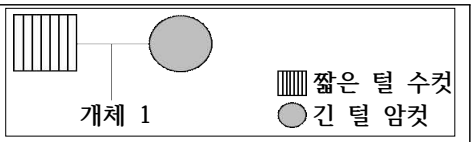
[사] 특정 시기에 한 개체군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이 지니고 있는 대립유전자 전체를 유전자풀이라고 한다. 개체군의 유전자풀에 변화를 일으켜 유전적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은 진화의 동력이 된다. 집단의 유전자풀을 변하게 하는 요인에는 자연 선택, 돌연변이,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 등이 있다.

[논제 Ⅳ] 제시문 [마]~[사]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고양이의 털 길이는 1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FGF5*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드는 *FGF5* 대립유전자 *M*은 털의 성장기를 정상적으로 종료시켜 짧은 털의 표현형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드는 *FGF5* 대립유전자 *m*은 털의 성장기를 연장시켜 긴 털의 표현형이 나타나도록 한다. 짧은 털 대립유전자(*M*)는 긴 털 대립유전자(*m*)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1) 한 지역의 고양이 집단 A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르는 유전적 평형 상태이고 대립유전자 *m*의 비율이 25%이다. <그림 3>은 집단 A의 한 가계도이다. 개체 1이 긴 털을 가질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법칙과 유전 원리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12점)

(2) 다른 지역의 고양이 집단 B는 5,000마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긴 털 개체의 빈도가 5%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형 재개발로 인해 단 20마리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살아남은 20마리 중에 긴 털 개체는 우연히 3마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이 집단(세대 I)은 4세대를 거치며 수백 마리로 증가하였다. 세대별 긴 털 개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개체의 이출입, 자연 선택, 돌연변이는 없었다. 세대 I에서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재개발 이전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4세대를 거치는 동안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변화되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12점)



<그림 3>

<표 1>

세대	전체 개체수	긴 털 개체의 빈도	빈도의 변동값
I	20	0.15	-
II	80	0.45	+0.30
III	150	0.38	-0.07
IV	250	0.41	+0.03
V	500	0.42	+0.01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의·약학 계열 논술고사 생명과학 문항 IV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의 유전과 생명과학 II의 생물의 진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논제 IV-(1)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근거하여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체의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염색체 유전 원리와 가계도 분석을 통해 개체의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V-(2)는 병목 효과에 의한 유전적 부동과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유전적 부동을 이해하고 주어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문항 및 제시문의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영역별 내용
제시문	[마]	(과목명) 생명과학 I (대영역) (4) 유전 (성취기준) [12생과 I 04-03]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바]	(과목명) 생명과학 II (대영역) (5)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성취기준) [12생과 II 05-05]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사]	(과목명) 생명과학 II

		영역별 내용
		(대영역) (5)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성취기준) [12생과Ⅱ05-05]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위문항	논제 Ⅱ-1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5)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성취기준) [12생과Ⅰ04-03]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5-05]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논제 Ⅱ-2	(과목명) 생명과학Ⅱ (대영역) (5)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성취기준) [12생과Ⅱ05-05]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Ⅰ	권혁빈 외	교학사	2023	128-137
	생명과학Ⅰ	김윤택 외	동아출판	2025	124-128, 135-137
	생명과학Ⅰ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4	122-134
	생명과학Ⅰ	심재호 외	금성출판사	2023	139-150
	생명과학Ⅰ	오현선 외	미래엔	2025	132-142
	생명과학Ⅰ	이용철 외	와이비엠	2024	132-144
	생명과학Ⅰ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5	126-129, 135-137
	생명과학Ⅰ	전상학 외	지학사	2025	120-127
	생명과학Ⅱ	권혁빈 외	교학사	2025	165-168
	생명과학Ⅱ	오현선 외	미래엔	2025	174-179
	생명과학Ⅱ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24	175-179
	생명과학Ⅱ	심규철 외	비상교육	2025	178-182
	생명과학Ⅱ	전상학 외	지학사	2025	175-179

5. 문항 해설

IV-(1) 문항: 고양이의 털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며, 우열이 명확한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예로 든 집단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라 유전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과 생명과학Ⅱ 교육과정에 포함된 단인 인자

유전, 상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의 답변을 논술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IV-(2) 문항: 유전자풀의 변화는 진화의 동력이 되며 그 주요 원인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학 II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본 문항은 병목 효과에 의한 유전적 부동과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유전적 부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예시로 주어진 현상을 적용하여 논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V-(1)	<2점> 부모 세대 암컷에 관한 서술: - 암컷은 열성 형질이므로 유전자형이 *mm*이며 반드시 대립유전자 *m*을 개체 1에게 물려 줌을 서술 <3점> 짧은 털 대립유전자의 빈도와 집단 내 유전자형 빈도 도출: - 긴 털 대립유전자 *m*의 빈도(q)는 25%[q = 0.25]이므로, (1점) - 짧은 털 대립유전자 *M*의 빈도(p)는 75%[p = 1 - q = 0.75]임을 서술 (1점) -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라 유전자형 빈도는 *MM*: *Mm*: *mm* = p^2 : 2pq : q^2임을 서술 (1점) <5점> 부모 세대 짧은 털 수컷의 유전자형 조건과 확률 서술: - 개체 1이 긴 털을 갖기 위해서는 짧은 털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이어야 함을 서술 (2점) - 짧은 털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일 확률은 '유전자형이 *Mm*인 개체의 빈도'를 '짧은 털(*MM* 또는 *Mm*) 개체의 빈도'로 나눈 값과 같기 때문에 (2점) - 0.4[= 2pq / (p^2 + 2pq) = 2q / (p + 2q) = 2 × 0.25 / (0.75 + 2 × 0.25) = 0.4]임을 서술 (1점) <2점> 개체 1이 긴 털을 가질 확률값 도출: - 유전자형이 *Mm*인 수컷이 개체 1에게 *m*을 물려줄 확률 도출이 0.5임을 서술 (1점) - 부모 세대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이고 대립유전자 *m*을 개체 1에게 전달할 확률은 0.2[= 0.4 × 0.5]임을 서술 (1점)	12	24
논제 IV-(2)	<5점> 병목 효과에 의한 유전적 부동을 서술: - 세대 I에서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로, 대형 재개발로 인하여 소수의 개체만 생존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남(2점) - 생존한 소수 개체들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원래 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병목 효과로 인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났음을 서술 (3점) <7점>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유전적 부동을 서술: - 4세대 동안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요동한 이유로, 작은 크기의 집단에서 유전적 부동이 강하게 일어남을 서술. (2점) - 개체수가 작은 집단에서는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로 대립유전자가 전달되는 비율이 우연히 달라지면서 빈도가 불규칙하게 변동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 (3점) - 세대가 거듭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표 1>과 같이 긴 털 개체 빈도의 변동 폭이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서술 (2점)	12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부모 세대 암컷은 긴 털을 가지므로 유전자형이 *mm*이며 반드시 대립유전자 *m*을 개체 1에게 물려 준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 짧은 털 수컷이 대립유전자 *m*을 물려줄 확률만 고려하면 된다. 집단 A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르는 유전적 평형 상태에 있고, 긴 털 대립유전자 *m*의 빈도(q)는 25% [q = 0.25]이다. 그러므로 짧은 털 대립유전자 *M*의 빈도(p)는 75% [p = 1 - q = 0.75]이고, 집단의 유전자형 빈도는 *MM* : *Mm* : *mm* = p^2 : 2pq : q^2이다. 개체 1이 긴 털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 짧은 털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이어야 한다. 짧은 털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일 확률은 '유전자형이 *Mm*인 개체의 빈도'를 '짧은 털(*MM* 또는 *Mm*) 개체의 빈도'로 나눈 값과 같기 때문에 0.4 [= 2pq / (p^2 + 2pq) = 2q / (p + 2q) = 2 × 0.25 / (0.75 + 2 × 0.25) = 0.4]이다. 그리고 유전자형이 *Mm*인 수컷이 개체 1에게 *m*을 물려줄 확률은 0.5이다. 따라서 부모 세대 수컷의 유전자형이 *Mm*이고 대립유전자 *m*을 개체 1에게 전달할 확률은 0.2 [= 0.4 × 0.5]이다.

(2) 세대 I에서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는 대형 재개발로 인해 5,000마리 중 단 20마리만이 살아남으면서 병목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존한 소수 개체들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원래 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났다. 즉, 생존한 개체들의 유전자풀이 우연히 달라져 긴 털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후 세대 I에서 세대 V까지 세대별로 긴 털 개체의 빈도가 요동한 이유는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적 부동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체수가 작은 집단에서는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로 대립유전자가 전달되는 비율이 우연히 달라지면서 빈도가 불규칙하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유전적 부동의 영향이 줄어들어 <표 1>과 같이 긴 털 개체 빈도의 변동 폭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B에서 관찰된 긴 털 개체의 빈도 변화는 병목 효과에 의한 유전적 부동과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유전적 부동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제시문 [마]~[사]는 모두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Ⅱ의 영역별 내용 요소를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다.

제시문	관련 교과	관련 단원	핵심 개념	교육과정 성취 수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마]	생명과학Ⅰ	4.유전	대립 유전자, 단일 인자 유전, 분리의 법칙	[12생과Ⅰ04-03]	준수함
[바]	생명과학Ⅱ	5.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멘델 집단, 대립유전자 빈도, 유전적 평형	[12생과Ⅱ05-05]	준수함
[사]	생명과학Ⅱ	5.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유전자 풀의 변화, 유전적 평형, 진화,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	[12생과Ⅱ05-05]	준수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설명 혹은 그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시문 [마]~[사]의 제시문 모두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및 생명과학Ⅱ 교과서 지문과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용어 역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생명과학Ⅰ, Ⅱ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제시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마]~[사]를 읽고 답하는 [논제Ⅳ]의 논제 내용과 논제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특성, 논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개념을 분석하여 보면 표와 같다.

논제		논제 내용 분석	자료 분석	논제에서 요구하는 개념	교육과정 준수 여부
Ⅳ	(1)	유전적 평형 상태의 집단에 속하는 한 가계도를 분석해 상염색체 유전의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대립 유전자의 빈도, 고양이 털 형질에 대한 가계도	단일 대립 유전,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관계, 가계도	준수함
	(2)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집단의 크기가 작아져 유전적 평형이 깨진 집단에서 관찰되는 유전적 부동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고양이 집단의 세대별 털 형질에 대한 빈도 및 빈도 변동값 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유전적 부동, 유전적 평형, 환경 변화에 따른 유전자	준수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논제Ⅳ]의 논제에 제시된 자료는 기본적인 가계도 및 세대에 따른 털 형질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표로 교과서나 학력평가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자료이다. 고등학교에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및 가계도 분석과 유전적 평형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대해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자료이다. [논제Ⅳ-(1)]은 제시된 가계도를 분석하여 상염색체 유전의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형질 특성 및 가계도와 기술해야 하는 답의 내용 모두 교과서의 연습문제와 그림 자료로 자주 제공되는 내용이기에 학생들

에게 매우 익숙하다. [논제Ⅳ-(2)]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 재개발'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후손 세대의 특정 유전자의 빈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하게 하는 문제로 긴 털 개체의 빈도가 변하게 된 이유를 '유전적 부동'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항이다. 얼핏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논제 자체에 여러 단서 조항을 주고, '대형 재개발'과정에서 소수의 생존이 일어났고 그 이외의 요소는 배제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유전적 부동-병목 효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단서 조항을 읽는 순간 이 상황이 유전적 부동을 나타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논제를 논리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즉, [논제Ⅳ-(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볼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제Ⅳ]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과학적 사고력에 따라 변별하기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논제의 모범 답안과 각 답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논제		채점 기준	관련 교육과정 내용영역 및 성취 수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Ⅲ	(1)	제시된 형질의 특성과 가계도를 분석해 태어날 자손이 특정 형질을 가질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 태어날 자손의 확률을 계산할 때, 부모 세대 수컷과 암컷의 유전자형 파악, 생식세포 형성과 수정을 통해 대립유전자가 분리되고 다시 쌍을 이루는 과정을 반영하였는가?	[12생과Ⅰ04-03]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5-05]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수함
	(2)	주어진 상황이 개체수가 비교적 작은 개체군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적 부동(병목 효과)임을 설명하였는가? 유전적 부동 현상을 이용하여 세대별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고 요동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12생과Ⅱ05-05]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수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논제[Ⅳ]에서 요구하는 답은 학력평가에 자주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채점 기준은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 및 학습 개념에 부합하며, 예시 답안 역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나온 모범 답안에 가깝다. [Ⅳ-(1)]의 경우, 부모 세대의 유전자형에 대한 서술, 각 대립유전자의 빈도와 집단 내 유전자형의 빈도를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이용하여 서술한 수준, 긴 털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설명한 수준에 따라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Ⅳ-(2)]의 경우, 제시된 상황이 병목 효과에 의한 유전적 부동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수준, 개체수가 작은 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유전자 빈도 변화와 유전적 부동의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수준에 따라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논제[Ⅳ-(2)]의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역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고, 각 하부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률을 계산하기에 적당하다.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성적을 가졌음을 생각해 볼 때, 응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기에 적절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 [문항Ⅳ]의 자료와 논제, 채점 기준 모두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7]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예술·체육계열 // (1~50)문항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고전문학 제외),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4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자료

1. 다음 글의 ㉠과 ㉡의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2.7점]

>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ㅅ'의 이름이다.
>
> 사이시옷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나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
①	꼭지 + 점	비 + 물
②	허리 + 띠	후 + 날
③	만두 + 국	인사 + 말
④	뒤 + 풀이	예사 + 일

2.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할 곳이 가장 많은 것은? [3점]

① 나는달린지오분만에숨이찼다.

② 이제믿을데는오직자신의실력뿐이다.

③ 이걸사려면지금당장오만원이필요해요.

④ 그들은오랜만에만나도악수는커녕눈인사도없다.

3. 다음 중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설명: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아빠를 닮았다.

② 설명: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잔에는 입술을 축이기도 부족한 물이 남아 있었다.

③ 설명: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우리도 이제 갈등에서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④ 설명: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그는 사무실에 올 때마다 꽃을 사 온다.

4. 다음 밑줄 친 음운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점]

>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① 해돋이 ② 홑이불 ③ 같이 ④ 맏이

5.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이 <보기>와 같은 것은? [2.7점]

<보기>

낳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낟는] ——'비음화'——> [난는]

① 꽃다발 ② 앞마당 ③ 닫히다 ④ 어떻게

6. 다음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할 때 단어의 표기가 적절한 것은? [2.7점]

> 제5항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① 싹뚝 ② 깍뚜기 ③ 법석 ④ 곱빼기

7. 다음 편지에서 문법 요소를 잘못 사용한 표현을 찾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민지에게
>
> 그동안 잘 지냈니?
>
> 10월 10일은 우리 학교 예술제가 ㉠시작되어지는 날이야. 예술제 준비 위원회에서 알찬 예술제를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대. 그중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퀴즈 대회'도 있어. 내가 퀴즈 풀이 좋아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참가하고 싶지만,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잖아? 선생님께 참여할 방법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
> 민지야! 네가 그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면 안 될까? 너희 할아버지도 퀴즈 프로그램 ㉣좋아하잖아? 너희 할아버지께 한번 말씀드려 줄래?

① ㉠시작되어지는 → 시작되는

② ㉡알았지? → 알지?

③ ㉢된다."라고 → 된다."고

④ ㉣좋아하잖아? → 좋아하시잖아?

8. 다음 글의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점]

>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동물들에게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

②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자연을 가꾸고 정복하라.

③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라, 불평등한 게 걱정이다.

④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문화주의란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집단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맥락에서 이들 집단이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가치관과 행동의 체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시냅스) 틈으로 방출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분의 1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라]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일 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를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다.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된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 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한옥은 통풍, 환기, 순환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이다.

9. 글의 설명 방법이 비슷한 것끼리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10. 글의 전개 방식이 다음 글과 가장 비슷한 것은? [2.7점]

>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
>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 나온 물질들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
> **[나]**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Science)』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
> **[다]**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처

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든다.

[라]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 스티렌은 나노(10억 분의 1)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 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과 같은 유기 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 한국의 남해 연안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의 유류·유해 물질 연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 ○○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인 2,000개보다 100배 넘게 많은 것이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점]

① 객관적 자료와 수치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정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대상의 여러 발생 원인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을 써서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12. 윗글을 읽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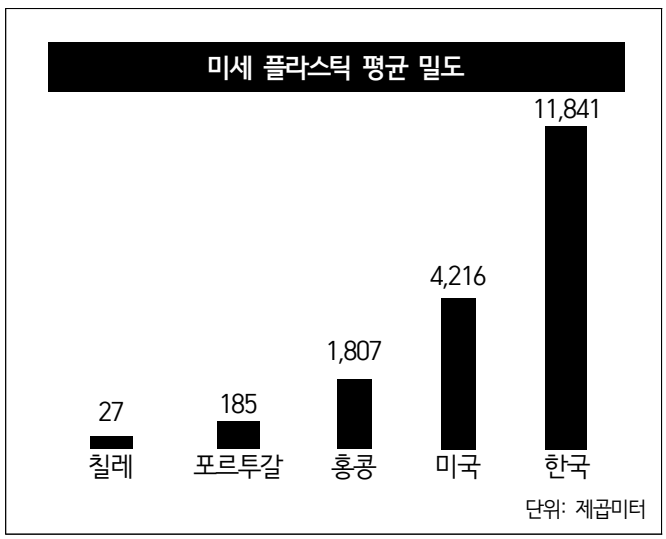
①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②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생활용품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현황

④ 미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내 환경 단체들의 활동

13. 윗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 자료가 뒤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1점]



① [나] ② [라] ③ [바] ④ [아]

1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점]

①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② 사전 예방의 원칙

③ 생명 존중의 원칙

④ 속전속결의 원칙

15. 문맥상 ㉠~㉣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응결된 ② ㉡: 여과되지

③ ㉢: 부유하는 ④ ㉣: 유입된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한다.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으며,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았다.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잔은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 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 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이란 선·면·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 점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 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의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그리고 식탁보 밑 왼쪽 탁자 면과 오른쪽 탁자 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된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 온 [ⓐ]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 세계에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킨 것이다.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드는 듯 보인다는 점도 이용하여 양감을 나타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점]

① 문답법을 이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화가의 작품 세계를 평가하고 있다.

③ 화가의 작품 세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점]

① 세잔은 대상에 지적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다.

② 세잔은 색채의 조화를 기하학적 구성보다 우선시했다.

③ 세잔이 그린 물체는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영구적인 인상을 주었다.

④ 세잔은 순간적 감각을 중시하는 인상주의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

18. ㉠~㉣ 중 다음 내용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3점]

>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 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잔은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① ㉠ ② ㉡ ③ ㉢ ④ ㉣

19. ⓐ,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
①	인간 시점	대상 물체
②	대상 물체	인간 시점
③	형태	색채
④	색채	형태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점]

①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② 명암법에 의해 감각이 더 견고해지고, 감각에 의해 명암법이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③ 윤곽선에 의해 입체감이 더 견고해지고, 입체감에 의해 윤곽선이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④ 따뜻한 색에 의해 차가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차가운 색에 의해 따뜻한 색이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계다.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된다.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에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여덟 시간 고용해 놓고 한 시간을 놀린다면, 한 시간 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점점 빨라져 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 버린 「모던 타임스」 속 찰리 채플린의 곤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속도'라는 것이 있을까? 자기 신체의 속도, 자기 영혼의 속도 같은 것이?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속도'라는 말로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

기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으로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대등한 표현을 나열하면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한다.
③ 다른 대상과 유사한 점에 빗대어 다루는 주제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④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점]

① 속도 강박은 우리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② 속도에 대한 강박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되었다.
③ 자신의 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④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었다.

23. ⓐ에 들어갈 예시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20분마다 음반을 뒤집어야 하는 엘피반(LP盤)을 듣는다.
② 기분 전환을 위해 다른 주제의 글을 쓴다.
③ 잠깐 쉬어가기 위해 차를 내려 마신다.
④ 시간의 여백이 느껴지는 시를 읽는다.

24. 다음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오늘날의 박물관 전시실에서는 최신 조명과 진열장, 최상의 재료와 연출 기법을 동원한 실내 장식을 선보이며, 이를 위해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투입한다. 그렇게 꾸민 전시장은 공항 면세점의 고급스러운 명품 매장이나 박람회의 세련된 부스처럼 첨단과 신소재, 품격, 우아함 등 좋은 것 일색이다. 이를 보고 보통은 전시가 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잘되었다는 것일까?

신기술이 적용된 진열장의 세련됨인지, 글자와 색색의 문양으로 구성된

멋들어진 설명 패널의 현란함인지, 조명 장치에서 쏟아지는 빛의 파장과 전시품의 형상인지, 얼른 알아채기 힘들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 작품이 주는 미적 환상이나 기품이 사실은 그 자체보다 외적인 연출로 조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전시가 잘되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글쓴이가 오늘날 박물관의 전시 상태나 전시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②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작품의 미적 기품이 정말 화려한 전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③ 그렇다면 형편없는 실내 장식 속에 전시된 작품은 제대로 된 미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④ 고급스러운 실내 장치로 얻게 되는 미적 감흥은 조작된 것이 아닐까?

25. 다음 두 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제도적·물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쌈지 공원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나]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의 종합 놀이대 1개와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2개, 고무 매트나 고무 칩 포장이 된 바닥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즉,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 칩이다.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안정성 면에서 탄성 고무 칩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고무 매트나 고무 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하지 않던 것을 해 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 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한다.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① 대상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②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문제를 둘러싼 대립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절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26. 다음은 위 시를 읽고 난 후의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한 것은? [2.7점]

①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즉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②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지키려는 화자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
③ '등불을 밝혀' 내몰고자 하는 '어둠'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
④ 윤동주가 일본 유학 중에 쓴 작품으로, 자기반성을 통해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 냈어.

27. 위 시에서 첫 번째 연을 반복, 변주하여 여덟 번째 연을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격정적으로 분출하기 위해
② 지나간 삶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
③ 어두운 현실을 재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④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28.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도치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일부 시행을 명사로 끝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③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명암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난쟁이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낙원구 행복동의 도시 빈민 가족이다. 그들은 꿈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던 중,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어려움에 처한다.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얘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u>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u>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 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u>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u>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

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반어적 표현으로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하고 있다.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④ 대화 장면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현실의 문제가 언젠가는 해소될 것임을 의미한다.

② ㉡: '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상징한다.

③ ㉢: 이기적 욕망만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④ ㉣: 힘든 삶이 가득한 부조리한 현실과는 대조되는 세계이다.

31. 윗글의 '난쟁이'가 상징하는 인물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3점]

① 새벽 인력시장에 기대어 겨우겨우 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일용직 노동자

②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③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으며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는 외국인 노동자

④ 부모와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힘쓰며 살았으나 나이 들어 삶에 회의를 느끼는 중년의 가장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따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캤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및 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궐기 대회 꼭 나오라 캤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깅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2점]

① 황만근은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궐기 대회에 갔다.
② 황만근은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다.
③ 민 씨는 황만근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④ 마을 이장은 농민 궐기 대회에 참석하라고 황만근 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33.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민 씨는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② 마을 이장은 소 여물을 주는 것이 황만근의 실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마을 제사의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④ 마을의 연장자 황재석 씨는 황만근을 어수룩하며 술만 좋아하는 인물로 생각하여 얕잡아 보고 있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점]

①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③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④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비정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降)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本)이고 화가 말(末)이며 수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

가오리까."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옵소서. 장마가 지면 물이 한 골로 모이듯 말도 한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성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목숨이 어느 쪽을 좇아야 하겠습니까. 상헌은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헌은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헌을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따라주시옵소서."

김상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 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옵고 강토를 보전하고 군부를 지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온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虎口)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 김훈, 『남한산성』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장면과 요약을 빈번하게 전환하면서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② 병자호란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③ 배경 묘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36.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청나라는 ㉠을 통해 남한산성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을 최명길은 화친의 뜻으로, 김상헌은 투항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김상헌은 ㉠을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싸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최명길은 ㉠이 예의를 갖추고 있으니 글로 응할 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7. 최명길과 김상헌의 성격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최명길	김상헌
①	논리적이고 현실적임, 실리를 중시함.	논리적이고 투쟁적임, 명분을 중시함.
②	차분하고 이타적임, 결과를 중시함.	다혈질이고 이기적임, 과정을 중시함.
③	차분하고 이성적임, 명분을 중시함.	호전적이고 감정적임, 실리를 중시함.
④	논리적이고 이성적임, 정체성을 중시함.	논리적이고 감정적임, 관계성을 중시함.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나]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38. [가]와 [나]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점]

	[가]	[나]
①	비판적	관념적
②	관념적	비판적
③	서사적	의지적
④	의지적	서사적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시구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여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④ 인식의 주체와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40. [가]와 [나]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한 학생은? [2.7점]

① [나]는 [가]에서 시어만 일부분 바꾼 것이어서 주제 의식은 차이가 없어.
② [나]는 [가]를 패러디한 것이기에 독자적인 작품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
③ [나]는 [가]와 달리 현대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④ [나]는 [가]의 운율과 통사 구조 등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가]의 풍자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어.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41.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와 거리가 먼 것은? [1.3점]

① ㉠분개하고　　② ㉡욕을 하고
③ ㉢반대하는　　④ ㉣반항한다

42. 위 시의 시구에 나타난 특징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경우, 이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점]

<보기>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① 돼지 같은 주인 년
② 붙잡혀 간 소설가
③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④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굿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A]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43.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제시한다.
②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
④ 토속적인 방언을 씀으로써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44. 위 시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점]

① ㉠: 시간적 .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주된 정서를 알 수 있다.
② ㉡: 대상을 의인화함으로써 화자가 육신의 피로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 흰 바람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난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④ ㉣: 푸른 색채 이미지를 이용해 추위를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45. [A]에서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3점]

<보기>

(a) 열거법	(b) 의인법	(c) 영탄법
(d) 도치법	(e) 설의법	(f) 돈호법

① (a), (b), (d)　② (a), (c), (e)
③ (a), (d), (f)　④ (a), (e), (f)

[46~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u>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u>.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박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친친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에 긴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중략)

[A]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집는다. 날짜를 보더니

처: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삼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중략)

처: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괜찮아, 밥 먹었어.

처: 어디서요?

교수: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두 하구.

처: 언제요?

교수: 오늘 아침에도 먹었구. 점심두…….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간을 못 하겠군.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짤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 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잔치를 했는데.

처: 당신두 참! 어제 당신 아버지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

교수: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환을 내지 않았소?

처: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교수: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처: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교수: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 (㉣<u>이때 밖에서 시계가 여덟 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u>.) 여덟 시야! 여덟 시! 늦겠군.

처: 어디 가세요?

교수: 어디 가긴 어디 가. 나 가는 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전번 모양 철쇄를 졸라맨다.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처: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교수: 여덟 시를 치기에 아침 여덟 신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 보니 밤 여덟 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 이근삼, 「원고지」

46.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 규격화된 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② ㉡: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③ ㉢: 교수가 사회에서 느끼는 억압보다 가정에서 느끼는 억압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 일상의 굴레에 갇혀 기계적인 삶을 이어가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다.

4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점]

① 등장인물들을 보통명사로 지칭하여 문제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② 인과 관계가 분명한 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과장되고 반어적인 대사를 통해 현대인의 인간 소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유사한 행위가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모습을 통해 무가치한 일상을 고발하고 있다.

48. [A]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7점]

①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겠네.
② 사건을 통해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군.
③ 신문에 실린 기사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구나.
④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있군.

[49~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42. 메밀밭 사잇길(밤)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 생원과 백근이, 조 선달이 지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조 선달: (ⓐ) 저, 저, 저, 동이 놈 아니야?
허 생원: (조 선달의 시선을 따라 본다.) 어?

동이가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S# 43. 메밀밭 다른 길(밤)

다른 구도의 메밀밭 오버랩(OL).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 생원과 조 선달.

허 생원: (숨차 하며) 아, 아직도 따라오는가?
조 선달: 동이 녀석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여?
허 생원: 아, 저 녀석도 대화 장에 가려나?
조 선달: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집에서 자고 내일 동이 틀 무렵에 발을 놔도 될 것을…….
허 생원: (ⓑ) 아니 그럼 아까 충주집에서 나한테 따귀 맞은 그 일 때문에?
조 선달: (힐끗 뒤를 돌아보며) 그러게나 말이야. 저 녀석이 뒤따라오면서 돌부리를 들고서 해코지를 하면 당해 낼 재간이 없잖여.
허 생원: (ⓒ) 아유.

허 생원과 조 선달, 더욱 빠르게 걷는다. 동이가 멈춰 선 허리를 숙인다.

조 선달: (뒤돌아서 동이를 가리키며) 어, 저, 저, 저, 저놈이.

허 생원과 조 선달이 놀란 표정으로 동이를 바라본다.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 내고 있다.

조 선달: (허 생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했나?
허 생원: (머쓱한 표정으로 숨을 고른다.)
조 선달: (동이를 향해 큰 소리로) 이거 봐, 동이!
동이: (계속 신발을 턴다.)
조 선달: (큰 소리로) 어딜 가나? 어느 장에 가냐고?
동이: 아직 안 정했어유. 생원 쪽은요?
조 선달: 우리는, 저. (허 생원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동이 가는 데로 가라고!
동이: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뭘.
조 선달: (허 생원을 보며)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허 생원: (헛기침을 한다.)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다시 길을 걷는다.

조 선달: 저, 동이 녀석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u>달 밝은 밤</u>이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 이야기나 한 자락 뽑아 보지그려?
허 생원: (웃으며) 아, 물리지도 않았어? 허허.
조 선달: (웃으며) 물렸지, 물렸어. 허허. 그래도 이 달 밝은 밤에 그 이야기

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트기가 참 섭섭하네.
허 생원: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 이효석 원작, 동희선 · 홍윤정 각본「메밀꽃 필 무렵」

49.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반가운 얼굴로
② ⓑ: 놀란 목소리로
③ ⓒ: 탄식하며
④ ⓓ: 허공을 보며

5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허 생원과 조 선달의 갈등 해소의 매개체이다.
② 허 생원의 인간 본연의 욕망을 분출하는 매개체이다.
③ 허 생원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④ 허 생원의 운명과의 갈등 양상을 표출하는 매개체이다.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고사는 재외국민이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지식과 학업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9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50문항으로 응시자들의 한국어 관련 능력과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한국문학 및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히 응시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의 특성, 어문 규정 및 다양한 유형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대문학 작품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언어능력, 텍스트 해석능력 및 논리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고사는 시험의 변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수준의 제시문과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지문 및 문항은 국어, 문학(고전문학 제외), 독서 교과서를 토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응시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문항 1, 3, 4, 5
성취기준 2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문항 7,
성취기준 3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문항 2, 6
성취기준 4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항 13
성취기준 5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37, 38, 39, 41, 43
성취기준 6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문항 31
성취기준 7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항 40, 44

2. 교과명: 독서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9, 10, 11, 12, 15, 16, 21, 25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8, 18, 20
성취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항 22, 23, 24
성취기준 4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19
성취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17

성취 기준 6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14

3. 교과명: 문학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27, 28, 29, 45, 47
성취 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항 26, 34, 42
성취 기준 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항 46, 49
성취 기준 4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항 30, 32, 36, 48
성취 기준 5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문항 33, 50
성취 기준 6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문항 35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최원식	창비	2018	285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
『독서』	이삼형	지학사	2018	76	김진석,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
『독서』	박영목	천재교육	2018	54	이인희·황경아, 다문화주의의 개념	○
『독서』	방민호	미래앤	2019	75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독서』	서혁	좋은책신사고	2018	55	서유헌,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
『독서』	이삼형	지학사	2018	54	임석재,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
『독서』	박영목	천재교육	2018	50	김정태·홍성욱,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
『국어』	최원식	창비	2018	312~317	김정수,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
『독서』	서혁	좋은책신사고	2018	126-128	박일호, 세잔과 입체파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64-66	이진경,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73	박현택, 보이지 않는 디자인	○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83	이훈길, 도시를 걷다	○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79-80	편해문,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40-47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252-257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67-73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294-298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9	208-214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9	276-280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18-22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218-227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9	243-251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9	226-235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56-265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64-75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66-73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9	232-238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9	272-275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22-229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30-33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문학』	정호승 외	해냄에듀	2019	32-37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210-215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문학』	정호승 외	해냄에듀	2019	52-61	김훈, 남한산성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126-135	김훈, 남한산성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74-283	이근삼, 원고지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55-266	이근삼, 원고지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266-273	이근삼, 원고지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46-59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308-315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94-97	김춘수, 꽃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86-87	김춘수, 꽃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87-90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46-59	이효석 원작, 동희선·홍윤정 각본, 메밀꽃 필 무렵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해당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1)~(7)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음운의 변동과 정확한 발음, 한글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등의 단원을 바탕으로 출제했다. 이 중에서 음운 변동(사잇소리 현상,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등),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질문하였다.

(1) ㉠ '뒷말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의 예: 꼭지+점(꼭짓점), 만두+국(만둣국), ㉡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의 예: 비+물(빗물), 후+날(훗날), 예사+일(예삿일). '인사+말'의 경우, 표준 발음이 '인사말'이라 사잇소리를 쓰지 않음.

(2) 띄어쓰기 회수: ① 나는 달린 지 오 분 만에 숨이 찼다.(7회) ② 이제 믿을 데는 오직 자신의 실력뿐이다.(5회) ③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오만 원이 필요해요.(6회) ④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악수는커녕 눈인사도 없다.(5회)

(3)은 된소리되기의 대한 설명의 예를 찾는 문제로 ④의 '올 때'의 경우, 의존명사 '때'는 원래부터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현상이라고 할 수 없음.

(4)는 구개음화의 예를 찾는 문제로, ②'홑이불'의 '이불'은 'ㅣ'로 시작하긴 하지만 '형식형태소'가 아니라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아님([혼지불]이 아닌, [혼니불]로 발음).

(5)는 음운 변동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음운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를 겪는 '낳는'과 같은 예를 찾아야 함. ① '꽃다발': 음운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② '앞마당': 음운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③ '닫히다':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④ '어떻게': 거센소리되기

(6)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로, 한글 맞춤법 제5항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나는 현상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④번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곱빼기'로 쓰지만, 나머지는 'ㄱ, ㅂ' 받침 뒤에 나는 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써야 맞다. ① 싹둑, ② 깍두기, ③ 법석.
(7)의 ㉢은 직접 인용의 경우로 편지 내용대로 '~ 된다"라고' 쓰는 것이 맞다.

(8)은 주어진 내용과 비슷한 관점을 갖는 문장을 찾는 것으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비슷한 것은 ①이다.

(9~10)은 글의 설명 방식과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글의 설명 방식을 요약하자면, [가]는 정의, [나]는 유추, [다]는 유추, [라]는 대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설명 방식은 [나], [다]라고 할 수 있다(9). (10)에 제시된 예는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의 차이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조라고 할 수 있다.

(11~15)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을 다룬 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11)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사실을 기반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써서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글의 내용 파악을 묻는 (12)의 경우, ④'국내 환경 단체들의 활동'은 나오지 않는다. (13)의 도표는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밀도가 전 세계 주요 비교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한국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소 수준임을 언급하고 있는 [아]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4)는 문맥상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앞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 예방의 원리'가 적당하다. (15)는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녹아 나온'은 '응결된'보다는 '용해된'이 적당하다.

(16~20)은 화가 세잔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다룬 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16)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이 화가의 작품 세계를 먼저 제시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당하다. (17)은 제시 글에는 세잔이 소묘와 색체의 조화, 기하학적 조형의 중시를 다루고 있으므로, ②'세잔은 색채의 조화를 기하학적 구성보다 우선시했다.'라는 언급은 타당하지 않다. (20)은 ㉡ 앞에 세잔이 '소묘와 색채'의 상호 보완과 조화를 추구했다는 언급이 나오므려, '형태'와 '색'의 상호 보완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21~23)은 속도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을 변속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이 글은 현대 사회의 현상(시간 강박)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관점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21) ①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저자는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정지할 수도 있는 '자신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2) ③ '자신의 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빈칸 ⓐ에는 일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②의 다른 주제의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4)는 글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④는 글쓴이와 같은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제기라고 하기 어렵다.

(25)는 두 글의 공통점을 찾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두 글은 도시공원과 놀이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26~28)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지문으로 하여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일본에 유학하면서 자신의 삶과 시 쓰기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26). 이 시에서는 1연의 시구를 8연에서 반복, 변주함으로써 화자가 현실에 대한 재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27). 아울러 일부 시행을 명사로 끝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상징

적 시어와 명암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28).

(29~31)은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지문으로 하여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작품은 난쟁이 일가를 통해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70년대 가상의 공간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사회적 문제인 빈부 격차,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피해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게도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해 가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반어적 표현으로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29). 이 소설에 쓰인 표현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는 현실의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는 등장인물들의 꿈이 좌절될 것음을, '죽은 땅'은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달나라'는 부조리한 현실과는 대비되는 세계를 암시한다(30). 이 작품의 '난쟁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물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31).

(32~34)는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을 지문으로 하여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려 낸 소설이다. 약간 모자라지만 선량하며 관용과 도량의 정신을 가진 '황만근'과 이기적이며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의 비정함과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쓰이고 있어 사건의 전개와 등장인물의 생각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32). 황만근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황만근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33). 소설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전개 방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소설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34).

(35~37)은 김훈의 『남한산성』을 지문으로 하여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병자호란을 다룬 역사 소설로, 청나라의 침입으로 인한 조정의 저항과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 등을 현대적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문장으로 주전파와 주화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임금의 내면을 깊이 있게 묘사하였다. 특히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화에서 나오는 갈등 양상을 통해 두 인물이 어떤 의식과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35). 청나라에서 보낸 '문서'에 대한 해석은 등장인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최명길은 화친의 뜻으로 김상헌은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싸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투항의 뜻으로 해석하였다(36).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최명길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리를 중시하는 자로 파악되고 김상헌은 논리적이고 투쟁적이며 명분을 중시하는 자로 파악된다(37).

(38~40)은 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를 지문으로 하여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꽃」은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존재의 본질에 가닿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소망은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는데, 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의 작품을 패러디한 시이다. 이 작품은 원작의 소재였던 '꽃' 대신, '라디오'와 '버튼', '전파' 등 현대 문명이 발명한 소재를 활용하여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라디오를 쉽게 켜고 끄는 행위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을 풍자한 시이다. 작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는 관념적인 성격을, 후자는 비판적 성격을 띤다(38). 특별히 전자의 작품은 간절한 어조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시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인식의 주체와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해

가는 특성을 보여준다(39). 후자가 전자의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모방이 되 원작과는 차이를 지닌 모방으로써, 원작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기능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때, 후자가 전자와 달리 현대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40).

(41~42)는 김수영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지문으로 하여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시는 196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주변에서 불합리한 이를 겪게 되지만, 당신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에 작가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성, 속물성을 성찰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소시민성을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라는 시구로 드러내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시어 '분개하다, 욕을 하다, 반항하다' 등이 연관을 맺고 있다(41). 김수영 시인은 시어와 일상어와의 구분을 없애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선다(42).

(43~45)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지문으로 하여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작품은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은 부재한 대상에 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하는 한편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이 시는 현재형 어미로 상황을 제시하고 독백의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며, 토속적인 방언을 씀으로써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43). '좁은 방', '바람벽'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지치운 불빛'으로 육신의 피로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때글은'으로 가난한 생활상을,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44). 시의 후반부에는 여러 표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열거법, 의인법,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다(45).

(46~48)은 이근삼의 「원고지」를 지문으로 하여 희곡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작품은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가치 없는 일상을 고발한 부조리극이다. 특별한 갈등의 고조 없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만을 제시하면서 극이 전개되고, 무의미한 대사와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설정, 등장인물에게 해설자 역할을 맡기는 방식 등을 통해 인간 소외가 만연한 현대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나누는 대사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46). 이 희곡은 등장인물들을 보통명사로 지칭하여 이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임을 드러낸다. 과장되고 반어적인 대사를 통해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유사 행위를 제시하여 현대인의 무가치한 일상을 표현한다(47). 등장인물인 '교수'가 신문을 보는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점,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48).

(49~50)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원작으로 하여 동희선·홍윤정이 각색한 「메밀꽃 필 무렵」 시나리오를 지문으로 하여 시나리오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묻고 있다. 시나리오라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학이 구현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상황과 대사에 어울리는 지시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49). 소설이든 시나리오든 '달 밝은 밤'이 상징하는 것은 동일하며,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50).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5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1점, 1.3점, 2점 2.7점, 3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번	1	11번	4	21번	1	31번	4	41번	3
2번	1	12번	4	22번	3	32번	1	42번	2
3번	4	13번	4	23번	2	33번	4	43번	3
4번	2	14번	2	24번	4	34번	2	44번	2
5번	2	15번	1	25번	2	35번	4	45번	1
6번	4	16번	3	26번	1	36번	4	46번	3
7번	3	17번	2	27번	3	37번	1	47번	2
8번	1	18번	3	28번	1	38번	2	48번	4
9번	4	19번	1	29번	4	39번	1	49번	1
10번	4	20번	1	30번	1	40번	3	50번	3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재외국민특별전형 국어 문항은 국어의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재외국민 전형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은 1번~7번 문항은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여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을 하는 능력, 다양한 문법 요소를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등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모두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의 성취기준 [10국04-02], [10국04-03], [10국04-04]를 근거로 한다. 각각의 문제는 모두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비슷한 유형의 것이며, 지식이 실제 사

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실제로 사용된 사례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국어 과목 교수·학습 및 유의 사항이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8번~25번 문항은 '독서' 과목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글을 읽으면서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역량,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역량,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 등을 비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주장이나 중심 내용을 묻거나 내용 일치를 묻는 사실적 사고 영역의 문제부터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사고 영역을 출제하였다. 이는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3-01], [12독서03-02], [12독서03-03]와 연계된 문항으로 국어 교과의 읽기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독서 영역의 평가 역량을 정리해 보면 자료·정보 활용 역량,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는 역량,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독서 태도와 관련한 역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읽기 방법을 달리하며 독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독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독서의 분야'를 보면, 인문·예술 분야, 사회·문화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외 시대나 지역,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를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제외국민전형의 독서 지문은 모두 그 출처가 교과서이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자료들이며, 다양한 교과서에서 자료를 선택하여 특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수험생에 따라 유리하지 않도록 고르게 출제하였다.

26번~50번 문항은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문학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문학 수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는 능력 등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갈래별 특징과 연결된 문항, 문학적 내용과 형식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문항, 인간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거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10국05-01], [10국05-02], [12문학01-01], [12문학02-04], [12문학04-01] 등 국어과 문학 과목의 성취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학 영역의 평가 역량도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모아진다. 성취기준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갈래를 이해하고 형식과 내용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과정, 정보 활용 역량이나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평가 요소로 활용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문학 자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요 작품이라 할 만한 유명하고 친숙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갈래별로 골고루 선별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교과서에서 선별한 자료들이라 독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다. 게다가 현대 문학만을 출제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문항수가 전년 대비해서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증가하였지만, 문제를 푸는 시간 역시 60분에서 90분으로 중가하여 문항당 풀이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활용된 지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 구성이고, 지문의 내용도 쉽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법 영역도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만을 출제하였기 때문에 고

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재외국민특별전형 국어 문항들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 출제 범위인 국어, 문학, 독서 과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문과 내용이 교과서나 그 학습 활동의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따라 출제되었다고 본다. 특히 모든 자료가 현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지문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실제 해당 교과서의 학습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18]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1~40)문항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4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부등식 $|x-1|+|x+1| \le 8$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7점]

① $-5 \le x \le 0$ ② $-4 \le x \le 4$

③ $0 \le x \le 5$ ④ $2 \le x \le 6$

2.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begin{cases}\log_2 x & (x \ge 1)\\ (a-1)x+b & (x<1)\end{cases}$$

가 일대일대응일 때, 정수 b의 최댓값은? [1.7점]

① -3 ② -2

③ -1 ④ 0

3.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2+(k+1)x+1 \le 0$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솟값은? [1.7점]

① -3 ② -2

③ 0 ④ 1

4. 두 함수 $f(x)=ax+b,\ g(x)=2x+4$가 $f\circ g=g\circ f$를 만족할 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a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 점의 좌표는? [1.7점]

① $(2,-2)$ ② $(-2,-4)$
③ $(-1,3)$ ④ $(-4,-4)$

5. 다음 중 $z+\bar{z}=0$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는? (단, $\bar{z}$는 z의 켤레복소수이다) [1.7점]

① $z=1+\sqrt{2}i$ ② $z=(2+i)i$
③ $z=(2-\sqrt{3})i$ ④ $z=\dfrac{2}{1+i}$

6. 직선 $x+2y-2=0$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이등분할 때,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2점]

① $\dfrac{1}{4}$ ② $\dfrac{4}{3}$
③ $\dfrac{1}{2}$ ④ $\dfrac{1}{3}$

7. 다음 명제 중 참이 <u>아닌</u> 것은? [2점]

① a, b가 양의 실수일 때, $\dfrac{b}{a}+\dfrac{a}{b}\geq 3$이다.
② a, b가 실수일 때, $a^2+b^2\geq ab$이다.
③ a가 실수일 때, $a^2+a+1>0$이다.
④ a, b가 실수일 때, $|a|+|b|\geq\sqrt{a^2+b^2}$이다.

8.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sqrt{a}\sqrt{b}=-\sqrt{ab}$일 때, $\sqrt{(a+b)^2}+|b-4|-3\sqrt{a^2}$을 간단히 한 것은? [2점]

① $-2a+2b-4$ ② $2a-2b+4$
③ $-4a+4$ ④ $2a-4$

9. 두 집합

$A=\{x|\, a-1 < x < a+1\},\ B=\{x|\, x < 2a+5\}$

가 서로소일 때, 상수 a의 최댓값은? [2점]

① -2 ② -4

③ -6 ④ -8

10.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하나의 원 위에 놓여 있다. 이 점들을 이어서 최대 66개의 서로 다른 직선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점들을 꼭짓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는? [2점]

① 200 ② 210

③ 220 ④ 230

11.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m,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n이라 하자. 이때, 이차함수 $y=x^2+(m+n)x+mn+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3점]

① 22 ② 24

③ 26 ④ 28

12. 삼차방정식 $x^3+ax^2-3x+b=0$의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5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2-b^2의 값은? [3점]

① -4 ② -2

③ 4 ④ 2

13. 0이 아닌 복소수 z가 $z\bar{z}+\dfrac{\bar{z}}{z}=2+i$를 만족할 때, $(z-\bar{z})^2$의 값은? (단, $\bar{z}$는 z의 켤레복소수이다) [3점]

① -4 ② 4

③ $1-4i$ ④ $1+4i$

14. 집합 $X=\{1,2,3,4\}$에 대하여 함수 $f: X\to X$가 일대일대응이다. 그리고 이 함수는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neq x$를 만족한다. $f(1)+f(4)=6$일 때, $f(2)+f^{-1}(2)$의 값은? [3점]

① 4 ② 5
③ 6 ④ 7

15. 이차함수 $y=-(x^2+4x+3)$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 하자. 이때, 원점과 가까운 점을 B라 하자. 그래프 위의 점 $P(a,b)$가 점 C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 점 B를 거쳐 점 A까지 움직일 때, $a+b+5$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은? [3점]

① $\frac{17}{2}$ ② $\frac{17}{3}$
③ $\frac{17}{4}$ ④ $\frac{17}{5}$

16. 다음 두 이차방정식

$x^2+2(a-2)x+1-8a=0,\quad x^2+2(a-1)x+3-2a=0$

중 오직 하나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a가 정수일 때, 모든 a값의 합은? [3.3점]

① -2 ② -1
③ 1 ④ 2

17. 원 $x^2+y^2=25$ 위의 두 점 A$(-3,-4)$, B$(5,0)$과 원 위의 한 점 C로 삼각형 ABC를 만든다.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댓값이 $a+b\sqrt{5}$일 때, ab 값은? (단, a, b는 자연수) [3.3점]

① 40 ② 60
③ 80 ④ 100

18. 원 $x^2+y^2+4x-6y+a=0$을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2c$만큼 평행이동한 원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원의 중심이 제2사분면 위에 있다. 이때, $a+c$의 값은? [3.3점]

① -13 ② -11
③ 13 ④ 11

19. 이차방정식 $x^2-px+q=0$의 두 근을 α, β라 할 때, 이 두 근은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α, β, p, q 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일 때, p의 최댓값은? [3.3점]

① 13 ② 29
③ 36 ④ 100

20. 삼차방정식 $x^3+1=0$의 한 허근을 ω라 할 때,

$$\omega+\omega^2+\omega^3+\cdots+\omega^6+\left(\frac{1}{\omega}+\frac{1}{\omega^2}+\frac{1}{\omega^3}+\cdots+\frac{1}{\omega^6}\right)$$

의 값은? [3.3점]

① -1 ② 0
③ 1 ④ 2

21. $72^x=27$, $24^y=81$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3^{\frac{3}{x}-\frac{4}{y}}$의 값은? [1.7점]

① $\frac{1}{3}$ ② 3
③ 27 ④ 48

22. 정의역이 $\{x \mid -1 \le x \le 3\}$인 함수 $y = 3^{x^2-4x-2}$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은? [1.7점]

① $\frac{1}{3}$ ② $\frac{1}{9}$

③ $\frac{1}{18}$ ④ $\frac{1}{27}$

23. $\log_{(a-2)}(-a^2+3a+18)$이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는? [2점]

① 2 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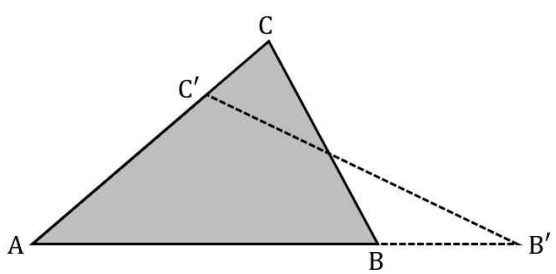
③ 4 ④ 5

24. 함수 $y = \log_a x + m\ (a >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1, 4$일 때, $\log_2 a + m$의 값은? (단, a, m은 실수) [1.7점]

① $\frac{2}{3}$ ② $\frac{3}{2}$

③ $\frac{5}{3}$ ④ $\frac{5}{2}$

25.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B의 길이를 30% 늘이고, 변 AC의 길이를 15% 줄여서 삼각형 AB′C′를 만들었다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0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점]



① 221 ② 224

③ 227 ④ 230

26. $\sin\theta-\cos\theta=\frac{1}{2}$일 때, $\frac{\sin^3\theta}{\cos\theta}+\frac{\cos^3\theta}{\sin\theta}$의 값은? [2점]

① $-\frac{2}{3}$ ② $-\frac{1}{6}$

③ $\frac{2}{3}$ ④ $\frac{23}{12}$

28. 등비수열 $\{a_n\}$이 $a_2=15$, $a_5=-405$를 만족할 때, $a_2+a_3+a_4+a_5+a_6$의 값은? [3점]

① -305 ② 910

③ 915 ④ 1820

29. 수열 $\{a_n\}$에서 $\sum_{k=1}^{n}a_k=n^2+3n-2$ 일 때, a_1+a_8의 값은? [3점]

① 18 ② 20

③ 22 ④ 24

30. 수족관에 xL의 물이 들어 있다. 수족관에 들어 있는 물의 $\frac{1}{4}$을 버리고 5L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 n회 시행 후 수족관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을 a_nL라고 하자. $a_3=\frac{455}{16}$일 때, x의 값은? [3.3점]

① 28 ② 32

③ 36 ④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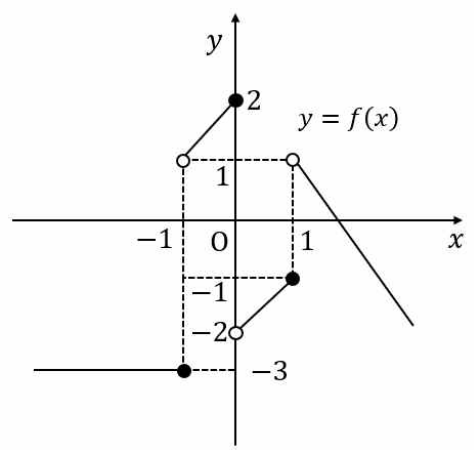
31. 함수 $y=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lim_{x\to 1+} f(x)f(1-x)f(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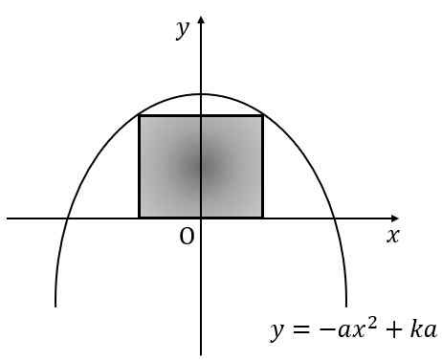
의 값은? [3점]

① -6 ② -2

③ 2 ④ 6



32. 그림과 같이 함수 $y=-ax^2+k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 할 때, $\lim_{a\to\infty} S(a)=12$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은? (단, $a>0$) [3.3점]



① 1 ② 2

③ 3 ④ 4

33.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x=a$에서 극솟값 b를 가질 때, 곡선 $y=x^2f(x)$ 위의 점 $(a, a^2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1.7점]

① $y=2abx-a^2b$ ② $y=2abx+b^2$
③ $y=a^2x-2ab^2$ ④ $y=b^2x$

34. 연속함수 $f(x)$가 $f(-3)=-8$, $f(-2)=-5$, $f(-1)=1$, $f(0)=-1$, $f(1)=-2$, $f(2)=7$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x=0$은 구간 $(-3,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1.7점]

① 0 ② 1
③ 2 ④ 3

35.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lim_{h\to 0}\frac{f(1+2h)-f(1-4h)}{h}=18$일 때, $\lim_{x\to 1}\frac{f(x^3)-f(1)}{x-1}$의 값은? [3.3점]

① 3 ② 9
③ 18 ④ 27

36. 함수 $f(x)=x^3-2(a+1)x^2+ax+4$가 $-3<x<-2$인 x의 값에서 극댓값을 갖고 $x>-1$인 x의 값에서 극솟값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가 $p<a<q$이다. $q-p$가 최대일 때, pq의 값은? [3.3점]

① $\frac{20}{3}$ ② $\frac{21}{5}$
③ $-\frac{21}{5}$ ④ $-\frac{20}{3}$

37. 함수 $f(x)=x^3-3x+4$가 $x=a$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곡선 $y=f(x)$위의 점 $\mathrm{P}(a,f(a))$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점을 A라 하자.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점]

① 1 ② 3
③ 6 ④ 9

38.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x^3-2x^2+3\int_0^1 f(t)dt$일 때, 함수 $f(x)$의 극댓값은? [2점]

① $-\frac{89}{216}$ ② $\frac{5}{24}$
③ $\frac{5}{8}$ ④ $\frac{4}{3}$

39.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의 속도 $v(t)$ m/s가 $v(t)=30-15t\ (0\le t\le 4)$라고 하자. p초 후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qm이고, 이후 1초간 움직인 거리가 rm일 때, pqr의 값은? [3.3점]

① 450 ② 225
③ $\frac{79}{2}$ ④ $\frac{15}{2}$

40. 곡선 $y=3x^3+3(2-a)x^2-6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의 값은? (단, $a>0$) [3점]

① 1 ② 2
③ 3 ④ 4

3. 출제 의도

2026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학 과목 시험은 대학의 자연계열에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의 수학, 수학I, 수학II 등의 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정상적으로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90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와 활용 및 논리적 추론에 대한 사지선다형 40문항을 출제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항1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6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5]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문항2	[수학]=(5) 함수와 그래프-1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Ⅱ]=(1) 함수의 극한과 연속-2 함수의 연속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문항3	[수학]=(4) 집합과 명제-2 명제 [10수학03-04]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6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문항4	[수학]=(5) 함수와 그래프-1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항5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문항6	[수학]=(3) 도형의 방정식-2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항7	[수학]=(4) 집합과 명제-2 명제 [10수학03-04]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10수학03-08] 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문항8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문항9	[수학]=(4) 집합과 명제-1 집합 [10수학03-0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문항10	[수학]=(6) 경우의 수-2 순열과 조합 [10수학05-02]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항11	[수학]=(6) 경우의 수-2 순열과 조합 [10수학05-02]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5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10수학01-10]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문항12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6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문항13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문항14	[수학]=(5) 함수와 그래프-1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문항15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5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항16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7]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6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4] 미지수가 1개인 연립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문항17	[수학]=(3) 도형의 방정식-3 원의 방정식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문항18	[수학]=(3) 도형의 방정식-3 원의 방정식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3) 도형의 방정식-4 도형의 이동 [10수학02-08]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문항19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항20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4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문항21	[수학 I]=(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1 지수와 로그 [12수학 I 01-03]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문항22	[수학 I]=(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문항23	[수학 I]=(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문항24	[수학Ⅰ]=(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Ⅰ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수학]=(5) 함수와 그래프-1 함수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항25	[수학Ⅰ]=(2) 삼각함수-1 삼각함수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26	[수학Ⅰ]=(2) 삼각함수-1 삼각함수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문항28	[수학Ⅰ]=(3) 수열-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Ⅰ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29	[수학Ⅰ]=(3) 수열-2 수열의 합 [12수학Ⅰ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30	[수학Ⅰ]=(3) 수열-3 수학적 귀납법 [12수학Ⅰ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항31	[수학Ⅱ]=(1) 함수의 극한과 연속-2 함수의 연속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문항32	[수학Ⅱ]=(1) 함수의 극한과 연속-1 함수의 극한 [12수학Ⅱ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문항33	[수학Ⅱ]=(2) 미분-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34	[수학Ⅱ]=(1) 함수의 극한과 연속-2 함수의 연속 [12수학Ⅱ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문항35	[수학Ⅱ]=(2) 미분-1 미분계수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문항36	[수학Ⅱ]=(2) 미분-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37	[수학Ⅱ]=(2) 미분-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학Ⅱ]=(2) 미분-1 미분계수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문항38	[수학Ⅱ]=(3) 적분-2 정적분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수학Ⅱ]=(2) 미분-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39	[수학Ⅱ]=(3) 적분-3 정적분의 활용 [12수학Ⅱ03-06]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항40	[수학Ⅱ]=(3) 적분-3 정적분의 활용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88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223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197쪽
	수학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23,221쪽
	수학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48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26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206,207쪽
	수학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50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180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276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65,260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78쪽
	수학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48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223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74,175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57쪽
	수학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42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155쪽
	수학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55,56쪽
	수학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	2018	83,106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26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45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29쪽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47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05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82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84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36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40쪽
	수학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49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16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22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74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38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61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88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90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151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141쪽
	수학I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과서	2018	134쪽
기타					

5. 문항 해설

수학과 관련된 19개 문항(1번, 3번~20번)은 대부분 '다항식'에서 다루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다루는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루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집합과 명제'에서 다루는 집합, 명제, '함수'에서 다루는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순열과 조합'에서 다루는 순열과 조합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들이다.

수학 I , II와 관련된 21개 문항(2번, 21번~40번)은 대부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다루는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 다루는 삼각함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수열'에서 다루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다루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에서 다루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적분'에서 다루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활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4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1.7점, 2점, 3점, 3.3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번	2	11번	2	21번	2	32번	3
2번	3	12번	1	22번	4	33번	1
3번	2	13번	1	23번	1	34번	4
4번	4	14번	4	24번	3	35번	2
5번	3	15번	1	25번	1	36번	1
6번	3	16번	1	26번	4	37번	4
7번	1	17번	4	28번	3	38번	3
8번	2	18번	4	29번	2	39번	1
9번	3	19번	2	30번	4	40번	2
10번	3	20번	2	31번	3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2026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학 필답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요소, 평가항목, 성취기준, 평가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 과목과 관련된 20개 문항(1번~20번)은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 단원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학 I 과목과 관련된 10개 문항(21번~30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단원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수학 II 과목과 관련된 10개 문항(31번~40번)은 함

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단원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고등학교 정기고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기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필답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었으며, 각 문항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능력의 평가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었다.